



9

198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9호

(루게 443)



◆◆◆◆◆◆◆◆◆◆ 차 례 ◆◆◆◆◆◆◆◆◆◆

조국이여, 높이 솟아오르라.....	4
승고한 영상.....	5
오시는 날 기다려.....	6
언제나 백두산상에 서계시여.....	7
력사의 대답.....	8
지하평양의 샘물.....	11
동방의 태양 김정일	1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헌시.....	12
백두의 기상.....	13
사랑의 열매.....	16
회령의 들길에 벼이삭이 설레일 때.....	17
청진땅의 숨결 (외 1 편).....	18
장 미.....	18
조국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19
기쁨.....	19
공산주의혁명가의 위대한 품모에 대한 진실한 형상.....	20
치녀방사공.....	25
철새는 날아가도.....	26
현대동화창작의 귀중한 본보기.....	37
래일의 기슭으로.....	42
꽃.....	43
해빛아래 별빛아래.....	46
불타는 심장들.....	47

상봉지점	53
아들이 커갈때	55
인민의 강 대동강이여	65
나의 꽃	66
사랑의 하늘 (외 1 편)	67
돌과 속삭이노라	67
너의 만풍년은, 설레일 만풍년은	68
기다리는 집	69
금강문의 소나무 (외 1 편)	69
다시 찾아본 구룡폭포	70
평양의 하늘아래서	71
판화수업	72
기러기떼 쉬었다 가려마	80

조국이며, 높이 솟아오르라

권강일

푸른 하늘가에
세기에 기념비들은 솟아오른다
눈부신 해살 넘어
숙망의 언덕이 가까와온다

오, 조국이며
젊음에 넘치고
약동하는 힘에 넘쳐
영광 넘친 80년대를
비약의 나래 펴고 내닫는
나의 조국이며

언제 보아도
진할줄 모르는 힘을 안고
성실하게 일하는 로동복차림
너의 근면함을 자랑하노니

어찌 다 노래할수 있으랴
오늘 너의 모습은
하늘가에 창조의 글발을 새기는
공장지구 굴뚝들의 뭉게치는 흰구름
땅을 구르며 분주히 내닫는
화차들의 긴 행렬

너는 새땅을 안아올리는 서해바다가
물결우에 숲으로 솟은 기중기의 팔들
뻗어가는 제방우에
아름답게 비끼는 아침노을

태양을 향해 마주
장엄한 노래는 날아퍼진다
조국이며 너는
20리 바다우에 나날이 키솟음하는
그 언제와 함께 피어나는 온 나라의 이야기
래일의 즐거운 노래를 싣고
출렁이며 흐르는 대동강의 물소리

맹세의 광장에서 기발들은 갈라져
당이 부르는 미래의 구역으로 떠난다
조국이며 너는
위훈의 그 렐차에 흐르는 노래
밤을 밝히며 타오르는

개발지의 무수한 우등불
마천령의 아득한 산정에서

안전바를 조여맨 건설자들이
보고를 드린다
-수령님 뜻을 받들어
선광장을 일떠세웠습니다

조국이며 너는
이 땅 그 어디서나
금지높이 울리는 그 목소리
격정으로 끓는 그 가슴

생각하면
가장 옳바른 앞길을 밝히고
그 길우에
천만발걸음을 불러세우는
위대한 평도의 손길이 있어
우리 당의 예지는 빛발쳐

흘리는 땀 헛됨이 없이
바치면 그대로
나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피어나고
쏟으면 그 정
조국의 살결이 되고 피가 되어
솟아오르는 기념비들과 함께
한생의 보람으로 영광으로 되거니

오 조국이며 너는
아낌없이 흘리는
그 땀방울로 빛나오른다
성스러이 흘러가는 그 로동일들로
홍성이며 일어선다

멋대로 흐르던 강은
어깨우에 갑문을 떠받들고
배길을 열고
벌은 넓어져
아득히 수평선에 잇닿아 설레인다

천년 잠자던 땅속의 보화는
번쩍이며 달려나오고
이 땅이 무겁도록
재부는 가득 실린다

어딜 가나
로동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노래로
삶을 빛내여주는

그로 하여 정답고 화목하고
그로 하여 밝아오는 래일이 즐거운
나의 조국
너는 위대하여라
너는 강대하여라
너는 부러움 몰라라

무엇을 아끼랴
한순간을 살아도
수령님을 받들어
당을 받들어

성스러운 나의 로동일을 바치며
삶을 꽃피우려니

조국이어
청춘의 열정으로
그대의 걸음걸음 힘차게 떠밀며
뜨거운 숨결을 다 바쳐가는
우리의 불타는 마음안고
더 높이 날아오르라
나의 조국이어!

송고한 영상

최영화

가시는 길 수만리를 따라
오시는 길 수만리를 따라
낮에도 밤에도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던 마음들

오늘은 그 마음들이
감격의 노래가 되고
환호의 폭풍이 되어
조국의 하늘을 흔든다

수령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었다!
이 말보다 더 기쁘게
이 말보다 더 반갑게
우리 인민의 가슴을 치는
그처럼 뜨거운 말이 있으랴

두만강 잊지 못할 그 기슭에도
한창 꽃이 피던 아름다운 계절에
외국방문의 먼 길을 떠나시여
산과 들 어데를 보나
푸르게 무성한 이 좋은 여름철에
조국으로 돌아오신 우리 수령님

계절이 바뀌이도록
동서 6만리
영광에 찬 먼 로정을 이어오시고도
마치 북변의 어느고장을 다녀오신듯

건강하신 몸예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마중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저리도 기쁨에 뛰는 우리 인민의 마음
어찌하여 뜨거운 눈물에 젖는것인가

돌이켜보면
준엄했던 전후의 그 세월
혁명이 겪는 시련으로 하여
수령님 먼 외국방문의 길을
바쁘신 걸음으로 돌아오시였던 일을
지금도 가슴에 못잇을 아픔으로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이기에

오늘은 기쁨이 너무도 커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수령님을 맞이하는 감격이 너무도 커서
가슴을 적시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가슴이 터지도록 만세를 웨치나니

멀고 먼 지구의 서쪽
광활한 사회주의 대륙에
천선의 꽃바다를 펼치시며
단결의 기치를 높이 날리시며
세계혁명의 앞길에
찬란한 빛을 뿌리시고 돌아오시는
그 력사의 길우에서

수령님을 큰 기쁨으로 맞으시기 위해
당을 이끌고 인민을 불러
온 나라를 충성의 불길로 타번지게 하신

아,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 거룩하신 영상을
우리 어찌 마음의 눈물 없이 우러를수 있으랴

기쁘신 마음으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반가우신 마음으로
마중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 이 숭고한 영상은
우리 조국의 위대한 모습이어라

1984.7

오시는 날 기다려

조빈

아버이수령님 귀로에 오르시고
인민은 못내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마음
오시는 그날에 무엇부터 아뢰일가

환호의 꽃바다 수록만리길우에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 우러러
목메여오던 우리의 마음
오시는 그날에 무엇이 되어질가

나날이 아지치며 키돋움하는
푸르른 벌이 되어 설레일가
주렁진 열매 크는 과원이 될가
차창밖에 펼쳐져 한눈에 보시도록

장엄하게 철골의 숲이 설레이는
5개지구전선건설장마다
용접의 불보라되어 날릴가
멀리서도 쉬이 알아보시도록

그래도 먼저
지심 깊은 채탄장 한끝에
탄이 되어 폭포칠가
마음속에 먼저 그려보시도록

아, 천선과 단결의 세계를 안으시고
만면에 환한 미소 지으시는 수령님
오시는 그날을 못내 기다리며
송이송이 기쁨의 꽃 피여드리고픈 마음이어

오시는 날 기다려
아뢰이고싶은 인민의 마음속엔
때없이 후덥게 목메여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

제철지구 열풍속을 걸으시여
몇백몇천리를 이어가셨던가
길 험한 무산땅, 조선소와 룡성의 구내길로...
지퍼주신 혁신의 불길 온 나라에 타올랐거니

그이의 뜻으로 온 나라가 생각하고
우리 당의 숨결로 천만가슴 고동치며
인민의 충성된 마음
당의 두리에 성새로 솟았다고

천백가지 기쁨중에
이 기쁨 먼저 아뢰이고싶어
아버이수령님 오시는 날 기다리는
우리 인민의 마음이어

언제나 백두산상에 서계시여

박희구

백두의 하늘가득
승엄히 비끼는
위대하신 영상
해빛처럼 환히 웃으시니
천지도 따라 웃고
누리엔 밝은 빛발 넘치여라

아, 우리 수령님
백두산상에 오르셨다고
발밑에 흐르던 구름도 걷히고
환희에 솟구치며 달려오는
천만산발의 파도들
하늘같은 그이의 품에 안기여라

항일전의 피어린 준령들과
위훈의 무수한 봉우리들을 안으시고
아버이수령님
밝은 해살로 어루만져주시며 하시는 말씀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백두산이 있었습시다!

아, 조국땅우에 락원의 오늘을 펼쳐주시고도
우리 수령님
순간인들 잊으신적 있었던가
20여성상 풍찬로숙하시던
이 백두산을

깊어가는 평양의 밤
새 저술의 한자한자에도
어느 설계도면의 점하나에도
비쳐보시고 또 비쳐보시던
마음속의 그 백두의 등잔불

그 빛발 어린신 안광으로
설레이는 밀림의 저 한끝
밀영의 산발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는가

아니면
밀림처럼 일떠선
강철의 기둥들사이를 걸으시던
그날의 마음으로
이글거리는 병기창의 화광속에

울려퍼지던 마치소리의 메아리를 들으시는가

어디나
설령에 타오르던 사랑의 그 우등불가는
한흙의 미시가루 나눠주시던
아버이 그 손길로
가없이 물결치는 금나락의 대지를 펼쳐주신
우리 수령님

아, 조국의 오늘과 미래도
성스런 30년대에 이어주시며
이 땅 그 어디나 다 걸으시는
수령님의 그 자욱자욱
천만가지 그 사색이
해를 안고
별을 안고
여기 백두산상에서 내려쳐올랐거니

불어오는 바람도
삼가 쓸어보며 속삭이는가
백두의 눈비에 젖은
수령님의 이 옷자락에는
철탑의 숲이 스치고
만풍의 금나락이 불을 비비고
인민의 행복의 이슬이 젖어흐르고있다고...

천리수해의 갈피갈피
30년대의 력사를 간직한
아, 백두산 백두산
이제는 흘러가는 년대와 년대우에
찍어가시는 거룩한 그 자욱도 새겨안고
저리도 장엄하게 설레이며
위대하신 수령님 우러러
불멸의 그 위업 노래하나니

군복자락 날리시며
백두에서 그려보시던 그 모든것
온 조국땅우에
온 세계의 대륙들에
영원히 꽃피우시려
아, 혁명의 태양 김일성동지
언제나 백두산상에 서계시여라!

력사의 대답

김종설

동방 조선의 위대한 태양은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력사의 새로운 장을 폭풍같은 환호의 꽃바다로 장식하며 광활한 씨비리로부터 오데르, 엘바, 두나 이강을 건너 아드리아해안까지 전 유럽을 찬란히 비쳐갔다.

그 감격적인 나날에 나는 우리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볼수 있었다.

벽에는 세계지도가 걸려있고 그앞에는 한 녀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의자에 앉아있었다. 녀인은 지도에 빨간줄을 그어 가며 5각별을 그려넣고 아기는 잘 익은 양뻘처럼 탐스러운 입술을 오물거리며 어머니가 대주는 외국의 지명들을 따라외우고있었다.

《치-이-타》

《모-스으-끄바아》

《아루사-와》

《베-에루-린》

발음이 서툴어서 더한층 귀엽게만 들리는 아기의 쟁글거리는 목소리가 소중한듯 어머니는 붉은별이 그려진 유럽의 도시들을 자꾸만 짚어갔다.

자기의 뉘를 그대로 아기의 맑은 눈동자에 심어주려듯 어머니는 그 귀여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부-꾸-레-슈-띠》하고 또박또박 발음을 하였고 아지도 그 말을 또박또박 받아 외우며 활짝 핀 함박꽃처럼 웃었다.

행복,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말할 때 이러한 가정적분위기에 대해서도 녀두에 두었을것인가.

무릇 그것은 헤일수 없이 많은 생활의 아름다운 화폭들을 사람들에게 약속해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살아갈수록 빛나는 삶, 이 아기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것이며 아기의 미래는 또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것인가.

아기와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형제들, 누이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무수히 많은 단란한 가족들이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가계신분을 그려보고있었다.

그것은 민족의 긍지, 민족의 영광, 민족의 존엄을 더욱 가슴뿌듯이 받아안게 된 시각이었다.

모든 도시들, 거리와 마을들 풍요한 농촌과 호

젖한 어촌마을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모시고 사는 모든 가정들에서 이런 감격과 흥분 속에 의의깊은 나날을 보내었다.

비록 생김새와 나이, 직업은 서로 달랐지만 이 시각 그들의 마음과 마음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시는 그 앞길에 행복이며 노래며 환희 같은것들을 아름다운 비단필처럼 끝없이 펼쳐가고있었다.

우리 인민모두가 것처럼 텔레비죤앞에 앉기를 좋아한 시각도 바로 이때였다.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화면에 모셔지면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수상기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으며 길가던 사람들이나 낯선 어린이들이 방안에 들어와도 얼른 자리를 내주며 감격과 흥분을 함께 나누었다.

이런 시간이면 의례 거리에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전차나 버스들도 거의 비어다녔다.

각이한 일터와 가정들에서 온 나라의 마음들이 오직 하나의 화폭을 우러르며 끝없이 설레이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야. 폐 노비첸꼬를 만나주시고 그를 영웅으로, 조조친선의 상징으로 높이 평가하여 주셨을 때 어찌하여 사람들은 것처럼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머금었던가.

친선의 길우에 피어난 꽃을 소중히 여기는 다만 그 심정때문이였겠는가.

한없이 고매한 인품, 뜨거운 사랑과 의리를 지닌 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에 대한 너무도 크나큰 흥분과 감동때문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크레믈리궁전앞을 걸으시면 그 궁전이 어쩐지 갑자기 더 친근해지고 수령님께서 연회장에 들어서시면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이미 벌써 친숙한 벗들인것처럼 마치 다 형제들인것처럼 느껴지는것이였다. 하여 마음들은 수십만리를 날아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러 따르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강가에 서계시면 그 강이 이국의 낯선 강에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그 흐름을 귀에 익힌 대동강인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협동농장에 들어서시면 그 농장이 조선과 밤낮을 달리

하는 지구의 다른 한쪽에 있는 농장이 아니라 주체 농법대로 풍년작황을 마련하는 우리 나라의 어느 낮은 협동농장인듯 그렇게 정겹게 안겨왔다.

그리하여 텔레비존의 방영이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흠이지 못하고 계속 외국의 거리, 외국의 벗들, 어버이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린 귀여운 소녀들 수령님앞에 정자로 사열받은 외국 명예위병대들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으며 국제친선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엮어나갔다.

사람들이 신문에 대한 요구가 이처럼 갑자기 높아진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바로 우리 옆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67살이 나는 할아버지가 신새벽부터 신문을 기다리며 문앞에 나와섰노라고 노여움에 가까운 말을 이른아침에 온 나 어린 녀성통신원에게 했던것이다. 그러자 그 통신원은 공손히 고개숙여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조용히 웃었다. 비록 나무람을 받기는 하나 수령님의 외국방문소식을 다문 한순간이라도 먼저 알고싶어하는 로인의 심정이 가슴에 고맙게 차올랐던것이다.

우리는 녀성통신원의 그 웃음을 높이 사야 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영광이고 긍지이며 행복이 아닌가.

그 벽찬 감격과 감동을 안고 나는 흘러간 이 나라의 역사앞에 조용히 묻고싶었다. 우리 인민이 받아안는 이 행복, 이 기쁨의 시원은 언제부터이며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는나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다. 인민대학습당의 장서실에는 고조선유물들의 탁본으로부터 《조선봉건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실로 수천수만권의 서적이 벽을 이루며 쌓여있다. 그러나 흘러간 역사의 어느 갈피를 뒤져보아도 오늘처럼 우리 민족이 위대해지고 자랑스러웠으며 수천만의 외국인들이 조선의 태양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그처럼 높이 올린적은 없었다.

어제날의 외국! 그것은 이 나라 동포들의 가슴에

새겨진 원한의 땅, 굴욕과 수모로 가득찬 고장의 대명사였다. 청원서를 품에 안고 수만리를 헤쳐간 우리의 밀사가 자기 배에 칼을 박으며 《조선아, 조선아! 언제면 너에게도 남과 같이 영광이 빛날 날이 오겠느냐?》라는 피타는 웨침을 남긴곳도 외국이다. 민족의 원썩을 쏘아놓힌 렬사 안중근이 동포들의 얼굴 한번 실컨 바라보지 못하고 싸늘한 외인의 감방안에 갇혀있다가 적의 교수대로 끌려간곳, 수난에 찬 민족사가 그 시절에 기억한 외국이라는곳들은 바로 이런곳들이었다.

더구나 일제의 피물은 총칼이 이 나라의 명맥을 끊었던 20세기의 그 새벽, 그 참담한 시절의 외국은 상투도 못자른 우리 동포들이 생지옥의 고통을 겪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습지대들이였으며 《징용》과 《보국대》로 피나리보짐도 없이 끌려가 천길막장에 돌처럼 굳어지던 북해도의 탄전이며, 민족의 아들과 동생들이 천추의 원한을 품은채로 쓰러지던 남양군도의 섬들이었다.

고구려무사들의 장점이 번득이던 이 땅, 《공후의 노래》로 세상을 풍미한 재능있는 음악가도 있었고 《8만대장경》의 그 수많은 목판을 아로새긴 줄기찬 근면성도 있는 우리 민족,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도 만들었고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도 물에 띄운 우리 인민의 력사가 왜 이다지도 처참했던가.

그 수난의 시절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사랑하려 아니했던가, 아니면 인민이 조국의 명예와 존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 두려워했던가.

아니었다. 결코 그런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우리 조국의 하늘에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1907년 6월 26일부 《황성신문》에 실린 한토막의 글이 있다.

《우리들은 조선사람이니 조선을 위하여 근심하며 조선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조선을 위해서 노하며 조선을 위해서 기뻐하고 조선을 위하여 노래하며 조선을 위해서 부르짖고 조선을 위해서 춤추며 조선을 위해서 뛰논다. 우리에게 칼이 있나니 오직 조선을 위해서만 칼을 빼들며 우리에게 피가 있나니 오직 조선을 위해서만 피를 흘릴것이며 우리에게는 입술과 혀가 있나니 오직 조선을 위해서만 입을 놀릴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첫울음을 우는 날이 조선에 적

을 두는 해이며 죽어서 관속에 드는 날까지의 3만 6천일이 조선에 보답하는 세월이니 머리우에는 조선의 하늘이며 발밑에는 조선의 땅이다.》

이것은 결코 어느 한 애국계몽인이나 문필가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흘러간 유구한 세월의 구슬픈 몸부림속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이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두고 안간힘을 쓴 피의 웨침이며 애국의 목소리였다.

한데 어찌하여 내 나라는 왜적의 더러운 구두발에 짓밟히며 《아, 통분하다, 통분하다. 우리 2천만겨레가 노예가 되어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비통하다, 비통하다, 동포여! 동포여!》하고 시일야방성대곡을 트르려야 했는가.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인민의 마음을 믿어주고 나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려는 하해같은 만백성의 결심을 옳바로 이끌어줄 령도자, 절세의 위인이 없었기때문이다.

그렇다. 령도자가 없는 민족,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 없는 역사는 한없이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기만 한 것이었으며 세기의 수난과 설움속에 몸부림치는 눈물의 역사였다.

하기에 우리는 그처럼 높이 생각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환호의 꽃바다를 펼치는 이국만리의 도시들을 고운 진달래빛 손가락으로 짚어가는 아기의 밝은 웃음으로부터 70고령에 가까운 늙은이의 그 간절한 마음까지도, 우리 민족의 수령,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를 우러러 감격의 환호성을 올리는 세계 수천만 인민들의 뜨거운 심정을.

이르는곳마다에서 외국의 지도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하고 세계의 수천만 심장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내 나라 국경에서부터 유럽의 중심부까지 환영의 꽃바다를 펼치는것, 이것은 우리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감격의 환호성일 뿐더러 흘러간 이 나라의 수난많은 역사가 세기에 빛나는 우주의 중심에서 소리높이 웨치는 장엄한 대답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그날이 바로 우리 민족의 참된 삶과 행복의 새기원이 열린 날이며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그 시각이 우리 조국의 공지와 존엄이 세계만방에 빛나는

날이었으며 앞으로도 무궁히 내 나라를 빛내이는 걸임을 엄숙히 증명하는 력사의 대답.

그렇다. 이것은 수령이 위대하여 민족이 위대해지고 수령이 위대하여 조국이 위대해졌다는 력사의 선언이다.

바로 이러한 심정들을 지니고 우리 인민은 집 떠난 아버지가 간곳을 그려보는 아이들처럼 어버이수령님께서 가계신곳들을 짚어보았고 가슴속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들로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축원하였다.

그러던 또 하나의 력사의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나긴 외국방문의 길을 끝마치시고 인민의 뜨거운 축원속에 돌아오시던 날 우리모두 뜨겁게 눈시울을 적시며 환영의 꽃바다를 펼친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온 나라의 인민들이 갑자기 아이들처럼 순결한 마음이 되어 오래동한 집을 떠나셨던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한 한가정의 단란한 저녁시간처럼 수령님 두리에 가깝게 다가서며 앞을 다루어 뜨겁게 아뢰고싶었던것은 과연 또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함께 모신 인민의 감격이고 기쁨이었다.

《어버이수령님! 우린 수령님께서 외국방문의 기나긴 나날을 보내시는 때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수령님의 뜻대로 풍년농사도 잘 짓고 80년대 진군의 북소리도 더 힘차게 울렸습니다. 내 나라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아직 력사도 미처 기록하지 못한 우리 민족의 대행운이며 가장 큰 경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의 기쁨, 이것은 세기의 감격이고 세기의 영광이다.

하기에 나는 이렇게 웨치고싶었다.

력사여!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라고. 세기의 감격과 영광을 함께 노래하며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대를 두고 전해가라고.

내 나라는 영원한 태양의 나라임을, 이 땅에서 흘러갈 력사는 영원무궁토록 해와 별 빛나는 태양의 력사임을.

지하평양의 샘물

박창민

수천년 세월 땅속에 숨어살다가
이날을 기다려
네 그리도 반기며 솟느냐
수령님 뵈고싶어
네 서둘러 솟아났느냐
지하철도건설장의 샘물아!

수령님의 신발이 젖는다
샘물아, 잣아들렴!
송구스러운 이내 마음을
그리도 모르며 몰라주며
반갑다고 조잘대는 네가 야속해
조용히 울린 말썽-

-수령님, 신발이 젖습니다
쓸모없는 샘물을
모두 막아버리겠습니다

하건만 우리 수령님
사랑에 겨우시여
정에 겨우시여
샘물결을 떠나실줄 모르는데
가슴속 밑바닥을 뜨겁게 흔들며
샘물과 함께 흘러드는
사랑의 목소리여!

-조선은 샘물이 많아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샘물입니까!
지하철도가 완공되면
인민들이 마실수 있게
여기에 샘터를 만듭시다

순간,
높아가는 감격의 열풍인가
팔-팔...
흐느끼며 솟구치는 샘물!
누구도 귀한줄 몰랐어도
수령님께서만은 아시기에
이렇게 솟았노라 아뢰며
땅속의 모든 샘물
여기로 솟구쳐올라라

아 땅속에도 깊은 땅속에
남몰래 숨어살던 샘물아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
너는 환희에 넘친 지하평양에 살리
아 우리 수령님 눈길 한번 닿으시면
쓸모없던 천길속 물도
사랑의 샘줄기되거니
흘러라
지하평양의 정가론 샘물아!

동방의 태양 김정일

호썸지 에두

축복받은 조선의 빛나는 태양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실 그이를
우리 주체의 대화원에 모시여라

그이 호썸지 에두
문학예술의 대작들과
만년대계의 기념비들을 창조하신분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하였던
20세기의 천재
그이는 인류의 자랑

그이는 김일성주의로
인간이 깨끗한 마음과
고결한 정신을 가지도록 하여주시는

사랑과 평화 아름다움의 화신

인민들속에 계시는
빛나는 향도성 그이는
인간개조에 대한 헌신성의 상징이시여라

김정일

그이는 자주성을 위하여 몸바치시는
정열가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보호자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분
그이는 인류의 은인이시여라

우리 아프리카인민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칭송하나니
그이는
조선의 령도자이실뿐아니라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령도자이시라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김정일 그이의 빛발
온 세계에 더욱 넓게 비치여라

그 빛발
솟아오르는 태양의 뜨거움 품고
모리셔스땅도 밝히나니
모든 사람들 그이를 칭송하여

노래부르네

동방의 하늘에 찬란히도 빛나는
주체의 빛발
김일성주의기치 높이 추켜드신 **김정일**
그 존함 뜨거웁도록 눈부시여라

우리 흙모의 마음 담아
그이께 인사드리나니
우리는 언제나 그이를 우러러
주체의 기발을
하늘높이 휘날려가리라

(필자 모리셔스작가동맹 부위원장)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헌시

아꾸에떼 아꾸에

오! 우리 시대의 향도성
새 력사의 빛나는 창조자
김일성주의위업의 참다운 계승자이신
당신께서는
조국건설위업에 대한 확신을 안으시고
주체사상을 발전시키시였습니다

당신을 어린시절 요람속에서 잠재우던
항일의 포성과 혁명적노래들은
일찌기 당신의 심장속에
인민과 당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심어주었나니
당신께서는 그 인민과 당을 위해 쉬임없이 일
하고계십니다

당신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사상리론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조선의 영원한 자유와 번영을 위한
혁명로선의 계승이며 발전입니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옹호자이시며 리론가이신
당신께서는 당신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인민들의 지혜에서 희망을 찾으시고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풍부화해나가십니다
김정일동지이시여 당신의 특출한
사상리론적공적은 영원합니다

(필자 또고 계획 및 행정개혁부 민사행정관)

백두의 기상

문성락

거창한 변혁과 창조로 불리는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는 거창한 혁명의 기상을 낳는다.

혁명의 기상은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사상, 위대한 정신에서 꽃피날 때 세월과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끝없이 내려친다.

조선혁명의 러명기 주체의 해빛아래 그 뿌리를 내리우고 항일의 혈전만리 불길속에서 내려친 백두의 기상, 그것이 반세기가 넘는 오늘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높은 언덕에 위훈의 역사를 수놓으며 세상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거창한 힘의 분출로 솟구쳐오르고 있다.

온 나라 그 어디든지 가보라, 가는곳 그 어디에서나 듣는것은 흥분없이 들을수 없는 새라 새소식이요, 보이는것은 경탄을 자아내는 변혁과 창조의 모습들 뿐이다.

향도의 자욱 빛나는 철의 기치 김철에 가면 불노를 피어오르는 하늘가에 《모두다 80년대속도 창조에로!》라는 글발을 기발처럼 날리며 뜨거운 쇠물로 당을 받드는 용해공들의 불타는 심장의 열도를 느낄수 있다.

우리 나라 굴지의 유색금속채굴기지 금골에 가면 해발 1,000미터가 넘는 산정우에 한해동안에 제3선 광장을 일떠세운 전례없는 놀라운 사실을 통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석탄을 캐내는 안주탄전의 지하막장에 가도 좋고 대형광차 줄지어 오르내리는 무산의 철산봉에 올라도 좋고 이 나라 북변 압록강에 내리는 때목에 올라봐도 좋다. 찾아가는곳 그 어디서나 사람들의 심장의 고동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오늘의 장엄한 현실에 대한 한결같은 목소리를 들으리라.

어제의 놀라운 기록이 오늘은 낡은것으로 되고 오늘의 기록이 래일엔 평범한 사실로 되는 남포갑문건설장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20리 날바다를 가로질러 휴언제가 아득히 뻗어가고 푸른 물 출렁이던 바다 한복판에 둘러친 가물막이언제안에 수십길 바다밑바닥이 드러나며 대형갑실들이 솟아오르는것을 본 한 외국인인 마치 신비한 동화의 세계라도 온듯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빨간 명장을 단 젊은 군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고 있었다.

《우리는 600만산을 단번에 허물어 바다를 막는언제를 쌓았답니다. 무슨 일이나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게지요. 생각해보십시오. 백두밀림에서 갓 창건

된 항일유격대가 어떻게 일제의 100만대군과 싸워 승리할수 있었겠습니까 류레없이 거창한 이 공사를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지요.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정신만 가진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있습니다.》

백두의 정신, 백두의 기상이 내려치고 80년대의 숨결이 넘쳐나는 전사의 말은 얼마나 깊은 뜻으로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주는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해주행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가느라면 칠탄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 크지 않은 역이 있다.

이 역으로 말하면 전후 혁명의 대고조가 일어나던 1950년대 해주-하성간 철길공사에서 우리의 청년 건설자들이 7만산을 허물어 길을 낸것으로 하여 그때까지 전례없는 그 기적적인 위훈을 길이 전하려고 새로 그곳에 선 역에 지은 이름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자력갱생의 마치로 두들겨 만든 자동차며 트랙트르들이 발동소리 높이 달려나오고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의 준공식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온 나라가 흥분에 휩싸이던 그때 7만산을 허물어낸 사실도 우리 인민이 자랑할만한 혁신이였다.

하지만 오늘의 600만산과 그날의 7만산, 우리 시대 보폭의 크기를 보여주는 이 수자를 두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그것은 백배로 강해지고 자라나는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확신이고 그 근처에 놓여있는 힘의 원천에 대한 믿음과 자부이다.

뿌리깊은 샘물줄기에서 시작된 강물은 억년가도 마를줄 모르고 흘러내릴수록 대하의 흐름을 이루며 비옥한 토양에 뿌리내린 소나무는 언제나 푸른기상을 펼친다.

온 나라에 내려치는 백두의 기상, 그것은 80년대의 위대한 격동기에 만발한 주체의 혁명정신, 항일의 영웅적기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항일빨찌산들이 백두밀림에서 싸우던 그런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항일의 20성상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백두의 눈보라 혈전수십만리를 헤쳐온 항일혁명선렬들

의 생애는 사람이 한생을 어떻게 사는것이 가장 보람있고 멋있게 사는것이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것인가를 생동한 거울로 보여주었다.

하기에 책 한권 읽어도 백두밀림의 투사들을 그린 혁명소설을 읽는것을 누구나 즐겨하고 노래 한곡 불러도 백두의 노래를 부르는것을 더없이 좋아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관습으로 되고있다.

여기에 우리 결을 떠나간 룡성기계공장의 한 선반공처녀가 쓴 시구절이 있다.

아, 내 한생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삶의 순간마다
언제나 그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리
... ..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마음을 얹어놓고 삶의 순간 순간을 빛내여 가려는것은 《6월4일문학상》 수상자인 주옥양동무만이 아닌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시대의 거세찬 풍조로 되고있다.

이 땅의 천만산악이 백두산에서 뻗어내리고 이 강산에 밝아오는 새 아침이 백두의 노을에서 피어나듯이 온 나라에 차고넘치는 항일의 그 정신, 그 기풍,

백두산기슭의 천고의 수림속에서 메아리치던 승전고의 북소리가 오늘은 경제선동의 북소리로 강산을 울리고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던 그날의 야장간의 마치소리가 6천론, 1만톤 프레스의 음향으로 비껴가는 벅찬 현실!

폭풍도, 퇴성벽력도 두려움없이 무에서 유를 낳는 힘. 세월이 갈수록 혈기왕성해 가는 우리 인민의 이약동하는 힘에 대하여 한 외국인은 인상기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조선에 체류하는 며칠사이에 가장 강렬하게 느낀것은 지금 조선에 새로운 사상, 새로운 공기, 새로운 분위기가 차넘치고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이 공기, 조선의 이 기상이 어데서 생겨난것인가.

나는 그것이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다준 조선의 공기, 조선의 기백, 조선의 기상이라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온몸에 넘쳐나는 삶의 기백과 활기는 활력이 큰 심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듯이 온 나라에 나래치는 백두의 기상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향도성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백두산의 푸른 기상 안으시고 항일의 폭풍 휘몰아치는 준엄한 년대에 유년기의 발자욱을 새기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주체의 위업을 이으시여 조선을 온 누리에 빛내여

가실 위대한 맹세를 해솟는 룡남산마루에 남기시고 향도의 해발로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신 영광에 찬 나날,

백두에서 개척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꽃피우실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맞고 보내신 심혈의 낮과 밤은 그 얼마이며 걷고 걸으시는 실무지도의 길은 몇천 몇만리인가.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시는 충성의 열정 그리도 뜨거웁고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정 꿈이 없으시여 밤낮없이 쉬임없이 일하시면서도 늘 시간이 모자라는것을 그토록 안타까와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조선의 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시는 당중앙의 불빛으로 밝고 조선의 새벽은 지도자동지의 지칠줄 모르시고 지으시는 미소에서 노을로 피어나다.

무성한 숲을 이룬 그 하나하나의 거목을 두고 말할 때 우리는 수천수만의 나무들이 뿌리박은 토양과 은정깊은 해빛 그리고 가꾸어가는 손길을 생각하게 된다.

주체의 토양에 억만년 마를줄 모르는 천지의 맑은 물을 주시고 복을 돌고어주시는 분도, 따뜻한 봄날의 해빛을 주시고 어머니의 젖줄기와 같은 주체의 자양분을 주신 분도, 따뜻한 손길로 정성들여 가꾸시는분도 다름아닌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다. 주체의 피 왕성한 가슴마다에 순간도 멈춤없이 백두의 숨결을 채워주는 위대한 심장.

향도의 태양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여 우리의 가슴마다에는 순간도 멈춤없이 고동치는 주체의 피가 끓고 우리 모두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혈기왕성한 기력으로 청춘기를 꽃피우는 삶을 누리고있다.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여 우리에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존엄이 있고 그 어떤 강적과도 맞설수 있는 일당백의 위풍이 있으며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신념의 기둥이 있다.

이 세상에는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나라도 있고 고대의 문화와 풍부한 자원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는 나라도 있다.

우리도 그런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할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함께 모신 영광을 이 세상 비길데 없는 자랑으로, 가장 큰 행복으로 노래한다.

백두산의 기상과 슬기를 한몸에 안으시고 공산주의 향도성으로 탄생하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항일대전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의 젊으신 모습이런듯 천만대오를 이끄시여 우리 당 진두에 서계시는 빛나는 그 모습.

수천수만 전사들을 키우셔도 김혁, 차광수처럼 열혈투사들로 키우실 그 결심, 민족의 태양을 받들어

올린 20년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진정을 온 나라에 가득 넘쳐나게 꽃피우실 그 높은 뜻이 이땅에 신념의 구호로 높이 솟아올랐다.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

만년대계의 터전우에 무쇠기둥 수풀처럼 솟아오르는 순천비날론공작건설장과 발파소리 하늘땅 울리는 안주의 지심깊은 막장에도, 강냉이바다 푸르려 설레이는 농장벌과 조국보위초소에도 신념으로 새겨세운 이 글발,

80년대의 김혁, 차광수!

20년대, 조선혁명의 려명기, 백두의 하늘에 태양의 위성으로 빛나던 그 이름, 향도성 받들어 80년대의 진군길에 별무리로 반짝인다.

주체의 첫빛발 없고 만년설우에 꽃을 피우며 향도의 태양을 받들어올린 백두산의 숭엄한 그 높이우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 모시려는 불타는 지향, 한순간을 살아도 백두의 하늘에 빛나는 위성들처럼 살고 장군봉 우리러 잣을줄 모르는 천고의 밀림의 파도처럼 끝없이 설레이며 눈속에서도 피어 웃는 만병초처럼 향기풍기고싶은 마음들이 시대의 격류로 넘쳐나는 80년대,

영광의 이 년대 온 나라에 꽃피어나는 백두의 기상, 그것은 당과 수령께 바치는 우리 인민의 열화와 같이 뜨거운 충성심의 발현이다.

북부철길공사장의 《김혁돌격대》에는 아름다운 미담들을 적어놓은 한권의 책이 있다.

부피 두터운 그 책에는 이런 사연도 적혀져있다.

어느날 공사장에서 그리 멀지 않는곳에 굴착기가 실려왔었다. 그 굴착기를 몰고 현장으로 가던 돌격대원들은 멈추어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의 앞에 험한 령이 막아섰던것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분해하여 가자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그냥 가자면 위험하고...

바로 이때 한 대원이 분해함이 없이 굴착기를 몰고 그 험한 령을 넘을것을 제기해나섰다. 이럴 때 엄격한 지휘관도 그의 제기를 막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 대원은 운전대에 올랐고 다른 대원들은 굴착기의 앞머리에 비끄러맨 바줄을 잡고 지휘관은 굴착기의 한발자국뒤에서 구령을 주며 끌고 떠밀면서 한치한치 톱아올랐다.

굴착기의 운행규정에는 이런 령을 넘을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고 또 있을수 없는 일이였으며 그들 역시 자칫하면 신변에 어떤 위험이 오리라는것도 모른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한시바삐 새 철길공사를 끝내고 위대한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려는 그 드높은 자각이 그런 용단을 내리게 했고 그렇게 영웅적인 위훈을 세우게 했던것이다.

생기 넘치고 활기찬 사람에게 왕성하고 건전한 피

줄이 있고 그 피줄따라 맑은 피가 언제나 넘쳐 흐르듯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맥맥히 흐르는 주체의 혈통, 그것은 백두산에 시원을 둔 충성심이다.

위대한 한별동지를 믿고 따르며 목숨바쳐 옹호보위한 청년공산주의자 김혁동지의 그 정신이 심장속에 살아있었기에 새해의 한 어로공이 불의에 맞다른 원썬들의 포위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부터 먼저 안전한곳에 모시고 물속에 뛰어들수 있었으며 일편단심 사령관동지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는것을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긴 항일혁명선렬들의 그 리념이 신념으로 간직되었기에 외진섬에서도 수십년을 하루같이 등대지기로 살아갈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끝까지 따라갈 그 깨끗한 마음들이 오늘은 변함없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함께 받들어모시고 궁지높은 우리 시대를 위훈으로 빛내가고있다.

혁명의 격동적인 전환기를 반영한 피가 뛰는 시대의 송가들이 강산을 울리고 대진군으로 부르는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천만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80년대.

참말로 이 년대처럼 우리 인민들이 자기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한 드높은 궁지와 신심으로 가슴 설레인적은 없었으며 이 년대처럼 혁명의 맑은 전도와 미래에 대한 락관으로 가슴부풀어오른 때는 없었다.

백두의 기상,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궁지와 자부,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만난을 뚫고 헤쳐 그 어떤 원썬도 단대에 족칠 만만한 투지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들의 활기찬 모습에 대한 상징이다.

류레없이 준엄한 년대에 가장 위대한 생명력을 만천하에 펼친 백두의 기상, 그것을 떠나서 우리 어찌 조국광복을 안아온 40년대의 환희를 생각할수 있으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어찌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때려눕힌 50년대의 위훈에 대하여 떳떳이 자랑할수 있으며 전후 빈터우에서 오늘과 같이 부강한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운 거창한 창조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할수 있겠는가.

백두의 기상, 그것은 주체의 혈통에서 피어난 우리 혁명의 무한대한 샘의 분출이며 끊임없이 전진하고 변혁하는 우리 인민의 역센 기질이며 장엄한 80년대를 펼쳐가는 당의 전사들의 혁명적기백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끄심따라 혁명의 한길, 주체의 한길로 나가는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자의 기상, 백두의 기상을 온 누리에 펼치리라!

사랑의 열매

리의석

싱그러운 이른아침
정원의 남새밭으로
어머님께서 나오셔서
수수한 옷차림에 호미를 드시고-

기울이신 어머니의 그 정성이런가
간밤에도 자양분 흠뻑이도 빨고
단즙을 기껏 올린 일년감
즐기차게 뻗어오른 넝쿨에
푸르싱싱 살오른 오이들...

기쁨의 미소어리는 어머니의 그윽한 눈가
부드러운 그이의 손길
오이넉출을 정히 올리시고
일년감가지를 쏘에 매주시여라

드바뻬 이 가지 저 가지에 옮겨지시는
이슬에 흠뻑 젖은 어머니의 손길
그 손길 한번 가닿으면
기쁨에 가지는 푸른 잎새 흔들고
그 손길 다정히 쓸어주시면
수집은듯 열매는 얼굴 붉혀라

바로 그 손길이였다
어제는 땅의 주인된 농민들과 함께

더없는 기쁨을 밭머리에서 나누시며
손수 다래끼를 어깨에 메시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가시던

아, 항일전의 그날로부터
장군님 받드시는 충성의 그 길에
그 언제 하루 한순간인들
휴식의 한때를 보내신적 있었던가

아버이수령님
정원의 이 남새밭에서
주렁진 사랑의 이 열매 향기속에
산책의 한때를 즐기시라고...

이른아침이면
그처럼 성실한 로동으로
정성껏 씨를 뿌려 행복을 가꾸시고
열매를 익혀 가시는 김정숙어머님
어머님의 높으신 뜻 알아서인가
정원의 어디선가 미풍은 불어오고
방금 복을 준 구수한 흙냄새 풍기는데
비쳐오는 밝은 아침 해빛에
첼이르게 무르익은 사랑의 열매들
유난히도 노을처럼 고옹게 물들었어라

회령의 들길에 벼이삭이 설레일 때

진병선

회령의 들길에
풍년든 저 이삭
그 뉘를 기다려
저리도 설레일가

돌기돌기
흐르는 세월따라
드림없이 번짐없이
찾아오는 이 가을
해마다 더 깊이 머리숙이니
그 무슨 사연 안았는가

이 길이란다
어리신 김정숙어머님
호곡하는 광풍에
몽당치마 날리시며
정든 고향 떠나신 그 들길이

작은 꾸레미속에
감자 몇알 넣어드리며
온 마을이 어머님을
눈물로 하직한 그 들길이

야속해
그날이 야속해
별이여 너도 긴세월
메마른 흙밭우에
갈대숲만 자래우며
한점 바람에도 흐느껴 울더니

떠나신 어머님
해방연에 독립연에
장군님모시고 조국개선했하신 그날부터
풍년열매 주렁지우지 않았던가

송기를 벗기시며
풀뿌리 캐시며
오산덕 어느 숲속
어느 바위벼랑에
작은 짚신자욱
남기지 않은곳 없으신 어머님
모질어
가난이 모질어 떠나셨기에

해마다 회령의 이 들길에
풍년주단 펼쳐놓고
손꼽아 기다렸건만
나라의 주인된 인민에게
꽃피는 행복도 함께 주시려고
하실일 하 많으시여
끝내 오시지 못하신 어머님

아 풍년열매 주렁진 산천
해빛 별빛쏟아지는 이 좋은 산천
우리에게만 주시고 가셨으니
내 못잊어 바라보는 저 들길-

별이여
이삭이여
너도 내 마음 안고
그렇듯 몸부림쳐 설레며
어머님을 기다리는것 아닌가

아, 세월이 가고
이 세상 모든것 변한다 해도
어버님그리는 마음만은 변함없이
회령의 들길은
해방의 그날에도 누런 벌
오늘도 누런 벌

청진땅의 숨결 외 1편

차영도

영광의 자옥 남기신
그 자옥우에
천만의 발걸음이
대하를 이룬 땅!

나뭇기는 기발들이
숲처럼 길을 메우고
어디서나 힘찬 글발들이
폭풍을 부른다

톡톡 치는 가슴벽엔 들려오나니
-5월의 영광을 떨치자!
너 나의 심장이
웨치는 소리

친애하는 그이를 모셨던
그날의 영광
은혜로운 해발이 따사롭던
그날의 감격

아, 김철의 용광로는 그날을 못잊어
이 땅에 불을 쏟아쏟으며
또 하루 새날의 하늘가에
격정의 불노을을 휘뿌린다

파도치는 바다기슭에선
또하나의 산악같은 짐배가
천만사람들의 환호속에
대양을 향해 몸을 던진다

어딜 가나
그이 지펴주신 불,
어딜 보나
그이께서 안겨주신 환희

-5월의 영광을 떨치자!
무섭게 달아오른 압연기의 웨침에
저 멀리 무산땅의 철산봉도
발파소리 높이 화답하는 소리

오, 정녕
그이께서 여기
남기신 영광의 그 자옥우에
이렇듯 크나큰 대하가 사품치는가
그이 다녀가신 환희에 찬 청진땅은
감격의 파도 높은 해쫓는 바다,
향도의 태양을 받들어
격파는 솟구친다!

장 미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지금은 내 다시 보고 또 보는 장미꽃
우리 수령님 외국방문 머나먼 길에
자옥자옥 반겨피던 금장미!

조용히 들여다보면
꽃잎이 아니예요, 빨간 입술이예요
날 보고 무엇인가
자꾸만 속삭이는...

무심결에 정이 끌려
- 《장미!》
내 다정한 동무를 찾듯 부르니
정말로 기다린듯 속살거려요

- 《곱지요?
수령님께서 보아주신 꽃잎,
수령님께서 받아주신 향기,
그래서 온세상 이름높은
나는 장미예요! 》

조국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정영호

파도 높은 날바다 향해
산악을 떠신고 달려나가는
대형화물자동차들
적재함마다에 소리치는 글발
-조국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그 어찌 조향륜을 틀어잡은
전사들의 마음만이라
우뢰치는 충전기를 안아 휘두르며
갑실을 억척스레 다져가는 그 마음들이고
길길이 물기둥 솟구치며 환성을 올리는
투석선들의 그 마음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여기 휴언제 끝단에까지 오시여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그 얼마나 열정에 넘치시여
걸고 또 걸으시였던가
날바다우에 갑문을 세워
주체조국의 본때를 보이자고...

그날의 그 높은 뜻을 실어

끝없이 뻗어나가는
이 언제길은
위대한 향도의 빛발을
온 세상에 빛내여가는 길이거니

교대를 마치고
자리에 들어도
굽이쳐드는 하나의 생각
자리를 차고 달려나가
부서지는 별빛아래
강반을 거닐어도
밀물쳐드는 하나의 생각

하늘가의 고층 아파트마냥
저항한 함형부재를
두둥실 파도에 띄워
날바다를 짓눌러 가로막으면서도
가슴속에 차오르는 생각
파도를 맞받아
하나하나 장식을 입혀가면서도
뜨거워오르는 누를길 없는 생각
아! 조국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기쁨

김홍권

조국에 묻히자고
조국땅에 뼈라도 묻자고
로인은 바다건너 돌아왔더라

그립던 조국-
조국에 쓸모있어 돌아왔다면
얼마나 기뻐오라

젊어라도 돌아와
철갑도 세우고
저 붉은 쇠물 휘저었다면

그렇게 돌아와
푸른 강에 떼목을 내리우며
류창한 노래곡조 넘기었다면

그랬다면
늡음이 초라하지 않았으리
백발이 구슬프지 않았으리

이국에 휘뿌린
눈물보다
오히려 가슴아픈 로인의 마음...

하지만 반겨 맞아주는
덩실한 집, 활짝 열린 창문
수령님 해빛으로 젊음을 주는 조국

로인은 미처 몰랐더라
기쁨이 아직 앞에 있는줄
삶이 아직 앞에 있는줄

공산주의혁명가의 위대한 품모에 대한 진실한 형상

-단편소설집 《불멸의 영상》에 대하여-

명일식

단편소설집 《불멸의 영상》은 지금 광범한 독자들의 사랑속에 널리 읽히고있다.

단편소설집 《불멸의 영상》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위대한 품모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 단편소설집에는 《시인의 소원》, 《금반지》, 《이른새벽》, 《첫 수술》, 《삶의 궤도》 등 10여편의 단편소설들이 모여져있다.

단편소설들은 다양한 주제와 각이한 형상수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단편소설집 《불멸의 영상》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생동한 예술적화폭속에 진실하게 형상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충실성이다.

충실성은 공산주의혁명투사의 숭고한 귀감이신 김정숙동지의 높은 사상정신적품모에서 근본핵으로 되고있다.

《불멸의 영상》에 수록된 단편소설들은 그 종자와 주제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다같이 충성의 화신이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그리면서 그 숭고한 사상정신적 핵을 직선적인 설명이나 개념으로써가 아니라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그것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의 창작과정을 이야기하고있는 단편소설 《시인의 소원》에서 볼수 있다.

단편소설의 시대적배경은 해방직후이다.

이 시기 우리 인민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을 영원토록 노래하려는 절절한 심정을 한결같이 품고있었다.

주인공인 시인도 바로 그런 뜨거운 심정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위대한 장군님을 노래하려고 창작적인

사색과 탐구의 밤을 지새우고있었다.

하지만 시인은 머칠이 지나도록 시상을 잡지 못하고 단 한줄도 쓰지 못하였다.

이런 시인이 어떻게 되여 번개처럼 번뜩이는 시상을 잡고 그토록 온 세상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빛나게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였는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를 완성하게 한 그 정신적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것을 밝히는 바로 여기에 이 단편소설이 제기하고있는 기본문제점이 있다.

단편소설은 그 특성으로 하여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전 과정을 다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약시켜주거나 인간 전모를 보여줄수 있는 성격발전의 한 단면, 한 측면을 포착하여 그린다.

단편소설 《시인의 소원》에서 시인의 뇌리에 번개처럼 번뜩이는 시상을 안겨준 그 계기점이 바로 그러한 전형적실례로 된다.

시인에게 시상을 안겨준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찬란한 해발과도 같은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충성심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머칠째 밤을 지새우면서도 시상을 잡지 못하고 모대기며 단 한줄도 쓰지 못한 시인의 심중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고 친히 그의 숙소까지 찾아가시여 강도 일체를 쳐부신 장군님의 위대성과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 그리고 빈 통줄임통으로 국수를 누르고 참나물로 김치를 담고어 장군님께 드리던 이야기도 밤깊도록 들려주시고 혁명가요도 불러주신다.

이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김정숙동지를 시인은 항일유격대의 평범한 작식대원인줄로만 알고 스스로럼없이 대한다.

그러던 시인이 만세의 환호성 높이 울리던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새 조국 건설의 첫삽을 뜨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그처럼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지으시는분이 바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이시라는것을 안 순간 커다란 충격과 함께 번개처럼 번뜩이는 시상을 받아안는다.

김정숙동지의 두볼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속에서 시인은 민족의 태양을 높이 우러러모시게 된 우리 인민의 무한한 감격과 기쁨, 환희와 열정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되였으며 크나큰 흥분속에서 가슴불태우며 한껏 심장을 터쳐놓게 되는것이다.

참으로 한생을 수령님께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충성심과 혁명정신은 그대로 시인의 심장파
뇌리에 옮겨져 피가 되고 시상이 되었던 것이다.

단편소설은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은 정서속에서 진실하게 보
여줌으로써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그 어느 개별적시인에 의하여 구상되고 창
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김정숙동지에 의하여 종자가
심어지고 형상이 꽃피워져 완성되었다는 것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

단편소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깃든 김정숙
동지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뜨거운 열정, 고매한 품
모를 소설적인 화폭속에 감명깊게 보여준 작품으로
서 높은 인식교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독자들은 혁명송가를 부를 때마다 김정숙
동지의 그 뜨거운 눈물을 가슴뜨겁게 생각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더욱 뜨겁게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단편소설 《시인의 소원》에서는 이밖에도 인상
적인 세부형상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
동지의 충실성을 보다 깊이있게 부각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예술적세부로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저자
보려 홀몸으로 장마당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영접
들어총을 한 보초병을 보고 위병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자 들어오는데 보초병동무가 또 〈앞에 총〉
경례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는가요?... 그래
서는 안됩니다. 동무들이나 나나 다같은 장군님의
친위대원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앞으로 절대
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새겨들으면 들을수록 만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김정숙
동지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장군님의 친위
전사로 여기시고 계실뿐 아니라 자그마한 일에 대하
서도 대원들에게 올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원칙적으
로 이끌어주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의 세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세부
는 김정숙동지께서 얼마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신념
화된 충성심으로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였는가
하는 것을 깊이있게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구감이신 김정숙
동지의 충실성은 또한 단편소설 《금반지》에서도
볼 수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압록강 연안에서 승리한 대전
공작전의 총화에서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장군님으
로부터 금반지를 받으시었다.

그날밤 김정숙동지께서는 밤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시며 금반지를 소중히 품에 꼭 껴안고 끼여도
보시고 우등불빛에 이모저모 비쳐 보기도 하시며 철

구동무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었
다.

《금과 은이 귀중한 건 언제나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까닭이에요. 장군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금반지, 은
비너를 주신 것은 혁명을 따르는 마음도, 전우들과
동지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언제나 변하지 말라고 주
신 게 아니겠어요. 장군님을 받들어 싸우는 마음에
변함만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죽
음도 절대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고 빛을 뿌리는 금처럼 장군님을
받드는 마음도 변하지 말자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속
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처럼 김정숙동지께서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신
념화된 충성심을 지니고 계시기에 생의 마지막순간
까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충실성의 빛나는 구감으로 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심장속깊이에 지니신 티없이 맑
고 깨끗한 신념화된 충성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 순
금의 빛과 같이 빛나며 세월이 멀리 흘러서도 사람
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면서 우리모두를 충성의 한
길로 힘있게 이끌어주고 있다.

이처럼 이 하나의 세부는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깊이있게 보여주는 인
상적인 세부로서 작품의 종자해명에 잘 복종되고 있
다.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생활세부들로서는 새 조국 건설시기를 형상한 단편
소설들에서도 보게 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결음을 옮겨도 그 어디에가
서도 오직 한마음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만 살고
그 뜻을 충성으로 높이 받드는 실천적모범으로써 사
람들을 이끌어주고 계신다.

단편소설 《삶의 궤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정숙동지께서는 인력거를 타시라고 간절히 청을
드리는 공청일군을 조용히 타이르시며 이렇게 말씀
하신다.

《...아픈 말 같지만 동문 아직 장군님 뜻을 다 모
르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분같이 지
난날 억눌리고 천대받던 사람들을 세상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려구 15성상을 백두산에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혁명선렬들이 장군님의 뜻을 받들구 바로 그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세상을, 사람이 사람을 태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진 세상을 들부시기 위해 만
리광야에 피를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찾은 조
국인데 이 해방된 조국땅에서 나더러 사람이 끄는
인력거를 타라니 이런 기막히는 일이 어디 또 있겠
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며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셨으나 거리에 나서면 아직 혈빛은 아이들이 많고 사람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인력거들이 있어 그것을 보는것만도 가슴아픈데 어찌 자신께서 그 인력거를 타겠는가 하고 하시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의 이처럼 숭고한 품모는 단편소설 《기적소리》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3년전에 지주 집으로 끌려갔던 소녀를 집마을에까지 데려다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을사람들에게 이제는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된 새세상이 왔다고 하시면서 모두다 새 생활창조를 위하여 **김일성**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건국로선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펼쳐나서자고 호소하시는것이였다.

단편소설들은 이처럼 순간의 드림도 없이 한생을 하루와 같이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끝없이 충성 다하여오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단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진실하고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독자들이 단편소설집 《불멸의 영상》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것은 다음으로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지니고계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공산주의적 품모이다.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은 공산주의혁명가들만이 지닐수 있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최상의 높이에서 숭고하게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인간,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전형이시다.

이 작품집의 단편소설들에서 보여는 인간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사랑은 순수 애정에 머무르고있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한품속에서 우리모두 혁명가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는 가장 참답고 아름다운 숭고한 사랑인것이다.

그 사랑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속속들이 비쳐드는 해빛과 같이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며 그지없이 따사로운 진정한 인간애이다.

단편소설에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매한 인간적사랑을 여러가지 다양한 수법으로 참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금반지》에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장철구동무에게 돌려주신 눈물 없이는 들을수 없는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감동깊은 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장철구동무는 오도양차밀림속에서 열병으로 팔까지 툭툭 붓고 고열이 떨어지지 않는 심한 병세로 하여 죽음의 갈림길에서 신음하고있었다.

긴병에 효자없다는 말은 있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벌써 한해가 가까운 기나긴 나날을 하루와 같이 지성을 다해 철구동무의 병시중을 드시였다.

눈보라만이 울부짖는 기나긴 밀림의 겨울날 환자

에게 먹일 한끼의 음식과 약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결사의 투쟁을 벌려야 하는 그속에서 중태에 빠진 환자를 과연 구해낼수 있겠는가?

이것은 실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철구동무는 그 악몽같은 병마를 이겨내었으며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 어떤 힘, 그 어떤 기적이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였는가!

친부모의 사랑, 친혈육의 사랑보다도 더 뜨겁고 살뜰한 김정숙동지의 동지적사랑이 바로 그 혹한의 밀림속, 병원 아닌 초막에서 약도 없이, 의사도 없이, 의식마저 잃고 사경에서 헤매던 철구동무를 소생시킨것이다.

그것은 진정 엄동설한에도 꽃을 피울수 있게 하는 사랑,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가장 고귀한 혁명적동지애인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철구동무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늘 머리도 깨끗이 단장해주시고 터진 손에는 소기름을 얻어다 몰래 발라주시기도 하시였다.

세상에 태어나 언제 한번 친부모형제의 정이란 모르고 살아온 철구동무는 그때마다 살뜰한 혈육의 정을 남달리 뜨겁게 받아안았다.

철구동무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사랑은 그의 병이 전염병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뜨겁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낮에는 침엽수림속을 헤매며 손톱끝에 피가 터지도록 송진을 긁어 고약을 만들어 툭툭 부은 팔에 발라주시였고 순간의 실수로도 생명을 잃을수 있는 삼엄한 적후의 마을들을 나들며 약을 지으시여 하루 세번 따끈하게 달여먹이시였다.

그리고는 밤에는 밤대로 한밤을 꼬박 환자의 머리맡에서 새우시며 찬물찜질을 해주시고 사나운비바람으로 초막지붕이 훌렁 벗겨졌을 때에는 철구동무를 가슴에 안아 한몸으로 바람을 막아주시였다.

하루 스물네시간을 변변히 잡숫지도 쉬지도 못하고 자신의 심혈로 환자를 소생시켜주시려는 김정숙동지의 이 뜨거운 사랑앞에 마침내 무서운 병마도 죽음도 머리 숙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보통 인정세계를 초월한 공산주의혁명가, 위대한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인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철구동무에게 기울이신 사랑은 비단 그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건져주신 사랑이 아니라 그를 한품에 안아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로 키워주신 가장 고귀한 동지적사랑이었다.

그것은 《민생단》의 혐의를 받았던 철구동무에 대한 믿음에서 더욱 가슴뜨겁게 그려졌다.

철구동무는 김정숙동지에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믿고 사랑해주는가고 물었다.

그 물음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어머니, 왜 못믿어요? 어머니가 정말 〈민생단〉이라면 무엇때문에 손이 이렇게 되도록 풀뿌리를 캐여 자시면서 산에 남아있었겠어요. 산 하나넘어가면 적통치구역이 있는데. 어머니, 속담에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을 모른다고 하지만 왜 사람이 사람의 속을 모르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마음만 주고 지내보면 얼마든지 사람의 진속을 알수 있는거예요.》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에 있고 사랑이면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소설은 높은 형상을 통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참으로 우리모두를 하나하나 손잡아 장군님의 전사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주신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 시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금반지》에서는 이처럼 한없이 넓고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우리모두를 안아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로, 참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워주신 김정숙동지의 한없는 사랑을 김정숙동지와 장철구동지사이에 맺어져있는 이미 알려진 인간관계속에서 보여주고있다.

해방직후의 생활들을 생동하게 담은 단편소설들인 《첫 수술》, 《이른새벽》, 《삶의 궤도》 등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인간관계속에서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시인의 소원》에서 시인과 《첫 수술》에서 박한무, 《이른새벽》에서 최길녀, 《삶의 궤도》에서 강덕보 등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형상된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가장 고귀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빛내어나갈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한사람 묶어세우시는 높은 정치적인심이었다.

여기에는 인간의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고있다.

단편소설 《첫 수술》은 해방직후 좌경바람에 물리워 희망없이 타락된 생활을 하는 의사 박한무의 개조과정을 통하여 김정숙어머니의 넓은 인간적 도량과 어머니다운 사랑, 높은 정치적인심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편협한 일부 일군들의 좌경바람에 의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있었다.

단편소설 《첫 수술》에 나오는 박한무의사도 좌경바람때문에 친일분자의 루명을 쓰고 타락된 생활

을 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친일파로 몰려 돌벼락까지 맞고 완전히 타락되어 고민하고있는 박한무의 집으로 친히 찾아가시여 그와 함께 깨어진 창문을 손질하여주시면서 이렇게 고무적인 말씀을 하여주신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지난 시월 열나흘날 개선연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해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하겠다고 호소하시였습니다. 기나긴 세월 조선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얼마나 갈망해왔습니까. 이제는 우리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피로써 찾은 조국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심장을 바쳐야 합니다. 조국은 선생님의 의술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이처럼 믿어주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안겨주시는 김정숙동지의 크나큰 사랑을 박한무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았다.

하여 해방전에는 나라없는 설움에 쌓이고 해방직 후에는 일제시기 병원에 있었다는 죄로 친일파로 몰리워 쌓이고쌓였던 번민의 얼음장이 한순간에 박한무의 가슴속에서 녹아없어졌던것이다.

그날부터 박한무는 의사로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로 새 조국 건설에 보람찬 삶을 바쳐갈수 있었다.

작품은 이 성격발전과정을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 작품에서 박한무가 아직 자기 삶을 소생시켜주신 그 은인이 누구이시라는것을 모르고있다가 김정숙동지께서 평양으로 떠나가신 다음에야 친필로 남기신 편지를 통하여 알게 되는데서 잘 찾아볼수 있다.

이 대목은 충분한 생활적론리를 가지고 설정된것으로 하여 깊은 감동을 주며 독자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는다.

단편소설 《첫 수술》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박한무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지니고계시는 김정숙동지의 높은 품모에 심장이 뒤흔치는것 같은 큰 충격을 가지게 하면서 작품의 종자를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꽃피우고있다.

단편소설 《이른새벽》과 《삶의 궤도》에서는 이와는 달리 인간이하의 모진 천대와 가혹한 생활속에서 지지리 놀리워 살아오던 사람들을 해방후 사랑의 품에 안아 자주적인 인간으로 새 조국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인간애와 공산주의적덕성을 다양한 인간의 운명과 개성적인 성격속에서 매우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이른새벽》이 해방직후 두부장사로 겨우 살아오던 최길녀를 육친의 정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어 건국사업에 떨쳐나서게 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면 단편소설 《삶의 궤도》에서는 한평생을 인력거꾼으로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강덕보를 위하여 불편하신 몸이지만 해당기관에까지 직접 찾아가시여 그를 학교로 보내여 공화국의 어엿한 기관사로, 장군님의 전사로 키워주시는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뜨거운 인간애를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불멸의 영상》에 수록된 단편소설들은 서로 다른 각이한 인간성격들과의 관계속에서 다양한 수법과 구성으로 형상하고있지만 한결같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진형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불멸의 영상》의 단편소설들은 또한 김정숙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무한히 소박하고 겸허하며 부드럽고 인자하신 품모에 대해서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김정숙동지의 소박하고 인자하신 품모에 철물이 자석에 끌리듯이 스스로 따르게 된다.

살뜰하고 부드러운 소박한 품모에 사람들은 스스로 깊이 감동되며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가슴 뜨겁게 느끼며 따라배우게 되는것이다.

단편소설 《시인의 소원》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정숙동지께서는 저자보러 다니는 보통 가정의 젊은 주부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으신 수수한 차림으로 소랭이를 이고 장마당으로 걸어가신다.

이 얼마나 평범하고 소박하며 겸허한 모습이신가!

우리는 이 하나의 생활세부속에서도 평범하고 소박하며 부드럽고 인자하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품모의 전모를 심장깊이 받아안게 된다.

항일의 15성상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천을 골라 옷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하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절절한 인민의 소원마저 받으시지 않으시고 보통사람들과 똑같이 너무도 소박한 옷을 입으시고 저자보러 장마당까지 걸어가시는것이다.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신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김정숙동지의 이러한 품모는 또한 자신께서 극진히 도와 시인에게 시상까지 잡아주시여 시를 완성하게 하고도 세상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를 처음으로 내놓는 그 격동적인 순간에는 시연회에 참가하여 모두

간절하게 원하는 앞자리마저 사양하고 맨뒤자리에 스스로없이 앉아계시는 모습에서도 볼수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갔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삽을 쥐고 함께 일하시는것이다.

이때 김정숙동지를 미처 알아보지 못한 가두녀인들이 걸싸게 삽질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삽질하는걸 보니 인심이 후하고 손이 크겠다는 룡말까지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룡말하는 그들을 나무람하시지 않으시고 밝은 미소로 대답하여주시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의 이러한 품모는 단편소설 《첫 수술》에서도 볼수 있다.

단편소설에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친일파로 몰리워 고민하고있던 박한무를 재생의 길을 걷게 도와주고 그가 첫 수술을 할 때엔 수술장에서 의사의 요구대로 약수와 가제, 불임피 등을 날라 섬기며 간호원역 할까지 하시는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며 부드럽고 인자하신 김정숙동지께서만이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품모인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친히 수술장에 들어가시여 환자들의 치료를 도와주시였을뿐아니라 원래 병원으로 쓰고있었던 보안서의 화려한 건물을 다시 인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으로 쓰도록 바로잡아주시였다.

그런 례는 령길에서 돌부리에 걸쳐여 넘어져 쿵을 쏟은 최길녀를 도와 《힘들게 구한 콩알은데 어서 마저 죽자》고 하시며 땅에 널린 콩짜개 하나에 이르기까지 죄다 주어주시는 김정숙동지의 품모를 생동하게 형상한 단편소설 《이른새벽》에서도 볼수 있다.

또한 김정숙동지께서 건국사업에 친히 나가시였을 때 어서 들어가달라고 권하는 리위원장 로철목에게 하시는 말씀에서도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신 위대한 품모에 대하여 알수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리위원장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위원장동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공민이 아니나요. 당원들이 당세포에 소속되어 당생활을 하듯이 공민은 누구나 직장과 리에서 공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거예요.》

공민은 누구나 직장과 리에서 공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속에 함께 계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더 높이 우러르며 심장으로 따라배우게 되는것이다.

하기에 최길녀도 령길에서 쿵을 쏟힌 콩짜개까지 죄다 주어주시고 두부도 팔아주시는 살뜰한 인정에

이 끌리면서도 아직 누구인줄 모르고 마음 좋은 보통
 녀성으로 알고있다가 그이가 바로 온 나라 인민들이
 것처럼 우러러받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인줄 알고 《저리도 여느 사람이나 다름이 없으신데
 어찌면 이렇게도 마음이 끌리는지...》 하고는 한없이
 우러르며 흠모하는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찌 최길녀의 심정만이겠는가.

한평생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리위원장 로철목도
 김정숙동지의 이러한 인간적품모에 깊이 감동되며
 온 나라가 대가정을 이루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나갈 앞날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본
 다.

단편소설에서는 이처럼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

며 부드럽고 인자하신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공산주의혁명가의 위
 대한 품모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단편소설집 《불멸의 영
 상》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실성의 빛
 나는 구감이시며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무한히
 소박하고 평범하며 부드럽고 인자한 공산주의혁명
 가로서의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단편
 소설의 특성에 맞게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깊이 있
 게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집 《불멸의 영상》은 그 높은 사상예술
 성으로 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크게 이바
 지하는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처녀방사공

서진명

방사기 물속으로 흐르는 돌실이
 더 아름다우라고
 돌실을 타고 흐르는 그 눈빛이며
 빛나라고 해빛도 방사직장채광장으로만
 비쳐드는가!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하얀 돌실은
 만사람의 기쁨
 방사기 물속에 비껴 마주웃는
 구슬땀 맺힌 예쁜 얼굴은
 온 나라가 바라보는 사랑의 꽃
 달같이 환한 네 얼굴을 닮아
 네 얼굴에 피는 그 웃음을 닮아
 돌에서 피는 꽃숨
 은실금실이
 저처럼 눈부시게 빛나는것이냐!

갓 스물
 한창 부푸는 마음속 꿈이
 오리오리 비날론실에 꽃피여난다지
 순회길에 올려나는 기대의 그 음향이
 네 것처럼 사랑하는 노래라지

거기에 흐르는 꽃물결을 보아도
 더 늘어야 할 돌실을 생각하는 마음
 합숙창가에 별이 웃던 밤
 꿈결에서도 15억메터천고지를 그려보며
 교대없는 순회길을 너는 걸었지

언제나 마를새 없는 너의 그 손은
 사람들의 옷차림 살피주는
 어머니의 다심한 손!
 돌에서도 실을 뽑으니
 어찌보면 한없이 신비로운 손!

아,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해빛을
 뜨겁게 안고사는 방사공처녀야
 천가닥만가닥 끝없이 흐르는 은빛돌실은
 참으로 네 가슴이 뿜어내는
 사랑의 그 빛살이 아니더냐!

뿔고뿔으렴, 네 사랑의 은실금실
 피우고피우렴, 네 사랑의 비날론숨
 기대앞에 웃고있는 네 맑은 얼굴이 있어
 온 나라가 더 젊어진듯싶구나!
 더 아름다와진듯싶구나!

철새는 날아가도

조동서

1

산촌의 밤은 소리없이 빨리도 다가왔다. 도회지에서 저녁 이만때면 가장 번잡한 때건만 이곳은 그렇지 않다. 추위는 벌써 한밤중처럼 조용했다.

교문을 나서는 박은선에겐 문득 자기를 자래워준 정든 도시가 생각키웠다.

분주히 오가는 무궤도전차들, 웃고 떠들며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물결, 명멸하는 장식등과 가로등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은거리...

며칠전까지 자기가 살던 세계이다. 그 정든 도시는 은선의 띄푹거리는 첫걸음마를 익혀주었고 소녀시절의 부푸는 꿈을 싹틔워주고 열정에 타오르는 대학시절의 희망을 꽃피워주었다. 그 꿈은 그에게 언제나 정답고 살뜰했다. 그 세계는 지금 우중충한 저 산발너머 아득히 먼곳에 있었다.

(내가 멀리도 왔지!)

은선이 이런 생각에 움해있는데 머리로 새 한마리가 어둠을 가르며 휩 날아간다. 잠시후 새가 사라진 어둠속에서 《꼬르르》하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 새소리는 다감한 처녀의 가슴속에 야릇한 파문을 던졌다.

그는 오뚝 서서 호젓하게 안겨오는 마을을 신기하게 바라본다. 골짜기에 오붓하게 들어앉은 집들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있다. 그중 거뭇하게 안겨오는 7자로 된 집이 자기의 행장을 푼 리합속이란걸 첫눈에 알아보았다. 낮에 보니 마을에서 학교와 리합속이 제일 컸었다.

그는 오던 길을 예돌아 학교가 있는 등성으로 해서 마을입구로 내려왔다. 새 생활을 펴게 될 마을을 무척 걷고싶어서였다.

했으나 마을은 생각보다 더욱 좁았다. 이십분 걸으나마나했는데 마을은 끝이 났었다. 은선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 합속으로 발길을 돌렸다.

《어이구 이제 오나!》

튼김이 서린 부엌안에서 합속어머니가 반색을 했다. 어머니는 웃음을 짓고 처녀를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말했다.

《래일은 천수덕골안이 더 환해지겠는걸!》

《왜요?》

《왜라니, 저 천탑봉에 떠오르는 달덩이보다 더 환한 체네가 이 골안에 굴러들었는데 산천이라구 무심할가!...》

《아이참, 어머니두!...》

은선은 얼굴을 활짝 붉혔다. 그러나 합속어머니의

통이 싫지 않았다 《왜라니, 저 천탑봉에 떠오르는 달덩이보다 더 환한 체네가 이 골안에 굴러들었는데 산천이라구 무심할가! 대번해 마음이 가는 어머니였다.

《참, 소조라했던가?》

《아니 전... 학교 교원으로...》

《오라 아까 리당비서어른이 그랬지. 난 이렇게 헛갈릴 때가 많아.》

아마도 너인에겐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면 그아소조원이든 교원이든 상관없이 없는듯싶다. 외진곳에 찾아오는 사람이 그 누구든 제집처럼 믿고 생활하면 거기서 기쁨을 찾는듯싶었다.

《자, 어서 올라가라구.》 너인은 이렇게 말하며 은선의 등을 떠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혼자소리처럼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우리 미옥선생대신으로 온게구만...》

《예, 그 선생이 말았던 학급을 담임하게 돼요.》

너인은 무척 호감을 가지고 은선을 찬찬히 쳐다본다.

《임자 도회지에서 왔겠지.》

《예.》

《그 먼데서 여길 찾아왔구만!》

너인은 감심하면서도 어딘가 서운해 하는 기색이 었다.

《하긴 몇년 있겠나. 고작해야 이삼년일결...》

《예!?... 무슨 말씀이신지...》

《하, 저것보지. 미옥이가 처음 올 때도 내 그런소리 하니 임자처럼 펄쩍 놀랐다니. 뭐 여기서 당대 산다나...》

《어머니, 전 자진해서 찾아온 사람이예요, 이고장 아이들과 같이 살려고...》

은선은 까닭 모르게 억울한 생각이 들어 어성을 높였다.

《글쎄 간대루 아이들과만 살겠나. 체네란 다 때가 있는거야. 그러구 보면 탓할 일은 못돼...》 합속어머니는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못내 서운해한다.

《미옥이까지 가면 벌써 세번째네, 다 임자같은 체네선생들이었지. 처음 와서야 다 그렇게들 말들하지. 하지만 갈 때는 매정하게 훌쩍 떠나군하네. 내 마음이 어려 그런지 보낼 땐 좋지 않아. 요즘은 천팔처럼 여겨오던 미옥이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이 다 텅 빈것 같다니까...》

너인은 물묻은 손바닥으로 넓은 앞가슴을 펍 눌렀다.

은선은 가슴이 섹둑하고 눈곱이 뜨거워오름을 느꼈다. 그러나 위로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예구, 내 정신봐라. 이러다 귀한 손님 첫날부터 찬밥대접을 하겠다. 어서 들어가라구.》

합숙어머니는 다시 활기를 띠며 은선을 눈짓으로 떠밀었다.

은선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 사이문을 열고 한발을 들어놓다가 질겁하여 《어마나!》하고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빈방인줄 알았는데 웬 청년이 식사를 하고있었던것이다.

《들어가게, 이제야 한집안식솔이 되겠는데 허물이 있나.》

은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였다. 그렇다고 훌쩍 나오면 더욱 실례가 될것 같았다.

이때 상대방이 웅색해하는 처녀를 보고 벌떡 일어섰다.

《들어오십시오. 전 이젠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 나랭수 한사발...》

청년은 물그릇을 받아들더니 벌떡벌떡 단숨에 들이켰다.

은선은 등이 간지러웠다. 방금 일어난 청년이 나가면서 자기를 찬찬히 뜯어본다는걸 룡감으로 느꼈다....

식당옆방이 침실이였다. 은선은 옷도 벗지 않은채 오도카니 앉아 미옥선생을 기다리고있었다. 인계준비를 끝내고 오겠다던 미옥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시내가의 물소리만이 소연하게 들려온다. 낮설은 고장에 와서 받은 첫인상이 토막토막 떠오른다.

(참, 좋은 어머니야!)

하지만 떠나는 미옥선생때문에 그리도 섭섭해하던 합숙어머니를 생각하니 은선의 마음은 어수선하였다.

2

다음날아침, 은선은 미옥선생이 깨어나기전에 일어나 시내가로 나갔다.

산골물에 세수를 하고나니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상쾌했다. 은선은 즐거움에 잠겨 파아란 물속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이때 은선의 앞으로 새 한마리가 포르릉 날아간다. 맞은편 나무가지우에 앉은 새가 고개를 갇웃거리며 이쪽을 건너다본다. 마치도 이고장에 새로 온 낯선 사람을 알아보기라도 한듯.

《아이 어쩔 저리도 귀여울까!》

온몸뚱이가 파란새는 눈을 울롱하게 뜨고 은선을 지켜본다. 새의 몸뚱이는 물빛색갈과 신통히 같았다. 어찌보면 새가 물속에 체뚱뚱이를 잠그어 그렇듯 파랗게 물이 든듯싶었다.

《요 감쪽한것.》

처녀는 새가 날아갈가 저어하듯 콩알만한 돌을 들어 뒤서너메터 살짝 던졌다. 그러자 새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고운 목청을 돋구었다. 은선은 홀린듯 새를 지켜보고있는데 물건너 산기슭에서 아이들의 짝자그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선은 언뜻 그쪽을 바라본다. 애들이 웃고떠들며 물을 건너오고있었다.

(저 애들이 아침일찍 뭇하러 저길 갔다오는것일까?)

의혹에 잠겨 지켜보니 애들속에 키가 성큼한 웬 청년이 애들과 같이 떠들며 나무다리를 건너고있었다.

이윽하여 애들과 그 청년은 물을 건넜다. 학생들은 은선을 보자 입을 다물었다. 떠들썩하던 주위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청년이 은선이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뜻밖에도 엇저녁 식당안에서 낮을 익힌 그 사람이였다. 그는 길썬한 얼굴에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알고지냈시다. 차영길이라고 합니다.》

청년은 자기 이름을 사랑스럽게 외웠다. 처녀에겐 왜선지 그렇게 느껴졌다. 처녀도 쑥스럽긴하지만 자기 이름을 입밖에 꺼내지 않을수 없었다.

《박은선이에요.》

《4학년 2반을 담임했지요.》

《네에-》

《고생하겠습니다. 애들이 좀 험한 축이지요.》

자기는 마치도 교장선생님이나 되는듯싶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3대혁명소조원은 아닌것 같다. 한집에서 살게 될 소조원들과는 어제 인사를 나누었던것이다.

은선은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미옥이한테 차영길을 가리키며 뭇하는 사람인가고 물었다. 그는 지금 큰 짜리비를 들고 마당을 뚱뚱 끌고있었다.

《오, 저 사람!... 호호호...》

미옥은 혼자 한참 웃고나서 정색하며 말했다.

《좀 싱거운 사랑이야. 우리 〈애들의 대상〉 이란다. 학교일에 여간 간섭이 아니다. 생활도 꾸리지 않은 총각이란데 학부형들보다 잔걱정이 더 많단다. 별난 사랑이야...》

《무슨 일을 하세요?》

《통신선로 감시원이라나. 군대서도 통신병을 했나봐.》

《제대군인인가요!》

《그럼. 여기와서도 그 한줄배기령장을 한동안 달구 다녔단다. 우습지...》

두 처녀는 키득거렸다. 은선은 미옥이가 말하는게 재미있어 웃었다.

《저 철탑봉꼭대기로 넘어간 전주들이 보이지?》

은선은 눈을 찡뜨리고 미옥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다.

넓은 안개가 서서히 감도는 먼곳의 산발들이 들쭉날쭉한 자태를 어슴푸레 드러내고있다. 그 가운데로 전주들이 올라간것이 보일락말락 한다.

《군에서 며칠에 한번씩 순회하러 나와도 된다는데 저 사람이 자청해서 이곳에 주재해있다더라. 하긴 자기 말은 일이나 하면 누가 뭐라겠니. 이 사람은 마치도 학교교문 같단다. 애들 일에 간섭하구 혼시까지 하려고 들구...》

《참, 별난 사람이군요!》

은선은 제깬에 흥분하여 맞장구를 쳤다.

《너도 이제 지내보렴. 모든 학급애들이 저 사람의 지시봉에 따라 움직이는걸 수습할수 없을게다.》

《난 용서 안할테예요.》

《네가!? ... 마음대로 안될게다. 난 저 사람때문에 딱한 곤경을 자주 겪었어...》

두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방금 너도 봤지. 애들이 눈뜨자마자 어딜 갔다 오는지...》

《참, 애들이 식전에 산엔 뭏하러 갔다오는거예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게로구나. 저 등성이가 온통 칩산이란단다. 저걸 꾸린건 물론 좋은거야, 저기서 나는 칩으로 우리 학교의 수천마리 토끼사료를 넉넉히 보장하니까. 때문에 난 애들이 칩산을 꾸리겠다고 분단계획에 넣었을 때 적극 찬성했었어. 그런데 그게 우환거리로 될줄 누가 알았겠니.》

《그건 왜요?》

《칩산을 꾸리면서 애들의 마음이 산에만 가있으니 속이 왜 안타겠니. 난 정말 피로왔어. 애들이 점점 그 사람과 가까와지고 나한테서는 멀어졌으니까.》

《그럼 그 동무가 그걸 말기했는가요?》

《그래서 내 하는 소리지. 이젠 뭐 또 칩산뒤로 약초밭을 꾸릴 구상을 한다더라.》

《약초밭이란요!》

《이교장의 진귀한 약초들을 재배하자는거지. 요즘은 그럴때문에 그 동무가 리병원 원장을 찾아 다닌다고 소문이 돌구 애들과 선생들까지 기분이 들떠있더라.》

《그건 좋은 일이 아니예요. 애들이 이교장의 모든 것을 알게 하구, 가꾸보게 한다는건...》

《말 말아, 그 일애까지 애들이 끌려들어갔다간 정말 일난다.》

《왜요?》

《넌 아직 다 몰라...》

미옥은 대답을 피하며 방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아침밥을 먹고 난 그들은 나란히 학교로 향했다.

미옥은 이교장과 리별을 앞두고 감회가 새로운 모양이다. 그는 지나온 나날을 자랑에 겨워 말하고 있었다.

은선은 미옥의 말을 꿈속에서처럼 듣고있다. 앞으로 자기 생활도 그처럼 궁지롭고 보람차게 흘러가겠는지. 그것이 은근히 걱정되었다.

은선은 이곳으로 올 때 2년선배인 미옥이가 이 학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대학시절 최우등생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가 옆에 있다면 많은 면에서 도움을 받을게고 또 낯설은곳에서도 외롭지 않을것이었다. 그런데 믿고온 그가 남편을 따라 가기 위하여 자기를 기다리고있을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미옥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무슨 말인가 자꾸했다. 그러나 은선은 그 말을 건성 들으며 제생각에 잠겨있었다.

농장원 여럿이 포전으로 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두 처녀를 바라본다그러나 은선은 그 말을 건성 들으며 제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들속엔 차영길이기도 있었다. 색이 바랜 군복을 입은 그의 어깨우에 쇠줄 통구리가 걸려있었다.

《저 너잔 누구요?》

나이 지숙한 농장원이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차영길에게 물었다.

《새로 온 선생이랍니다.》

《아니 또 처녀선생인가!...》

더는 탄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통명스러운 소리가 울렸다.

《한 2년짜리 되겠군!》

《그것도 두고봐야지요.》

은선은 가슴이 섬찍하여 피곳 돌아보았다. 방금 두고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의 임자는 차영길이었다. 그는 은선의 뒤모습을 지켜보던 모양인데 당사자가 돌아보는데도 천연스럽게 시선을 옮기지 않는다.

은선은 까닭 모르게 가슴이 활랑거렸다.

(2년짜린 뭐고 두고봐야 한다는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미옥은 그 소리 못들었는지, 아니면 우야 못들은척 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밤이 깊어 합숙에 돌아왔다.

《애, 이젠 늙자꾸나.》

《...》

《이제 밤 새울 날이 오죽 많을라구.》

미옥은 이렇게 말하며 은선의 불을 손가락으로 꼭 눌렀다. 했으나 은선은 아무런 반응도 없다. 미옥은 마치도 천진한 소녀가 된듯싶었다. 보고듣는 모든것이 즐겁게만 느껴지는 모양이다.

은선은 그러는 미옥을 보니 더욱 서글퍼 졌다. 그는 오늘 미옥이가 담임했던 학급을 인계받았다. 이

날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왔던가! 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아침에 차영길씨와 농장원들이 주고받던 말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는다.

은선은 한참만에 알뜰한 입술을 힘들게 열었다.

《언니.》

《왜?》

《난 겁이 나요.》

《뭐가?》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날 달갑지 않게 여기는것 같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그제서야 미옥은 우울해진 은선의 얼굴을 찬찬히 지켜본다.

《은, 새춌뜨기가 아침에 그 사람 말한걸 가슴에 새겨둔게구나. 내 그러지 않던, 워낙 그런 사람이라구...》

미옥이도 그들이 하는 소릴 듣는게 분명했다. 그런데 어쩌면 그리도 아닌보살할수 있을가!

그들이 주고받던 말은 이고장을 찾아온 처녀교원들에 대한 혹독한 비평이 아니였던가!

은선은 차영길이 하던 말을 따져보지 않고서는 참을수가 없었다.

《무슨 뜻일가요? 2년짜리란건...》

은선은 불안한 심정으로 물었다.

그러자 미옥은 갑자기 유쾌하게 웃었다.

《네가 곱게 생겼다는거야. 난 3년만에 배우자를 만나 떠나지만 년 2년만에 누가 데려갈수 있다는거지. 호호...》

그 소리에 은선은 얼굴을 빨강게 붉혔다. 심한 모욕을 당한것 같아서였다. 그러니 2년도 두고봐야 안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 동문 남의 속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 희떠운 소릴 한단말인가.)

농장원보다도 차영길이 더 노엽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은근히 조여드는 불안과 걱정은 가셔지지 않는다. 왜선지 자신의 앞날도 장담할수가 없는것이였다.

《애, 이러다 밤새우겠다.》

미옥은 앉은뱅이책상앞에 오도카니 앉아있는 은선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끌었다.

은선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는다. 방은 몹시 덥고 답답하다. 그는 미옥이가 잠에 들자 조심히 일어나 창문을 활 열어 젖혔다. 답답하고 캄캄하던 방안에 시원한 바람이 흘러들고 푸르스름한 달빛이 스며든다.

그러나 가슴속의 답답함은 매한가지였다. 은선은 앞산에 설레이는 숲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잠 못들고있었다.

3

드디어 미옥선생이 떠나는 날이 왔다.

학부형들 모두가 그와의 리별을 몹시 섭섭해하였다. 그들은 미옥이를 배려주려 동구밖까지 따라 나왔다. 함숙어머니는 미옥의 손을 붙잡고 놓지 못한다.

《우리고장사람이 되는가 했더니 끝내 가는구만...》

함숙어머니는 두눈을 습벅이며 미옥을 바라본다.

그들의 리별을 지켜보는 은선의 가슴은 못내 아팠다.

은선은 나루가까지 갔다오리라 마음먹었다. 마을에서 십리쯤 내려가면 나루가가 나진다. 미옥은 거기서 배로 오십리, 기차를 타고 또 백여리 가야 한다.

《은선선생, 이젠 애들과 함께 들어가요.》

미옥은 애들앞이라 경어를 썼다.

은선은 대답을 안한다. 학생들은 자석에 이끌리듯 자주 따라온다. 교원들과 5미터쯤 간격을 두고 줄레 줄레 계속 따라온다.

은선은 불몽치같은것이 목구멍을 꼭 메워 자주 뒤를 돌아본다.

(애들두, 미옥선생이 너희들을 데려갈순 없겠는데...)

어쩌면 저런 학생들을 떼놓고 선뜻 발길을 돌릴수 있는지, 은선 이로서는 그것이 리해되지 않는다.

《언니, 제가 이렇게 묻는다고 이상히 생각진 마세요. 전 꼭 묻고싶었어요.》

말꼭지는 이렇게 뻗지만 은선은 다음 말을 인츰 꺼내지 못하고 입술만 감싼다.

그들의 앞에 이름모를 들꽃들이 체모양을 자랑하며 아름답게 피어있다.

은선은 무심코 빨간 꽃 한송이를 꺾어들고 뱅뱅 돌리다가 코앞에 가져가며 입을 뻗었다.

《언니는 아이들을 몹시 사랑하구 또 이고장의 모든것에 무척 애착을 가지시지요. 그렇지요... 전 오늘 그걸 절절히 느꼈어요.》

그런 언니가 어쩌면 그리도 험하게 떠날 생각을... 전 리해할수가 없어요.》

미옥은 그 말에 한숨을 호-하고 길게 내쉬더니 짐짓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은신을 물끄러미 지켜본다. 그런 말을 하는 은선이 천진하게만 생각되는 모양이다.

미옥은 고개를 슬며시 돌리며 조용히 말한다.

《나도 3년전 여기로 올 때 꿈이 컸어. 포부도 있구... 그래 일생을 이고장 아이들을 위해 바치리라 마음을 먹었었지...》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계속했다.

《생활은 그렇게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어. 은선 이도 이제 지내보지... 너자란 할수 없는가봐.》

그는 호-하고 또 한숨을 내쉬었다.

《저기 런남이도 왔구나!》
 미옥은 저으기 흥분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온것 같아요.》
 《런남이때문에 은선이가 좀 고생할거야.》
 미옥은 생각에 잠겨 혼자소리로 말했다.
 《참 똑똑한 애인데 그 사람때문에 나쁜버릇이 생겼어.》
 《차영길동무말인가요?》
 미옥은 제 생각에 잠겨 고개만 끄덕였다.
 《난 사실 저애들과 이달 마지막 일요일에 등산을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미옥은 말끝을 흐리며 먼 산밭을 애투이 바라본다.
 《어디로요?》
 《저 천탑봉밑으로!...》
 《아니 그 먼데!》
 《런남이랑 애들모두가 그걸 바라기에 약속했었어.》
 《그래요.》
 은선은 어쩐지 그 약속은 자신이 지켜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불쑥 들었다.
 《제가 그 약속을 지켜주겠어요.》
 《고마와.》
 드디어 나무가에 배는 와 닿았다. 먼발치서 선생은 지켜보던 아이들이 강기슭에 배가 와닿자 와-하고 밀려왔다.
 배는 통통거리며 길손들을 재촉했다.
 미옥은 피로운 심정으로 아이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있었다. 런남이앞에 다가간 미옥은 한동안 굳어져 말을 못했다.
 《런남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잘해요. 그리구...》
 미옥은 목이 메여 더는 말을 잇지 못한다.
 은선은 울음을 삼키며 그들을 지켜보고있다.
 《선생님, 이거 ...청춌니다.》
 미옥이앞에 새조롱이 불쑥 나타났다.
 《아니 그건!?!》
 미옥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은선이라도 여간 놀라지 않았다. 인제반던날 미옥이한테 청조에 깃든 사연을 구체적으로 들어 알고 있는 그였다.
 ...미옥이 이곳에 와 교편을 잡은지 일년이 갓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는 애들이 좋아하는 바줄당기기를 조직했었다.
 《여사! 여사!...》
 두편이 하나같이 질러대는 소리가 앞산을 찌렁 찌렁 울렸다.
 놀음을 끝낸 애들은 좋아 어쩔줄 몰라했다. 미옥이도 무척 기뻐했다.
 그는 땀주머니가 된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로 나갔

다. 아이들은 내가에 나가서도 자연히 두편으로 갈라져 물싸움을 하며 법석 고아뎠다미옥이도 무척 기뻐했다. 미옥은 즐거움에 잠겨 아이들을 지켜보고있었다.

이때였다. 이름모를 새 한마리가 미옥이가 발을 잠고있는곳에서 땃걸음앞에 내려와 사뿐 앉았다. 온몸뚱이가 청록색을 띤 무척 고운 새였다.

《아이 어찌면!...》

그가 탄성을 지르는 소리에 놀음에 팔렸던 학생들이 미옥을 의아해서 지켜본다. 미옥은 치마가 젖는 줄도 모르고 새가 앉은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보고싶은 생각이 불같이서였다.

그러나 새는 포르르 깃을 치며 날아오르면서 《객-객》 하더니 땃걸음앞에 있는 작은 나무가지위에 또 앉는다. 그리고는 《꼬르르》 하는 피이한 노래를 불렀다.

미옥은 새한테 훌쩍 반하여 또 다가갔다.

애들이 갑자기 까르르 웃었다. 선생님이 미끄러운 돌을 밟고 넘어졌던것이다.

했으나 미옥은 기뻐했다. 그는 유쾌한 기분에 잠겨 웃을 쥐여짜며 애들에게 물었다.

《저 새이름이 뭐예요?》

《청춌니다.》

《청조!》

《예. 어른들은 파랑새라고 부릅니다.》

런남은 대답했다. 그리고 성수가 나서 또 말했다.

《저 새 우리 천수덕에만 산답니다.》

《그래요!》

미옥은 런남학생의 말에 가슴이 무척해짐을 느꼈다. 물론 이 새가 이고장에만 사는건 아닐것이다. 생물학시간에 청조에 대하여 배운 기억이 난다.

(그런 진귀한 새가 이고장에 살다니!)

미옥은 새가 날아간 수림속을 아쉬운듯 바라보았다.

며칠이 지나서였다.

미옥이 교실에 척 들어서니 교탁우에 웬 새조롱이 놓여있었다.

미옥은 순간 흠칫 놀랐다.

(이게 무슨 장난이람!...)

미옥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애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생글생글 웃기만 한다.

그는 웬일인가 해서 다시 새조롱에 눈길을 주었다. 그는 소스라쳐 놀라며 교탁앞으로 다가갔다.

뜻밖에도 내가에서 보았던 그 새였다. 미옥은 북받쳐 오르는 기쁨과 흥분을 누를길이 없었다.

그는 여느때없이 밝아진 목소리도 애들에게 물었다.

《이 새 누가 잡았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웃기만 하며 런남이를 힐끔힐끔

바라볼뿐 대답을 안했다.

더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그는 뜨거움에 가슴이 젖어들었다.

다음날, 새조룡은 창문을 열면 보일수 있는 분과실 처마 밑에 데롱데롱 매달렸다 애들이 미옥을 위해 그렇게 했던것이다.

미옥은 출근하면 야릇한 기쁨에 잠겨 새장부터 들여다보고 먹이도 주곤했다. 새가 뭐라고 지저귄 때면 이고장과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애착이 생기고 자기 생활이 더없이 보람찬 한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던 미옥에게 언젠가부터 새가 점점 귀찮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에게 애인이 생기고 편지가 오기 시작할 때부터였다. 처녀는 그때부터 남모르는 자기의 세계에 잠기기를 좋아했다. 분과교원들이 방안에 없을 때는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그 달콤한 꿈과 환상은 새의 지저귀음으로 하여 동강나곤했던것이다.

미옥에게 날이 갈수록 새가 시끄럽게 여겨졌다.

어느날 미옥은련남이를 조용히 불러 새조룡을 다룬데 옮겨걸도록 알렸다. 한데 그 새조룡이 다음날 아침엔 뜻밖에도 교실창앞처마 밑에 매달려 있었다. 애는 선생님의 심정을 알리 없었던것이다.

미옥은 불패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을 할수가 없어 새가 수업분위기를 분산시켜 그러니 학교정원에 내다걸라고 타일렸다. 그 며칠후엔 새조룡을 떼여 학생들에게 쥐버렸다.

새는 끝내 미옥이의 기억속에서조차 아득히 사라졌으나 새를 보살피는 련남이의 지성은 극성스러웠다. 새때문에 요즘 련남이는 파외소년단생활에 종종 빠졌다. 미옥은 그일로 해서 속을 태우곤 했다. 그런데 그 새조룡이 오늘 이렇게 나타난것이다. ...

《선생님, 가져가십시오.》

련남은 어른스럽게 말했다.

미옥은 움쩍 앉고 서서 련남학생을 지켜보다가 와락 끌어 안았다.

《아니다. 너희들이 키워라.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웠겠니...》

미옥은 나오는 눈물을 훔칠념을 못했다.

《이건 선생님을 위해 잡은 새였습니다.》

울먹이며 말하는 련남학생의 두눈에도 이슬이 펴 돌았다.

《고맙다. 련남아》

미옥은 련남학생을 다시 한번 힘껏 그리안았다가 더는 자신을 건잡기 힘든듯 눈물을 삼키며 뺨 돌아섰다.

《붕!》

출렁이는 수면위로 배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순간 함성이 터졌다. 고무공처럼 팽팽해졌던 애들의 입에서 일시에 그 소리가 나왔다.

《선-생-님!...》

하나같이 고개를 쳐든 애들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 다. 미옥의 쳐들었던 손이 허공에서 굳어진채 움쩍 안한다. 애들의 타는듯한 부르짖음은 또다시 크게 울린다. 하지만 흐르는 물결은 사정없이 배와 함께 그 애절한 목소리마저 떠실고 어디론가 급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미옥의 손에 쥔 머리수건이 기발처럼 나뭇기다가 아물거렸다. 배는 까만 점으로 보이다 그것마저 깜박 사라진다.

점도룩 배길을 지켜보던 련남이가 선생님을 따라 보내려는데 새 창문을 열고 새를 날려보낸다. 가없이 넓은 하늘이 활무대가 된 새는 훨훨 배길을 따라 한참 날더니 얼마 안가 되돌아 날아왔다. 새는 애들의 머리우에서 뭔가 지저귀다가 마을쪽으로 서서히 날아가고있다.

이를 본 련남이는 《야, 새는 여기가 제일 좋은 모양이지...》 하고 혼자 중얼거린다.

은선은 그러는 련남이를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푹푹 찍었다.

서글펄다. 함숙어머니가 가슴속이 텅 빈것같다고 하더니 어쩐지 자기속도 헛헛했다. 또한 자기의 앞날도 불안스러웠다.

(내 마음이 이러니 애들 마음인들 오죽할가!)

하지만 학생들이 그런 기분에 오래동안 잠겨있게 하고싶지는 않았다.

《학생들, 이제 가자요.》

애들은 대답을 안했다. 은선의 존재는 마치도 느끼지 못하는듯... 배가 사라진쪽을 묵묵히 바라 볼뿐이다.

은선은 다소 섭섭했다. 그러나 노여운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은선은 련남학생을 조용히 불렀다. 그러자 련남이는 뒤로 몸을 뺄 돌렸다. 그리고는 은선을 피곳 쳐다 본다. 바라보다기보다 쏘아보는듯싶다. 마치도 새 선생이 와서 저희들의 담임선생이 가버리거나 한듯, 은선은 그걸 느꼈다. 했으나 내색을 안하고 말했다.

《우린 오후에 수업이 있어요...》

그러나 애들은 강기슭에 박힌 말뚝처럼 움쩍 안한다.

은선은 속이 탔으나 참을수밖에 없었다.

《좋아요, 우리모두 여기 좀 앉았다 가요, 이십분만...》

은선은 웃으며 제 먼저 물이끼가 말라붙은 거무스름한 돌우에 앉았다. 그제서야 학생들은 주뭇거리다가 선생의 말을 따랐다. 하지만 은선의 가까이에 앉기를 꺼려한다.

(애들두 참,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의 마음을 돌려 세울수 있을까?)

은선은 마음속이 허전하고 불안스러웠다.
《참, 학생들은 일요일에 등산을 가기로 계획했었
다지요?》

은선은 일부러 활기를 띠며 말했다.

《예.》

련남이가 시답지 않게 대답한다.

《가자요. 미옥선생님대신 제가 가겠어요.》

애들이 일시에 은선을 의아쩍게 쳐다본다.

《선생님이 천답봉밀엘 가시렵니까!?》

련남의 무척 당돌한 물음이었다.

《가지 않구요, 나라구 왜 못가겠어요.》

그러자 애들은 새 선생을 신기한듯 쳐다본다. 그
러던 애들의 눈길은 은선의 굵높은 구두에 와서 문
득 멎었다. 애들은 약속이나 한듯 마주보며 싱긋 웃
는다. 믿음이 안간다는 표정이다.

《산이 험합니다.》

웃음이 나울만큼 틀진 목소리였다.

《등산이야 산이 험하고 높을수록 할맛이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마음이 놓인듯 버럭 웃는다.

《그날은 학생들이 선생이 되어야 해요. 난 이 고장
이 처음이 다보니 아는게 없거든요. 련남학생이랑
그럴수 있어요?》

련남이는 점직한듯 빙긋이 웃을뿐 대답을 못한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쳐들었다. 뿔가 망설이며 갑자
르다가 입을 연다.

《선생님은 언제까지 우리 학교에 계십니까?》

《언제까지라니요!?...》

은선은 가슴이 섬적하여 되물었다. 하지만 련남학
생의 두눈동자엔 심중한 질문이 비껴있었다. 그 답
변을 듣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선생을 받아들이일 모양
이었다.

순간 차영길이며 마을 농장원 그리고 함숙어머니
가 하던 말들이 떠올라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너무
도 일맥상통한데가 있었던것이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오자마자
떠나갔으면 하는가요?》

은선은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학
답을 줄수 없는 그였다.

애들은 침묵을 지켰다.

련남이가 한참만에 고개를 쳐들었다.

은선을 바라보며 말을 할듯말듯 입술을 방싯거리
는 어린것의 얼굴에는 꼭 짙기 어려운 착잡한 표정
이 어려있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인민학교를 졸업하구, 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구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 마을
에서 살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피롭게 이 말을 하는 련남이의 목소리는 울먹이었
다.

《미옥선생님이 학생들과 그런 약속을 했었나
요?》

《예, 처음 오셨을 때...》

은선은 금시 숨이 콕 막히고 답답해짐을 느꼈다.
(아, 그랬었구나!)

미옥선생의 일이 놀라와서 그런지 하염없이 서글
퍼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지금껏 그의 눈에 비
쳐든 미옥은 몹시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마
을사람들이 그토록 아끼고 따르다고 생각했다.

애들의 말을 듣고난 지금 은선의 생각은 달라졌다.

어쩌면 그럴수 있을까! 애들과 한 중한 약속을 어
기고 홀 떠나다니... 까닭 모르게 분한 생각이 든다.

그런 말로 순결한 어린 마음들을 유혹하여 사랑을
독차지 했다가 그 믿음과 신성한 약속을 저바리고
떠나간 미옥선생이 한없이 야속했다. 지금 애들이
자기한테 곁을 안주는것도 십분 이해되었다.

그리고보면 미옥은 결코 오늘 애들곁을 떠난것이
아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판곳에 가있었다. 그래서
애들은 그한테서 멀어졌다고 여겨졌다.

돌아올 때 학생들의 기분은 좀 호전된듯싶었다.
하지만 은선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선-생-님》

강반우에 울리던 애들의 타는듯한 웨침소리가 자
꾸 은선의 가슴속을 허비였다.

은선은 즐거운 심정에 잠겨있었다. 손뽀아 기다리
던 등산날이 온것이다.

그는 장만해두었던 등산배낭을 다시 펼쳐보았다.
혹시 미흡한게 없는가 해서였다. 그러다 피땀 떠오
르는 생각이 있어 책꽂이에서 파아란 표지를 한 동
식물 상식수첩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간단한 의약품
도 배낭에 넣었다.

어둑새벽에 일어난 함숙어머니도 지금 등산음식
을 차리느라 바빠 돌아갔다.

등산에 어울리게 간편한 옷차림을 한 은선은 신을
신다 말고 즐거움에 잠겨 미소를 지었다.

(애두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했을가!)

어제저녁 련남이가 불쑥 함숙에 나타났었다.

《선생님 이거요...》

그애는 밀도끝도없이 종이꾸레미를 은선이앞에
내밀었다. 은선은 련남이를 의아쩍게 바라보다가 그
것을 펼쳐보았다.

《아니! ... 선생님은 신이 있는데.》

뜻밖에도 한두번 빨아 색이 좀 바랜 운동화였다.

《그 신 신고는 산에 못갑니다. 작년에 미옥선생님
도 그런 신을 신고갔다가...》

련남이는 말끝을 여미지 못한채 빙긋 웃었다. 아
마도 미옥선생이 굵높은 구두를 신고갔다가 애들의
웃음거리가 된 모양이었다.

《난 편리화가 있어요.》

련남학생의 고집은 여간 아니었다. 운동화를 꼭 신어야 한다는것이다. 학생의 성의를 봐서 받지 않을수 없었다.

은선은 지금 그 신을 신어보는중이었다. 운동화가 편리화보다 더 어울리는것 같았다. 며칠동안은 걸을 안주던 애들이 이렇듯 자기를 끔찍이 위해준 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기쁨을 어쩔수 없었다.

천탑봉을 바라보던 은선의 눈길은 문득 올타리 밖에 가 멎었다.

애들의 얼굴이 또 보였던것이다. 련남이와 학급장, 그외에도 예닐곱명의 애들이 올타리밖에서 서성거렸다.

《아이 어떻게들 왔어요?》

은선은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애들앞으로 다가 갔다.

고개를 수긋하고 신발끝으로 땅을 후비던 련남학생이 입을 열었다.

《저...제대군인 형님을 만나보려고...》

《누굴!?》

삼시에 즐겁던 마음이 잡쳐졌다.

《그 형님은 왜?》

《등산을 같이 가자고 했었습니다.》

《등산! 그 사람이 뭐길래 우리 등산놀이에 같이 간단말이나!》 이렇게 소리치고싶었지만 은선은 가 까스로 참고 조용히 물었다.

《왜, 그 형님이 꼭 가야 되냐?》

아이들은 머뭇거렸다.

《꼭 가야되는건 아닙니다.》

등뒤에서 웅글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은선은 흠칫하며 돌아섰다.

공교롭게도 차영길이 서있었다.

《저도 산에 대해선 별로 아는게 없습니다. 애들이 자꾸 부탁하길래...》

청년은 진실을 말하는듯싶었다.

하지만 미옥선생이 하던 말들이 생각키워 은선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럼...》

은선은 얼굴이 화끈해 짐을 느꼈다. 좋다고 해야 할지 안된다고 해야 할지... 딱한 립장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가시자요.》

애들은 벌써 그의 량팔에 어리광을 매달려 어리광을 피우며 즐라댔다.

(저애들이 어찌자구 저렇가!)

학생들이 민망스러웠다. 그 사람으로 하여 등산놀이가 틀러질것만 같아 겁이 더럭 났다.

하건만 차영길은 은선의 존재는 안중에 없는듯 싶다. 아이들한테 에워싸여 싱글벙글거리던 차영길은

비위 좋게 말했다.

《내 올라가는길에 함께 가자꾸나...》

그리고는 련남의 잔등을 철썩 갈겼다.

《아-아!》

아이들은 어느새 올타리밖으로 달려나갔다. 은선은 모욕을 당한듯 그자리에 움작 안하고 서있었다.

(제가 뭐길래 학교 일에 끼여든단말인가!)

미옥이 하던 말이 다 옳은것 같다. 자기를 모욕 주던 말도 가시처럼 돌아났다.

어디 두고보자... 다시는 남의 일에 상관 못하게 기회가 닿으면 따끔히 쏘아주리라 마음먹었다...

은선은 산을 오르면서 생각했다.

(오늘은 힘이 들어도 참아야 해. 애들이 선생의 얼굴을 쳐다볼수 있어.)

하지만 마음대로 걸음은 되지않는다. 점차 숨이 차고 두발이 연당이를 매단것처럼 무거웠다.

은근히 걱정했던 학생들이 앞서군했다. 오히려 자기때문에 대렬이 지체되군했었다. 은선은 은근히 화가 났다.

(이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짜주었을까!)

등에 진 배낭에 화풀이도 해본다. 은선의 동그스름한 얼굴은 팍범벅이 되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고난 그는 등산길을 쳐다본다.

차영길을 따라선 기본대렬은 어느새 까마득히 앞섰다. 예닐곱명의 학생들이 떨어졌을뿐이다. 몹시 지쳐하는 애들이다. 그들속에 련남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앞서가던 저애가 어떻게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련남이가 은선이 옆으로 다가왔다. 련남인 힘들어하는 자기의 선생님을 동정의 눈길로 바라본다.

은선은 학생앞에 서있기가 거북했다.

《련남학생도 힘들겠지요?》

《아닙니다. 순철이랑 힘들어하길래...》

그제서야 은선은 련남이의 어깨에 등산배낭이 둘이나 지워져있음을 보았다.

《배낭 하날 선생님한테 줘요.》

그러자 련남이는 팔쩍 놀라며 제가 지고간다고 우거댔다.

은선은 피곤했다. 우를 쳐다보았다. 차영길은 아이들을 세워놓고 뒷인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있다. 그들 앞엔 잣나무림이 펼쳐져있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학생들앞에서 자기자신이 아닌 딴 사람이 교원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니 분한 생각이 든다.

(빨리 올라야 해.)

은선이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선두 대렬은 기다렸다는듯 다시 움직였다. 울창한 수림속 한가운데로 땀기오리처럼 뻗어간 오솔길로 애들의 대렬이 가물거린다. 청년한테 찰떡처럼 붙은 애들은 자꾸 울

라간다. 차영길이 자기를 골탕 먹이느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자꾸 어디론가 오르는것만 같았다.

(이젠 어쩔까?)

더는 가낼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앉아있을수는 없는것이다. 막 울음이 나올것처럼 안타까왔다.

《선생님, 쉬여가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일없어요. 대렬을 빨리 따라가야했는데...》

련남이는 선생님이 힘들어 하는걸 보기 딱한 모양이었다. 은선은 나약한 자신을 더는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 탄전을 부렸다.

《아이, 여기 숲이 꽤 넓군요.》

은선은 숨을 몰아쉬고나서 뻣뻣한 수림속을 보며 말했다.

《사방 십리나 펼쳐져있습니다. 이곳 잣나무는 주로 30년생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배웠습니다.저 나무도 틀림없이 30년생일겁니다.》

련남이는 신이 나서 앞에 선 미끌한 잣나무를 가리키며 자신있게 말했다. 련남이는 계속하여 잣나무림이 끝나면 잡관목이 나선다는거며 거기에 사는 새와 꽃, 약초에 이르기까지 자랑에 겨워 말하는것이였다.

은선은 힘든것도 잊고 련남이의 이야기를 즐겨 듣고있는데 처음은 작게, 다음은 크게 여럿이 힘을 합쳐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은선은 오탁 서서 그 소리를 듣는다. 순간 끝모를 걱정에서 사로잡혔다.

(아, 애들이 찾은구나! 나를 찾아...)

은선은 여직껏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본적이 없는듯싶다.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어-》

소리치려고 해도 목이 메어 나가지 않는다. 련남이와 같이 가던 애들이 화답했다. 은선은 경황없이 허둥거렸다. 지금 자기가 무슨 힘에 이끌려 급한 경사지를 단숨에 오르게 되는지 알수 없었다.

웃고있는 애들이 보인다. 잠시후 뒤서너명의 애들이 자기를 향하여 공처럼 굴러오고있었다.

은선은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가요, 넘어지겠어요, 오지 말라요.》

그는 황급히 손짓을 하며 올라왔다. 은선은 자기 두 눈앞에 안개가 가린듯 점차 뿌옇게 됨을 감각했다.
...

애들은 선생의 땀범벅이 된 얼굴을 친진하게 바라보며 웃고있다. 차영길이라도 미안한듯 열적게 웃고있다.

《안됐습니다. 난 선생님이 따라오시는줄만 알고

...》

애들모두가 그렇다는 표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차영길이와 학생들을 보니 좁전까지 노엽게 생각되던 그 모든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애들아, 쉬여가지 않겠니?》

《그러자.》

련남이의 말에 애들이 일시에 호응했다.

은선은 고마왔다.

저런 학생을 미옥선생은 왜 그렇게 보아왔을까?

그는 떠나는 날까지 련남학생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었다. 그래서 첫날부터 련남이에 대해 주시해왔었다. 하지만 정반대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은선이었다. 또 학급애들의 신망인들 얼마나 높은가!

은선은 이런 생각을 하며 차영길의 옆에 좀 사이를 두고 앉았다.

은선은 추위를 둘러보았다. 예까지 올라오면서 처음 이런 마음의 여유를 얻은 그였다. 수많은 봉우리들이 내려다보인다. 들쭉날쭉한 봉우리들이 안개속에 잠겨 헤염치고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바다속에서 굽등어떼가 꿈틀거리는것 같다.

(야, 높이도 올라왔네!)

처녀는 속으로 뇌이였다. 그러나 천탑봉은 여기서도 아찔하게 쳐다보인다.

좌-아...

숲의 설레임소리인지, 물소리인지 가늠할수 없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

은선은 두리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니 저게... 폭포가 아니예요!》

《허허, 폭포지요, 처음 보십니까? 올라오는 길에도 저런 폭포가 둘이나 있었는데...》

《그래요!》

처녀는 무안을 당한듯 얼굴을 붉혔다. 숨가쁘게 올라오던 방금전의 자기를 청년이 본듯싶어 창피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눈길은 자꾸 폭포쪽으로 쏠렸다. 수십메터의 높이에서 명주필이 드리운듯하다. 꺾이지른듯한 절벽밑으로는 넘실대는 소가 보인다. 마을앞으로 흐르는 내가도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폭포주위는 온통 울긋불긋한 색깔로 단장을 하고있는데 폭포건너 평퍼짐한 룡선우로는 옥색주단에 무연하게 펼쳐져있다. 얼핏보면 잔디 같았으나 그렇지않다. 무슨 나뭇지 알수 없었다. 은선은 신비로운 절경에 매혹되어 그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련남학생이 차영길이 앞으로 다가왔다.

《여기 식물에 대한걸 설명해주십시오.》

《이제야 선생님이 계시지 않나.》

《아니 전...》

은선은 당황하여 급하게 밀막았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은 안든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건 백리향이란 나무다...》
 차영길은 조리있게 설명해나갔다.
 《예로부터 백리안팎에 향기를 뿌린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바람만 스치고 옷깃만 다쳐도 기막힌 향기가 풍기지...》
 아닌게아니라 그쪽에서 소슬바람에 실려 들크무레한 향기가 풍겨오고있었다.
 《저 나문 고급향료와 귀중한 약재로 쓰일뿐 아니라 너희들도 아는것처럼 양념감으로도 쓰인다. 그러니 이 산은 또 하나의 보물을 안고있는 셈이지... 그리구 우리고장의 저 백리향은 좀 다른점이 있다. 그것은 묘향산이나 다른데서 자라는 백리향보다 삼백메터 낮은데서 잘 자라는점이다. 이걸 왜 그렇게했니?》
 차영길은 아이들의 사고를 계발시키며 주의깊게 둘러보았다.
 《이것 역시 너희들 힘으로 알아내야 한다. 알겠니?》
 《예.》 아이들은 기운차게 대답했다.
 은선은 놀란 눈길로 차영길을 쳐다보았다. 그가 마치도 식물학계의 권위있는 전문가처럼 생각된다. 혹 그 계통에 뜻을 둔 동무가 아닐가? 자청해서 여기로 왔다고 하지 않던가!
 궁금했지만 물을수는 없었다.
 학생들은 방금 받은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련남이가 이 산의 그 모든것에 대해 그토록 많은걸 알고 막힘없이 설명하던게 무심히 생각되지 않는다.
 《참, 선생은 어떻게 오시자마자 등산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차영길이 생각난듯 물었다.
 《미옥선생 이 학생들과 약속했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실은 련남이가 그걸 제기한 모양인데 처음은 미옥선생한테 거절당했지요. 그 때문에 합숙에서 그 선생을 만나 얘기했더니 좋게 생각질 않더군요. 학교일에 간섭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애들을 위해 등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상 주저할수 없더군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야 공민의 다 같은 의무가 아닙니까. 그래 다시 제기했었는데 일은 참 공교롭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은선은 쏘이는데가 있었다. 언젠가 차영길에 대해서 물으려 하자 미옥이 대답을 피하던 생각이 났다.
 《련남인 누구보다 꿈이 많고 총명한 애지요. 자기 고향을 또 무척 사랑하지요. 이고장의 그 모든것이 그애한테 관심밖의 일로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랜 자주 엉뚱한걸 묻곤하는데 대답을 줄수가 있습니까. 그래 책을 몇권 빌려다보거나나 나도 이젠

조금 눈이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은선은 몹시 감복되어 말했다.
 《그런데 그 일로 해서 저 애가 선생의 눈에 났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왜요?》
 《그걸 말하자면 좀 길어집니다.》
 차영길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지나간 일을 들춰내는게 별로 유쾌하게 생각되지 않은 모양이다.
 은선은 차영길이 듣고 생각던바와는 달리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한데 난 까닭 모르게 이 동무를 경원시하지 않았던가!)
 뒤늦게나마 리성의 불이 켜진게 무척 기뻐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숲속에서 온갖 새들이 다정하게 지저귄다.
 정적속에 잠긴 신비로운 숲세계를 이윽도록 지켜보던 차영길이 먼저 고요를 깨트렸다.
 《선생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습니까?》
 차영길은 은근히 물었다. 청년의 두눈은 진지하게 은선의 대답을 기다리고있었다. 처녀는 이 동무가 언젠가 련남이처럼 자기 마음을 떠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끊지 않게 대답했다.
 《배치해주니 왔지요.》
 《그렇습니까!》
 청년은 몹시 실망한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풀대를 하나 꺾어들고 생각없이 신발잔등을 툭툭 친다. 은선은 너무했다는 자책이 들어 일부러 쾌활하게 웃으며 물었다.
 《동문 어떻게 여길 오셨어요?》
 차영길은 하늘과 맞붙은듯한 천탑봉을 묵묵히 바라보며 인차 입을 열지 않는다. 그우로 실오리처럼 뻗어간 통신선이 보였던것이다.
 《저 통신선을 위해서 이 고장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래 난 약속했지요, 여기 남기루...》
 《누구하고요?》
 《누구랄게 있습니까. 이 마을 아이들과 약속하였지요.》
 은선은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까르르 웃음을 터쳤다.
 《아니, 왜 아이들과의 약속이 그렇게 우습게 여겨집니까!》
 차영길은 자못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하긴 미옥선생은 아이들과의 약속을 한갖 장난으로 여기고 떠났으니까... 난 아이들과의 약속은 그 어느 약속에 못지않는 신성한것이라 생각되더군요. 그건 바로 미래와의 약속이기때문이지요.》
 (미래와의 약속!)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가!
 은선은 자신도 모르게 흥분되었다.
 또 답답한 침묵이 흘렀다. 이 청년앞에서는 까닭
 모르게 주눅이 드는걸 어쩔수 없는 은선이였다. 이
 림모를 새들이 그들 가까이에서 귀따갑게 지저귀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새들을 지켜본다.
 《아름다운 새군요. 정말 이고장엔 고운 새들이 많
 아요.》
 은선은 지나는 말처럼 한마디 했다.
 《여름한철 이곳에 찾아오는 새지요. 가을이면 제
 좋은 고장을 찾아떠나가구요. 벌써 떠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순간 은선의 마음은 별스러운 감정에 휩싸이였다.
 《하지만 저 새무리속엔 철새만 있는건 아닙니다.
 저걸 보십시오.》
 청년은 앞에 선 자그마한 나무를 가리켰다. 휘청
 거리는 나무가지우에 새 한마리가 앉아있었다.
 은선이기도 잘 아는 새였다.
 《청조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각기 제 생각에 잠겼다. 이때련남이가 두
 사람앞에 나타났다.
 《선생님》 점심식살 여기서 하잡니까?》
 은선은 그제서야 점심때가 되었다는걸 알았다. 은
 선은 열김에 차영길한테 묻는듯한 시선을 보냈다.
 《여기서 먹고오르는게 좋을겁니다. 자, 그럼 전
 …》 차영길은 움쭉 일어섰다.
 《아니 어쩔려구요!?》
 은선은 놀라며 따라 일어섰다.
 《전 이젠 가봐야 합니다. 좀 늦었는걸요.》
 《아니, 이제 거길 어떻게!…》
 은선은 무엇인가 더 말하고싶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이 솟구치고 또 솟
 구쳤다.
 그는 어느새 수림속 오솔길로 사라지고있었다. 문
 득 배낭속에 든 음식생각이 났다. 그거라도 좀 보냈
 을걸… 못내 아쉽고 서운하다. 그가 방금 사라진 실
 오리처럼 뻗어간 그 길에서 은선은 눈길을 땄수가
 없었다.
 《선생님, 저 통신선이 평양과 잇닿아 있다지요!》
 《예!?》 은선은 그 소리를 꿈결에서처럼 들으며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저 통신선말입니다. 그 형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계시는 평양과, 우리
 마을을 련결한 나라의 신경이라고, 그래서 통신선을

지키는 임무는 매우 영예롭다고 말했습니다.》
 《웁아요, 정말 그래요. 저 험한 천탑봉을 오르내리
 는 일이 우리 아름다운 고향을 지키고 우리의 행복
 을 꽃피워가는 보람찬 일이지요.》
 은선은 환희로운 감정에 잠겨 부르짖었다. 그것은
 애들한테 하는 말이라기보다 자기자신에게 하는 웨
 침이였다.
 그 동문 학생들한테 얼마나 고귀한 신성한것을 가
 르치고있는가!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해서, 사람들
 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그와의 상면은 길지 않았으나 처녀가 받아안은것
 은 너무도 큰것이였다.
 은선은 련남이가 선생님은 이 마을에 언제까지 계
 시느냐고 묻던 일을 문득 상기했다. 하지만 그때 대
 답 못한게 후회되지는 않는다. 지금 련남이를 정겹
 게 바라보는 은선의 속마음은 이런 말을 주고받고있
 었기때문이다.
 《련남학생, 련남인 언젠가 나보구 이 마을에 언제
 까지 있느냐구 물었지요?》
 《난…》 은선은 한눈에 안겨오는 오붓한 마을을
 바라보며 말한다.
 《영원히 학생들과 함께 이 마을에 살겠어요.》
 은선은 애들만이 아닌 또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터놓을 때가 꼭 있으리라 생각했다.
 가없이 넓은 저 하늘가로 한때의 철새들이 어디론
 가 날아가고있었다.
 하늘을 쳐다보던 은선은 문득 생각난듯 물었다.
 《참, 련남학생, 전번에 그 청조를 련남이가 잡았땀
 어요?》
 《아닙니다. 그 형님이…》
 《그래요. 우리 그 썰 다시 키우는게 어때요?》
 《정말입니까!》
 련남이의 두눈은 초롱불처럼 빛났다.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사람속을 곧잘 들어
 다볼 때가 있는것이다. 예민하고 총명한 아이들은
 지금 녀선생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읽고있었다. 그래
 서인지 선생님을 고마운 눈길로 바라보던 애들은 즐
 거움에 겨워 천탑봉을 올려다본다.
 지금 은선에게도 천탑봉으로 뻗어 올라간 오솔길
 이며 성냥가치처럼 바라보이는 전주들이 한없이 귀
 중하게 안겨오고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지켜선 차영
 길은 애들 못지않게 자기의 마음속에 아주 친근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잡는것이였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듯 고요한 숲속에서는 청조의
 지저귀소리가 정다옴게 들려오고있었다.

현대동화창작의 귀중한 본보기

-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일곱편의 동화들을 중심으로 -

정룡진

현대 동화문학작품들이 어떤 모양과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하여 논의를 하는것은 오늘에 와서 각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동화론자체의 발전적견지에서 보나 인류 문예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주체적인 동화문학을 건설하고있는 창작실천의 견지에서 보나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

그 사상적기초에서 주체적문예리론에 튼튼히 의거하고있는 현대동화창작에서 새로운 방법론이 제기되어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현대동화의 리상적구조에 대한 논의는 결국 선행한 동화작법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리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의인화와 환상을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게 펼치면서 그속에서 어떻게 사상과 철학을 밝혀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이런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면 우리는 종래의 동화들에 내포되어있던 일련의 형상적비진실성과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주체시대인간들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현대동화의 생김새를 하나하나 확정해나갈수 있다.

현대동화의 리상적구조를 확정하는데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일곱편의 동화(이하는 일곱편의 동화라고 함)들이 보여준 귀중한 모범을 일반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이 동화들에서 종자문제, 주제와 사상의 철학적심도문제, 의인화와 환상문제 등 현대동화 창작에서 걸리고있는 모든 문제들이 원만한 해결을 보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일곱편의 동화들이 이룩한 사상에술적성과를 깊이있게 체득해가는 과정은 창작에서 걸리고있던 모든 미해결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는것으로 되며 결국은 현대동화의 생김새를 실천적으로 파악하는 좋은 계기로 될수 있다.

△이야기의 평이성과 주제의 철학적심오성

일곱편의 동화들이 거둔 사상에술적성과의 하나는 이야기가 평이성을 띠고있으면서도 주제의 철학적심오성이 보장되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누구나 다 리해할수 있고 알기 쉬운 이야기속에서 심각한 인간의 문제를 용이하게 도출해내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것도 어디까지나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창작에서 아이

들의 심리적특성을 옹게 리해하고 그를 적극 구현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글을 쓴다는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세계관과 인식능력의 수준에 맞게 창작을 따라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에게 주는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교양적이어야 하며 즐거리가 간단하고 알기 쉽고 재미있게 되어있어야 한다. 단순한것, 간단하면서도 알기 쉬운것, 그러면서도 재미있는것은 곧 창작에서 평이해특성의 원칙을 지킬 때에만 이룩될수 있다.

동화는 철두철미 평이성으로 특징되는 문학이다. 동화에서는 모든것이 명백하고 석연하여야 하며 옹고 그른것이 항상 뚜렷이 제기되고 그 결말도 확정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모호한것, 까다로운것, 불명료한것은 동화창작에서 백해무익하다.

누구나 리해할수 있는 평이한 사건의 흐름속에서 의의있는 시와 철학을 천명해내는것, 바로 여기에 동화문학의 묘미가 있으며 그의 문학적독자성이 있다.

일곱편의 동화들에서 이야기의 평이성은 무엇보다먼저 생활을 미화분식하지 않고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펼쳐보이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동화 《놀고먹던 꿀꿀이》, 《두 장군이이야기》, 《황금덩이와 강낭떡》, 《나비와 수탉》 등 그 어느작품을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는 생활과 동떨어진 경이로운 동화세계가 펼쳐져있지 않다. 모두가 우리주위에서 벌어질수 있는 생활이거나 또 어느때가는 벌어졌던 생활이면 또 현재 벌어지고있는 생활들이다.

《놀고먹던 꿀꿀이》에서 집주인에게 붙어사는 각이한 동물군상들과 그들로 하여 얹혀지는 이야기 줄거리는 참으로 생활적이다. 집주인의 생일잔치를 앞두고 분분한 론의를 벌리는 황소, 말, 멧멍이, 야옹이, 수탉 등 의인화된 동물들의 스스럼없는 이야기들과 그속에서 울려나오는 로동하는 보람에 대한 긍지, 비근로적현상에 대한 심각한 야유와 규탄의 감정은 그야말로 생활적이며 진실하다.

여기에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생활을 이리저리 비꼬는 불안정한 앓음새나 비 사실주의적요소를 조금도 찾아볼수 없다.

생활을 미화분식하는것은 현란할수는 있으나 진실하지 않다.

이야기의 평이성은 다음으로 어린이들이 잘 아는 생활, 어린 독자들이 즉시에 친숙할수 있는 가장 가

까운 생활을 펼쳐놓고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른바 《독특한 동화세기》, 《미지의 생활분야》에 대한 탐구가 마치 작품의 개성을 돋우고 금새를 울리는 관건적인 문제로나 되는듯이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나서는 안될것이다.

이여의 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동화에서도 작품의 우열은 어떤 분야의 생활을 취급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물론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생활이 작품의 체취를 독특하게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조건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비와 수탉》에서 두 인물인 나비와 수탉은 어린이들이 너무도 잘 아는 동물들이다. 아이들은 작품의 세계에 끌려들어가기 이전에도 나비와 수탉의 생태특성, 유익성과 장끼를 제나름으로 얼마든지 추리해낼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의 세계에서 살아움직이는 두 인물의 교감과 활동은 마치 한집안에서 있는 사실을 지적에서 보는것과 같은 친숙한 감정을 자아내고 있다.

자기의 큰 몸집과 힘을 믿고 매사에 거만하게 구는 수탉, 공들여 꾸려놓은 살기좋은 동산을 짓밟히우고도 처음 한동안은 무력하고 보잘것 없는 자신을 탓하며 속수무책으로 쫓기여다니기만 하던 나비, 그런데 나비가 끝내는 결심을 품고 싸움의 길에 나서 뜻을 이루고야마는 이야기의 전 과정은 어린 독자들에게 전혀 생소한 생활분야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이렇게 아이들이 알고있는 지식, 그들이 체험한바 있는 생활력인 교훈을 어렵지 않게 제발시켜 작품이 의도하는 경지로 손쉽게 이끌어가는 거기에 평이성이 갖는 예술적 견인력이 있다.

이야기의 편이성은 또한 다음으로 오래동안 우리 인민들에게 친숙한것으로 향유되어온 인민동화의 요소들을 창작에 적극 리용하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곱편의 동화들중에서 《날개달린 룡마》, 《미련한 곰》, 《이마 벗어진 앵무새》, 《두 장군이 이야기》 등 작품들은 계기와 형상구조에서 옛이야기의 색조를 진하게 풍겨주고있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이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친숙해질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있는것이다.

때문에 옛이야기와 전설, 구전동화들에서 오랜 기간 그 견인력이 검증된 온갖 동화적요소들을 찾아내어 그를 현대의 미감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평이성은 평이성 그자체에 머무를것이 아니라 주제의 철학적심오성과 결부될 때에만 참다운 의의를 가진다.

철학적심오성을 떠난 평이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평이성문제를 그로록 말하는것은 어린이들에게 작품을 쉽게 리해시킬수 있다는 사

실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이한 이야기속에서도 심각한 문제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하는 그 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이다.

평이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주제의 철학적심오성을 얼마든지 담보하는것은 동화가 갖고있는 장끼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동화 《황금덩이와 강낭떡》은 지난날사회에서의 지주와 농민간의 심각한 계급적갈등관계를 통하여 생활리념과 생존방식이 서로 다른 두 계급의 본질적 차이를 펼쳐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 계급사회에서 지주와 농민과의 대립관계는 본질상 기본생산수단인 토지문제로 하여 시작되고 발전되며 궁극에는 첨예한 경지예로까지 치달아오른다.

이 과정에서 지주계급은 가장 악독한 착취자로, 랭혹한 현금계산만을 아는 수전노의 화신으로, 패륜패덕과 부정부패에 물젖은 렬등한 인간으로 나타나며 반대로 농민들은 정직성, 순박성, 근면성과 정의에 대한 열렬한 긍정의 정신, 부정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체현한 인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어찌하여 황금덩이를 불안은 지주와 강낭떡밖에 가진것이 없는 농민을 큰비에 잠긴 나무우에다 앉히여 놓고 (이 장면은 그야말로 동화적이다.)서로 대치시키고있는가?

지주와 농민간의 대립관계에서라면 의례히 언급될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밑에 깔아주고 나무우에 위태롭게 앉아 농민앞에서 그래도 거드름을 피우던 지주가 끝내는 금덩어리와 함께 물에 빠지고야 마는 평이로운 이야기를 기본으로 설정한것은 전적으로 작품이 의도하고있는 사상주제적요구에 따른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의 평이성과 주제의 철학적심오성은 별개의것으로 따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종자를 발견하고 주제와 사상의 대를 세우는 썩이전의 작업단계에서 서로 결합된 형태로 벌써 태어났음을 알수 있다.

사실에 있어서 황금덩이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강낭떡은 사람을 살릴수 있다는 문제점이 탐구되었을 때 이야기는 현재 작품에 설정된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는 결코 뻗어나갈수 없는것이다.

이야기의 평이성과 주제의 철학적심오성을 따로 떨어져있는 개념으로 리해하는데로부터 평이성에다 연지찍고 곤지찍는 식으로 심오한 문제성을 덧붙이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주제에다 철학적무게를 실어주기 위한 작가의 노력이 아무리 집요하다 하더라도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다.

평이한 이야기속에서 심오한 문제성을 안겨주려는 진지한 노력의 모범을 우리는 동화 《날개달린 룡마》에서도 찾아보게 된다.

이 동화는 신기한 힘을 주는 복채를 찾아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정신적 및 육체적 준비가 마련

되어야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고있다.

복지기할아버지의 늙음, 그의 뒤를 잇는 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 나타난 용감한 세 아들, 그런데 답은 있으나 말을 탈줄 몰라서 복채를 찾아오지 못하는 첫째와 반대로 슬기는 있으나 겁이 많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둘째, 뜻밖에도 지, 인, 용을 다 같이 겸비한 셋째가 나타나 끝내 소원을 성취함으로써 기쁨에 잠기는 마을사람들...

보는바와 같이 옛이야기풍이 다분히 안겨오는 이 동화는 아무에게나 쉽게 친숙해지리만큼 내용이 평이롭게 전개되고있다. 그런데 이 동화에게 주요인물들인 첫째와 둘째, 셋째의 인물선들에서 로출되는 세가지 사상적갈래 즉 슬기가 있어야 답이 은을 낼수 있다든가 또 아무리 슬기가 있어도 비겁할 때에는 그것이 소용없다든가 그리고 지, 인, 용을 다 같이 겸비해야 뜻을 이룰수 있다든가 하는 문제점들은 종전의 동화창작관습대로 한다면 각기 하나의 독자적인 작품의 주제로 설정될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 세가지 사상적갈래를 한 작품안에 몰밀어 넣은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지, 인, 용을 다 같이 겸비해야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 작품의 사상적핵을 형상적으로 더 돋구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인민동화들에서 나타난 약점의 하나가 적지 않은 경우 개념적인 사상의 제시에 머무르고 있는것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다시말하여 동시대인들의 지향과 념원을 일정하게 대변하고있는 경우에도 문제성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런 작품들은 독자들의 미학적요구에 충족을 주지 못했다.

인민동화들에서 즐겨 취급하던 선과 악에 대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작품들에서는 선 일반에 대한 레찬과 악 전반에 대한 막연한 징계의 사상을 보여주고있을 따름이다.

우에서 본 세가지 사상적갈래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하나의 교훈에 지나지 않으며 규정적인 사상에 머무르고있을뿐이다. 작품의 문제성 기능을 하자면 단마디교훈이나 추상적이고 개념화 된 사상적규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문학은 결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일하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어야 하는만큼 심오한 철학을 안고있는 하나의 완결된 사상을 들고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슬기가 없는 답의 무익성, 반대로 비겁성과 결부된 슬기의 불필요성은 지, 인, 용을 다 같이 겸비해야 한다는 사상을 형상적으로 부각하는 부차적인 주제로는 될수 있되 그 자체로써는 웅근 작품의 기본사상적대로는 설정될수 없다.

이야기의 평이성과 그속에서 철학적무게가 있는 심오한 주제를 천명해낸 귀중한 모범을 우리는 현대

동화창작에서 반드시 구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구경 동화의 인민성을 고수하는것으로 되는 동시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동화 문학의 미학인식적의의를 더욱 높여나가는것으로 된다.

△ 동화창작과 의인화수법

의인화는 모든 동화들에서 다 골고루 쓰이는것은 아니지만 일단 쓰이기만 하면 작품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의인화가 동화를 동화로 되게 하는 중요한 창작수법의 하나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우화 창작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그 사상적내용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의인화수법으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내용으로 교양적이고도 흥미있게 만드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아이들의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의인화의 수법으로 교양적이고도 흥미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의인화수법이 갖는 미학적 견인력을 심오하게 확증한 고전적정식화로 된다.

의인화수법은 오랜 기간 인민동화들에서도 써왔고 오늘의 현대동화창작에서도 쓰고있다. 이번 측면에서 보면 의인화수법의 력사는 곧 동화의 력사와 일치한다고도 말할수 있다.

의인화는 동화에서 즐겨쓰는 창작수법이기는 하지만 람용해서는 안된다.

의인화가 없는 동화작품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일곱편의 동화작품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하나는 동화창작에서 의인화가 적용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충분한 타당성과 계기의 안받침이 설정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의인화는 종자의 의도와 주제사상적지향성에 따라 담보된다. 즉 의인화는 창작의 이러저러한 공정들에서 작가의 주관에 의하여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종자작업을 하는 창작의 첫단계에서부터 벌써 조건지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종자를 파악하고 주제와 사상의 대를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조건지어진 의인화라야 그것은 작품에서 무리가 없게 되며 미학적의의를 획득하게 된다.

동화 《놀고먹던 꿀꿀이》나 《나비와 수탉》을 놓고보더라도 두 작품에 펼쳐진 의인화세계는 그것 없이는 달리는 될수 없는 그런 필수불가결의 존재로 설정되었기에 독자들에게 흥미와 감동을 준다.

《놀고먹던 꿀꿀이》에서 한평생 빈둥빈둥 놀고먹는것이 상팔자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자멸의 길뿐이라는 사상적핵을 작품의 종자로 쥐였을 때 현재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은 꿀꿀이를 둘러싼 의인화세계가 펼쳐진것은 지극히도 당연하다. 또한 《나비와 수탉》에서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도 약점을 찾고 공

격의 화살을 집중하면 얼마든지 타승할 수 있다는 사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조적인 나비와 수탉의 생활세계를 탐구해들어간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것이다.

우리는 간혹 동화작품을 읽으면서 다람쥐나 여우가 말을 하고 승냥이가 이웃마을을 침해하는 등의 흥미있는 동물세계를 보면서 도대체 작가가 무엇 때문에 하필 그런 생활을 펼쳐놓았을까 하고 의문을 느끼는 때가 있다.

이런데서 의인화는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동화의 격식을 갖추기 위한 치장물로 쓰이고있다.

의인화수법이 동화장작에서 매우 중요하다는것은 아무때나 망탕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동화창작에서 즐겨 쓰고 또 흔히 쓰면서도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꼭 필요한 때에 써야 하는것, 바로 이것이 의인화수법이라고 본다.

일곱편의 동화들은 동화창작에서 의인화를 쓰는 방법론을 가르쳐준 점에서도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되고있다.

동식물과 무생물을 인격화하여 의인화를 하는데서는 몇가지 동화적약속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동물 또는 무생물의 생태적특성을 고려하는것이다.

의인화에서 생태적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것은 동화적성격을 개성화하여 형상적의의를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아닌게아니라 승냥이를 착하고 어진 성격으로 그리기보다는 악하고 모진 인물로 처리하기가 한결 쉽고 효과적이며 하늘의 해님을 부정인물로 설정하기 보다는 긍정인물로 내세우기가 더 편리하다.

여것은 매 동식물과 무생물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랜 기간 체험하여온 루적된 감정과 평가가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 동식물과 무생물들의 생태적특성과 모양새는 한가지형태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가령 동물의 하나인 토끼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하더라도 이 짐승에게는 순하고 동작이 빠른 기질적인 특성이 있는가 하면 고전소설 《토끼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망한 측면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동식물과 무생물을 의인화하는 경우 이 모든 특성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일곱편의 동화들의 경우를 보면 작품이 의도하는 주제사상적지향성에 따라 여러가지 특성들중 어느 한 측면만이 중시되어 전면에 나서게 된다는것을 알 수 있다.

동화 《이마 벗어진 앵무새》에서는 앵무새에 대하여 느끼는 사람들의 루적된 감정들중에서 우심한 교조주의적특성만이 특별히 강조되고있다. 앵무새한테서 그밖에 찾아볼수 있는 다른 특성들은 모두

론의밖에 나서고있다.

이렇게 앵무새의 여러가지 특성들중에서 모방하는 측면만이 특별히 강조되고있는것은 남의 말을 지각없이 따라외우는 새가 결코 평리한 새가 아니라는 기본문제의 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동화 《미련한 곰》, 《나비와 수탉》, 《돌고먹던 꿀꿀이》들에서도 곰과 수탉, 나비 그리고 여러가지 짐짐승들은 자기들의 생태적특성가운데서 종자의 요구에 맞는 어느 한가지에 의하여 성격이 규정화되고있다.

만일 동화에서도 소설에서와 같이 성격적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들이 갖고있는 모든 생태적 특성들을 차례로 보여준다면 사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 성격적과판박에 가져올것이 없다. 성격작업에서 이런 취사선택원칙이 준수되면 동화 《돌고먹던 꿀꿀이》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무리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게 되고 모든것이 석연하게 된다.

종자의 요구와 주제사상적지향성에 따라 인격화해야 할 대상의 여러가지 생태적특성, 미학적표상, 유용성의 측면 등의 특징들중해서 어느 한 측면이 중시되고 전면에 나서게 되는 동화적약속을 창작 실천에서 옹계 준수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것은 구경 동화적형상의 명료성, 집중성, 간결성을 담보하게 되며 그만큼 작품의 미학인식적의의도 높일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동화에서의 의인화는 작가의 주관에 따라 아무데서나 쓸수 있는 치장물이 아니라 철저히 작품의 생리에 기초하여 생겨나는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생리가 의인화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동화 《두 장군이 이야기》나 《황금덩이와 강낭떡》의 경우에서처럼 구태여 의인화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의인화의 진실성과 형상적효과를 위해서는 동식물과 무생물들의 생태적특성, 미학적표상, 유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반드시 종자와 주제, 사상의 요구에 따라 여러 특성들중 어느 하나에 력점을 찍는 취사선택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작품의 생리가 요구하는 다른 하나의 합법칙적현상이다.

△ 동화세계의 다양한 양상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과 생활이 다양한것만큼 현실을 반영하는 예술도 다양하게 되여야 하며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있는 구체적인 존재인것만큼 그것을 반영하는 예술도 구체적인 특색이 있어야 한다.》

양상의 다양성을 실현하는것은 문학운동의 본성

적요구이며 이것은 판박이작품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동화인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화문학 역시 천태만상을 이루는 생활의 이모저모를 보여주어야 하는만큼 작품마다가 절대로 똑같은 양상을 띠지 않는다.

일곱권의 동화들이 보여주는 실천적교훈은 작가들이 새로운 양상을 탐구하기 위한 립장에 확고히 서서 창작에 립할 때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것이다.

인물관계의 측면에서만 놓고보더라도 일곱권의 동화들은 서로 각이한 양상을 띠고있다. 즉

-인간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동화세계를 펼쳐보인것.

동화 《두 장군이야기》, 《황금덩이와 강낭떡》
-의인화된 동물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동화세계를 펼쳐보인것.

동화 《놀고먹던 꿀꿀이》, 《나비와 수탉》
-인간과 인격화된 동물과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동화세계를 펼쳐보인것.

● 인간과 인격화된 동물간에 교감이 있는것

동화 《미련한 곰》

● 인간과 인격화된 동물간에 교감이 없는것.

동화 《이마 벗어진 앵무새》, 《날개 달린 물마》

이렇게 각이한 형태의 인물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이것 역시 작품의 생리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볼수 있다. 다시말하여 주관에 의하여 이렇게도 될수 있고 저렇게도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종자의 요구와 주제, 사상의 지향성에 따라 결정되는것이다.

가령 동화 《황금덩이와 강낭떡》을 놓고 본다면 더라도 이 작품에서는 계급적원썬인 지주놈의 더러운 치부욕과 수전노적근성이 정직한 농민의 형상과 대치되고있는만큼 (여기에 갑돌이의 비참한 최후장면이 설정됨으로써 두 인물간의 관계는 더욱 심각한 계급관계로 되고있다.)인간이 아닌 인격화된 동식물만으로 적대관계를 설정해놓는다면 이야기전반을 희화화할수 있는 우려가 생기게 된다.

때문에 작품의 생리를 떠나 인물관계를 미리 고안해 놓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간혹 동화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작품이 처하고있는 구체적실정을 떠나서 어느방법이 좋고 어느 방법은 허약성이 있다는 식으로 속단하는 경향이 나타나는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는것도 다 일면적으로 고찰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동화작법의 견지에서 볼때 매 수법, 매 방법들에는 일정한 장끼와 허약성이 있는것만은 사실이

다. 순수 인간들의 세계를 펼쳐보이는 동화들에는 철학적있는 심오한 주제를 용이하게 심을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자칫하면 작품을 동화가 아니라 이야기 자체에 머무르게 할수 있는 허약성이 있으며 인간과 동물의 세계가 서로 혼탁 되어있는 작품들에는 인간의 위치를 동물의 위치와 같게 하거나 또는 낮추어 놓음으로써 물의를 일으킬수 있는 제약성이 있다. (동물은 인격화되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동물의 외피를 쓰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절대적인것이 아니다. 장끼는 살리고 부족점은 퇴치하면 되는것이다.

동화 《두 장군이야기》, 《황금덩이와 강낭떡》에서 우리는 작품의 요소요소들에서 작품을 다룬아닌 동화로 되게 하기 위한 제반 수법, 수단들의 능숙한 활용에서 참으로 귀중한 모범을 따라배우게 된다.

두 장군의 재주겨루기 장면에서 날아가는 화살을 뒤따라가서 칼과 쇠몽둥이로 동강내도록 한것이라든가 큰물이 난 마을에서 지주와 농민 단 두 사람만을 나무에 오르게 한 동화적설정, 그리고 농민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지주놈이 차츰 배가 고파 오자 황금덩이를 내밀며 강낭떡과 바꾸자고 애걸 복결하는 장면을 내놓은것은 참으로 귀중한 창작적성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동화 《미련한 곰》과 《이마 벗어진 앵무새》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간과 동물세계를 같이 등장시키는 경우에 작품의 생리에 따라 한쪽에서는 교감을 시키고 다른쪽에서는 교감을 시키지 않은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배워야 한다.

양상의 다양성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생활을 동화적으로 파악하는 첫단계에서부터 벌써 조건지어 지는것이지만 동화창작의 모든 공간들에서 반드시 시도되어야 한다.

우선 당면하게는 의인화대상의 폭을 넓히고 특색있는 환상을 탐구하며 그리고 구성을 독특하게 짜고 개성적인 문제를 확립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현대동화창작을 통하여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이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일곱권의 동화들이 거둔 거대한 성과들가운데서 그 일부만을 분석하였다.

이 고귀한 성과와 모범들을 통하여 우리는 현대동화가 어떤 모양과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측면에서 명백한 인식을 가질수 있다.

우리 동화작가들은 이 성과와 모범을 지침으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할 훌륭한 동화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할것이다.

래일의 기슭으로

김송남

여기는 아직 도시가 아니다...

끊기듯

이어지듯

실개천 한오리

잡초 무성한 기슭을 소리없이 감돌뿐

예대로 푸른 하늘

변함없이 맑은 바람

철길마저 휘우듬히 나뭇대로 뻗었는데

오늘따라 울리는 긴 기적소리

어이하여 이다지도 가슴 흔드는가

단천을 앞에 둔 허허벌판에

때아닌 열차가 벗어나서누나

이고장이 처음인듯

승강구 가득히 나와섰던 지원자들

풀색배낭들이 쏟아져내린다...

전변은 벌써 시작되었구나

그 무슨 즐거운 환영처럼

일어서고 사라지는

측량기 하얀 표식대들너머

무한궤도 땅을 구르며 오는

굴착기 긴팔들너머

바라보면 저 산기슭엔

어버이수령님 걸으신 자옥

숲푸르고

하늘푸른 이곳으로

신단천부지를 또다시 옮겨주실 때

설레이던 나무숲 오늘 더욱 설레이고

도시 복판에는 강물이 흘러야 한다고

멀리 물줄기를 끌어넣더라도

이 내물을 넓혀주자고

벽찬 흐름을 여기 불러주시던

그 말쑥 바람결에 그냥 실려오는듯

한뼘 조용하던 이 흐름우에

처음으로 새 도시의 기쁨을 엿어보실 때

심중에 그리시던 그날의 해빛이

천만가닥 여기에 벌써 드리웠는가

나의 생각속에서도 흘러가누나

층층이 뻗어갈 유보도우로

가볍게 옮겨가는 발걸음들이

바다로 뻗어간 대통로 지나

불밝은 현관문으로 굴러들어가는

유모차의 작은 고무바퀴가...

마그네샤를 굽고

쇠물을 끓이는

보람찬 로동이 더 즐거우라고

행복우에 또 엿어주시는

이 행복을 싣고

흐름을 넓혀갈 로동천, 로동천...

여기선 벌써 새 도시가 숨쉬누나

하늘의 별무리처럼

물우해 아롱질 억만창문들

생활의 무수한 새 불빛을 부르며...

세월따라 더해지는

수령님 사랑 안고

당의 은정 안고

높은 지붕들은 솟아오르리

솟아올라 신기루처럼 이 기슭에 비끼고

솟아올라 행복의 탑으로 저 하늘에 떨치리

흐르자, 어서 소리치며 굽이치며

이 땅의 기쁨처럼 깊어지고 넓어질

너의 흐름따라 우리는 가리

더욱 휘황한

래일의 기슭으로!

건설장으로 가는 길에는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싸늘한 바람이 일 때마다 눈가루가 날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목에 감겨돌았다.

연공작업반장 리부길령감은 발등에 뿌리우는 눈가루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현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자신에 대한 불만을 금할수 없었다.

어쨌든 오늘은 《지계통》조립문제에 대하여 결심을 내려야 할것이다. 만약 오늘까지도 용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작업반원들모두가 실망하고말것이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소에서는 부득불 계획대로 《지계통》조립을 종전방법으로 하자고 할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끝시간도 없었다.

《아바이, 안녕하슈.》 등뒤에서 들린 절절한 말소리가 옆으로 휩 지나며 앞에서 울리었다. 자전거우에 덩실 올라앉아가던 후방부지도원이었다. 그는 늘술에 취한것처럼 얼굴이 빨갛다고 하여 《잔치집과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다. 《과방》은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자전거를 멈춰세우더니 한쪽 발을 땅우에 내려놓고 령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빨긴 얼굴에 웃음이 가득 담겨있었다.

《자넨가...》 령감은 언제나 무사태평하게 웃고있는 그가 부러웠다. 그는 령감이 다가오자 한쪽 발로 땅을 슬슬 밀며 령감과 나란히 움직여갔다.

《담판이 잘됐는가요?》

《담판이라니?...》

《기사장말이우다. 어제 오후 켜를 했다면서요... 그래 오늘은 들어올립니까? 어쨌든 또한번 통장훈을 부르슈. 내 한턱 내지오다. 허허허.》

할 말을 다 하였는지 그는 벌써 웃으며 자전거발 디디개를 슬며시 밟았다.

빨긴 얼굴은 멀어지고 자전거뒤바퀴밑에서는 토끼꼬리같은 눈가루가 푹푹 날렸다.

《통장훈이라 ...》 령감은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어제 오후 작업반휴게실에 찾아온 기사장을 만나던 일이 생각되었다.

...엷은 저녁 해빛이 흘러드는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떠돌았었다.

두사람 다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잘 알았다. 그것은 《지계통》에 대한 생각이었다.

《지계통》이란 5개지구전선건설의 중요목표의 하나인 3강철직장의 한 생산공정이다. 최근 건설장에서는 령감내 작업반이 맡은 《지계통》조립문제를 두고 치열한 론쟁이 벌어졌다. 론쟁인즉은 십여대의

크고 작은 설비들로 이루어진 《지계통》을 땅우에서 조립하여 통채로 들어올리자는 주장과 그것은 위험한 일이니 시공설계대로 하나하나 들어 올려놓고 조립하자는 의견과의 《싸움》이었다. 만약 통채로 들어올린다면 공사를 계획된 날자보다 보름은 앞당길수 있었다. 보름이라는 수자를 두고 누구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령감이었다. 이미 새로운 조립안의 과학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수자들이 검토되고 필요한 설비들도 확보되었지만 조립의 담당자이며 이곳 제철기지에서 40년간 연공으로 살아온 령감이 아직 침묵을 지키고있는것이였다.

과학적인 수자들과 위력한 설비들도 역시 심장이 움직여야 의의있는것이다.

그러기에 기사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령감의 대답을 기다리고있었다.

령감은 의자에 붙은듯 움직이지 않았고 기사장은 발자국을 세여보듯 방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멀리서 구내선으로 들어오는 기관차의 쇠뿔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건설장으로 보내오는 자재와 설비들이 실려올것이다.

《그때 용광로건설장에 저기 저 대형기중기를 통채로 끌어다 새운것도 아바이가 아닙니까.》

기사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령감은 그가 왜 갑자기 그 말을 하는게 뻔뻔하였다.

그때란 10년전 사회주의대전설전투가 벌어졌던 1974년이였다.

기사장은 지금 생각해보아도 10리가 넘는 제철소 구내로 키가 하늘에 닿는 저런 어마어마한 《거물》을 통채로 끌어다 세운것이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의문과 기대가 담긴 눈으로 령감을 바라보고있었다.

령감은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을 마주보기가 괴로웠다.

책상우에 놓인 담배갑을 집는 손이 떨렸다. 기사장과 자리를 같이하여 벌써 넉대째 피우는 담배였다.

《하긴 그때와는 다르지요.》

기사장이 타협이나 하듯 말하며 령감 앞자리에 와 앉았다.

《다르다니?...》 범의 수염같은 령감의 기다란 눈썹이 꿈틀 움직였다.

《그럼 기사장도 내가 지금 늙어서 대답을 못한다고 보시우.》

령감의 말소리는 떨렸다. 광대뼈가 툭 불거진 넉적한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비졌다. 앓은 키도 더 줄어들고 어깨와 등도 더 휘어든듯싶었다.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전...》

당황한 기사장이 서둘러 말했다. 언제나 견습공 그 시절처럼 평감을 존대하는 기사장이었다. 평감은 두눈을 꼭 감고있었다. 방안에는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사람의 머리위로 파란 담배연기가 떠올라 그 무엇을 주저하듯 조심스럽게 떠 돌다 차츰 흰 색깔을 띠며 넓게 흩어져갔다.

잠시후 자리에서 일어난 기사장은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나서 《어쨌든 전 반장아바이가 꼭 해내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었다.

기사장이 돌아간후 평감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다.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자체검토였다.

(내가 지금 무엇때문에 이렇게 주저하고있는가. 왜 그들의 기대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가. 지금 온 건설장이 나와 우리 작업반을 지켜보고있지 않는가. 그리고 새로운 조립방법은 과학적으로도 담보가 되어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아니, 아니다.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무엇인가 부족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저하고있다. 그렇다. 그 부족점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평감은 밤새껏 모대졌었다. 그러나 부족점은 지금이 순간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하였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졌다.

온 밤 잠들지 못하고 뒤채이다가 아침상마저 그대로 물리고나섰다. 그러는 평감을 로친은 근심에 싸여 바래였었다.

《웬간하문 하루쯤 몸조릴 하시구려... 밥곽을 하나 더 넣었수다.》

평감의 가방을 품에 안고 문밖까지 따라나서는 로친의 말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날이 갈수록 평감의 건강을 두고 마음을 놓지 못하는 로친이었다. 잔주름이 그물같이 폭 덮인 로친의 자그마한 얼굴을 들여다보던 평감은 새삼스레 《늙었구 나.》 하는 생각이 들자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섰다.

(늙었지, 그렇다고 마음이야...)

평감은 머리를 돌려 제철소구내에 서있는 대형기중기를 바라보았다. 기중기는 끄떡없이 서있었다. 기중기뿐이 아니다.

용광로들과 해탄로들, 열간압연직장과 평간압연직장... 평감의 노력과 땀이 바쳐진 그 모든것들이 위용을 떨치며 서있었다. 평감은 가슴이 찢릿하였다. 밀물처럼 밀려드는것이 있었다. 끓어번지는 심장을 안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어쨌든 전 반장아바이가 꼭 해내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던 기사장도 바로 그때를 잊지 않고 있기에 그렇게 말했을것이였다.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 10년전 대형기중기를 옮길 때에는 과학적인 담보를 받기전에 심장이 먼저 뛰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은... 무엇 때문일

가?... 내가 정말 늙었는가?... 그럴수 없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빠드득 소리가 울렸다. 건설장이 가까와지면서 길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문쪽에서는 벌써 악대의 나팔소리와 북소리, 경제선동을 위해 나온 학생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있었다. 출근시간마다 정문에서 가끔 벌어지는 경제선동이 시작된것이다. 귀에 익은 사업소 현장방송원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격동된 방송원은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지금 우리 건설장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맙시다.》라고 웨치고있었다. 그 말에 호응하듯 나팔소리와 노래소리가 커지며 정문주변에 꽃바다가 펼쳐졌다. 사람들의 걸음도 더 빨라진듯싶었다. 그들속에 끼여 정문쪽으로 다가가던 평감은 나무줄기에 붙은 결가지처럼 큰 길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간 가느다란 소로길어구에서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정문으로 갈 자신이 없었다. 《지계통》조립에 대한 대답을 바라는 간절한 눈길들을 대하기가 두려웠다.

어떻게 할것인가?...

잠시 망설이던 평감은 짧은 한숨을 한번 쉼 내쉬고 옆으로 돌아 큰길에서 내려섰다. 눈에 덮여 희미하게 보이는 소로길에는 발자욱 하나 나있지 않았다.

정문쪽에서 간간히 들려오던 소음도 똑 끊어지고 사위는 호젓하였다. 갑자기 딴 세상에 들어선것 같았다. 길은 몹시 미끄러웠다. 자칫하면 넘어 쳐 궁둥방아를 찰을것 같았다.

(만약 《지계통》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립하다 실패하게 되면... 아니다. 그렇게는 안될게다. 그러나 그걸 누가 아는가... 수십톤의 무게와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하나의 생산계통을 통채로 들어올리는 작업은 정확한 계산수치뿐아니라 거기에 참 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의 일치를 요구한다. 만약 한사람의 호흡이 달라도 일은 수포로 돌아갈것이 다.)

평감은 저도 모르게 저멀리 서있는 기중기를 돌아보았다. 기중기는 변함없이 서있었다. 무엇인가 평감에게 이야기해주는듯싶었다.

(그렇다. 심중해야 한다.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 이건 로파십이 아니다.》

《내가 늙어서 대답을 못한다구... 흥.》

평감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애썼다.)

그래도 가슴속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디선가 《체, 또 생각해보잖니까. 정말 래일이 없으면 못 살겠군요.》라는 비난이 방금 들려오는듯싶었다. 숨이 가빠졌다.

《허억.》

순간 평감은 몸의 중심을 잃으며 한쪽 손을 공중에 대고 허우적거렸다. 앞으로 내짚는 오른쪽 발이 미끄러진것이였다. 가까스로 균형을 잡은 평감은 안

도의 숨을 내쉬었다. 등골이 서늘하였다.

《쯔쯔…》 눈두덩우에까지 폭 눌러졌던 털모자를 밀어올리자 이마가 선명하였다.

이때였다.

건뚫 스치는바람에 신음소리 비슷한 흐느낌소리가 실려왔다. 령감은 두귀를 바짝 강구었다. 틀림없는 울음소리였다.

울음소리는 길옆에 세워놓은 콘크리트벽체뒤에서났다. 이상한 생각에 그쪽으로 슬금슬금 다가 간 령감은 두눈이 둥그라졌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조그마한 처녀애가 훌쩍거리며 서있었다.

빨간 다우다지솜옷에 눈덩이 같은 털수건, 무릎위로 깡뚱하게 올라간 곤색치마.

처녀애는 열살이 못돼보였다. 고개를 꼭 숙이고 훌쩍거리던 처녀애는 령감이 다가가자 울음소리를 딱 끊었다. 숨도 쉬는것 같지 않았다.

《넌 누구냐?》

령감은 처녀애의 어깨우에 한손을 올려놓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어디서 온 애냐?》 역시 대답이 없었다. 오히려 한쪽으로 몸을 돌려 령감의 손에서 슬며시 벗어났다.

《하, 이것봐라…》 분명 무슨 곡절이 있음이 틀림없었다. 《학생이 이렇게 고집을 쓰면 되나. 할아버지가 묻는데…》

령감은 무릎을 꿇고앉았다. 옆구리에 끼고있던 가방을 눈우에 내려놓고 처녀애의 두손을 꼭 잡아 앞으로 돌려세웠다. 그제야 처녀애는 령감을 할것 바라보고 잠자코 서있었다.

눈물에 젖은 보동보동한 두볼과 오흑 일어난 코끝은 얼어서 빨강게 되어있었다. 아래 눈시울우에서 파들과들 펴고있는 까만 속눈썹에는 아직도 축축히 물기가 돌았다.

《너 왜 우니… 누구와 싸웠니?》

《아니요.》

《그럼… 여긴 왜 왔느냐?》

《저…》 반쯤 열리던 입술이 다시 꼭 다물리었다.

《일없다. 말해라. 엄마를 찾아왔니?》

《아니요, 저…》 처녀애는 머리를 더 깊이 숙이고 몸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더니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말했다.

《연공아저씨들을 찾아왔어요.》

《연공들을?…》

《예,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오늘 연공아저씨들이 큰 <공장>을 들어올린대요.》 처녀애는 입술을 감빤았다.

령감은 놀랐다. 뜻밖이었다. 가슴이 후두둑 뛰었

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느냐?》

《난 꽃이 없어요. 아직 다 피우지 못했어요.》

처녀애의 눈에서는 이슬같은 눈물방울이 또 하나 도르르 굴러내렸다.

《할아버지, 꽃들은 정말 땡땡이예요. 건설을 하던 날부터 키우다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구 빨리 피라고 물이랑 자꾸 주었는데도… 흠.》

처녀애는 풀색 병어리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서럽게 울었다.

령감은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콧 치밀어 올랐다.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알수가 없었다. 다만 두팔을 벌리며 처녀애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어느 사이에 꺼칠꺼칠한 두볼이 축축히 젖어들며 시려났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번개의 섬광 같은것이 온몸을 불태웠다. 그것은 젊음이었다.

소녀가 안겨준 아니 당이, 조국이, 인민이 안겨준 영원한 젊음이었다.

《애야, 울지 말아. 고맙다… 고맙다.》

령감은 떨리는 소리로 속삭였다. 저 멀리 기중기가 보였다. 소녀는 말뚱말뚱한 눈으로 령감을 올려다보고있었다.

순간 령감은 무엇으로든지 소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애야, 네 꽃이 언제 피느냐?… 내가 그 꽃을 받아 주마.》

《정말이예요?… 래일은 펴요. 그런데 할아버진 연공이나요?》

《그럼, 내가 바로 선생님이 말씀한 그 연공이다.》

《야!》

《약속하자. 래일 정문으로 오너라.》

소녀는 쿵쿵 뛰었다. 그러는 소녀를 보며 령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오늘 기여이 그 <공장>을 들어올리고 네 꽃을 받아오마.》 라고.

《자, 가자 출지?》 령감은 소녀의 손목을 잡고 큰 길에 다시 나섰다. 건설장의 힘찬 동음이 그들을 휩쌌다.

소녀는 저만큼 걸어갔다. 그러다가 령감을 향해 돌아섰다. 건설장 구내에 퍼진 아침해살이 소녀의 맑고 둥그란 얼굴에 함뿔 비쳐졌다. 소녀는 방긋 웃었다. 령감은 보았다. 눈부신 그 웃음에는 작업반원들의 희망과 기사장의 기대, 그리고 문밖까지 따라나섰던 로친의 간절한 소원이 모두 담겨져있었다.

령감은 소녀를 향해 손을 들었다.

찬란한 금빛해살을 받으며 서있는 소녀, 소녀는 한송이의 꽃이었다.

해빛아래 별빛아래

리금녀

금방 색칠을 한듯
차창유리를 넣은듯
맑은 우유빛 구급차 한대
제련소건설장에 서있네

새벽노을에 물들며
달빛에 잠기며
건설장엔 교대있어도
언제나 한모습 한마음
전투원들을 맞고보내는
자동차

건설자들모두
펄펄 나는 젊은이들이기에
철참에도 피가 끓어
씨름판을 벌리고야
직성이 풀리건만

손톱 하나 다칠세라
병이 들세라
건설장 구석구석
당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구급차의 밝은 창문
다심한 어머니의 눈빛이런가

위훈에 찬 3선광장에서
함흥지구전선
제련소로 달려오니
어느새 먼저 와 반겨주어

구급차 먼길 함께 가는
살뜰한 길동무런가

혁신자 축하모임때
받은 꽃다발
누가 몰래 차지붕에 얹어주어
차이름 그날부터
꽃자동차

꽃자동차
아슬한 철골우에서 곱어보면
수리개들 마음 포근히 감싸주고
굴착장에서 바라보면
달아야 할 기슭으로 앞서가며 불러주나니

비오나 눈오나 바람이 부나
구급차 꽃자동차
교대없는 보초인양
들끓는 전투장 길섶에 서있어도
차는 언제나 비어있어도

해빛아래
별빛아래
윤기나는 구급차
크지 않은 차안에
아, 하늘땅에 넘쳐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크나큰 은정이
다 담겨있네

불라는 심장들

리기창

창조의 세찬 불꽃속에 낮과 밤이 따로없이 몰라보게 우줄우줄 킁킁하는 단천제련소건설장의 무수한 창조물들은 푸릿한 새벽빛을 배경으로 마치 신기루처럼 우뚝이 자태를 드러냈다.

들끓는 건설장을 찾아다니며 돌림감기 예방주사를 놓아주던 너의사는 부채직장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쌀쌀한 새벽바람에 그의 이마에 드리운 머리카락이 흩날리었다. 너의사의 단아하고 인정미가 흐르는 얼굴이며 부드러운 정찬 눈매는 다림발이 선 눈부신 위생복에 어울려 언제보나 사람들의 마음속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듯싶었다.

의대를 졸업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에까지 오시여 펼쳐주신 함흥지구건설의 주요대상이며 150만톤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단천제련소건설장으로 배치받아 왔었다. 그는 이곳 진료소의 내과의사로 건설자들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었다.

지금 그는 날을 따라 몰라보게 달라지는 건설장의 모습을 경이에 찬 눈길로 둘러보며 걸었다. 자기가 배치받아 올 때는 모래불만 날리던 아득한 벌에 오늘은 수많은 건물들이 승벽내기로 일떠서고 있다. 그것도 그럴것이 총 3단계중에서 1단계공사가 벌어지는 현재만 하여도 1만평방미터의 건평에 달하는 조액직장과 200여미터의 길이를 가진 전해직장이며 배소로를 비롯하여 무려 40여개를 헤아리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끝간데없이 펼쳐지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련소들을 잘 정비보강하고 제련실수율을 높여 지금 있는 제련소들에서 유색금속생산을 적극 늘이며 단천제련소 건설을 다그쳐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산악처럼 일떠선 건설자들은 이 새벽에도 충성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었다. 용접불꽃, 둔중한 함마소리, 미끼샤, 기중기, 엑쓰카와팔, 굴착기 등 대기계군단의 우렁찬 동음은 마치 교향곡처럼 너의사에게 느껴지는것이였다.

(저 수많은 창조물속에 나의 노력은 어떻게 바쳐지는것인가? 건설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각근히 보살펴주는것일테지. 그럴수록 건설자들은 한 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한 몸과 왕성한 힘으로 공사에 투신할것이라!)

너의사는 이렇게 생각하며 건설장을 지나 부채직장 선전실앞으로 다가갔다.

선전실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모임이 있을가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때마침 통통하게 생긴 리분녀아주머니가 락아소에 아기를 맡기고 혈떡거리며 달려왔다.

《무슨 모임을 해요?》

《의사선생이 어떻게? 글썄 굴뚝쌓기 돌격대로 선출할 동무들의 명단을 발표한다고요.》 하고 분녀아주머니는 선전실로 바람처럼 사라진다.

순간 너의사의 머리에는 이틀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진료소에 숨가빠 찾아온 부채직장장이 그에게 직장 동무들의 병력서를 보여달라는것이였다.

너의사가 무슨 일때문이나고 물었더니 직장장은 너부족한 얼굴에 희떠운 웃음발을 지으며 자랑하는 것이였다.

《의사선생, 아버지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제련소굴뚝쌓기를 위해 유능한 전문가들과 귀중한 설비와 자재를 보내주셨는데 글썄 영예로운 이 과업을 우리 직장이 맡게 되었던 말이요.》

《그런데 병력서가 왜 필요해요?》

너의사는 의문어린 눈길을 들었다.

《글썄 직경 수미터에 높이가 백수십미터나 되는 굴뚝을 쌓자면 건강체들로 돌격대를 무어야 고도에서 끄떡없이 일할수 있을거란말이요. 그러니 의사선생과 합의를 봐야겠소.》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사는 간호원을 시켜 병력서를 가져다가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러나 대부분 동무들이 진료소에 한번도 찾아온적이 없는 건강체들이었던것이다.

《이런 동무들은 건강체들일테니까 고도 작업을 시켜도 무방하겠지요?》 직장장이 이렇게 물었을 때 너의사는 도리를 저었다.

《아니예요. 질병은 없더라도 멀미를 심하게 하거나 연세가 많은분들은 혈압관계로 제외시켜야 해요. 그리고 녀성들도…》

《웁소, 그런데 벌써부터 저마다 참가하겠다고 야단들이니 난처한데…》

직장장이 더수기를 곱으며 중얼거렸다.

《저한테 미시라요. 의사와 합의를 보고 뽑았다고요.》

너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귀뜸했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명단을 발표한다지 않는가!

너의사는 호기심에 이끌려 선전실뒤문으로 조심히 들어가서 뒤에 앉았다.

직장장이 돌격대원의 이름들을 불렀다.
《…안성덕동무, 윤성철동무, 리덕동무, 유명환동무, 박화정동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이제나저제나 나오는가 하여 저저마다 가슴을 조이며 귀를 강구었다.

지명받은 동무들은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채 힘차게 대답하며 대렬앞으로 달려나가 나란히 섰다. 그들은 비록 굴뚝건설에 처음 참가하지만 사업소적으로 꼽히는 혁신자들일뿐아니라 건장하고 릉름한 체구에 온몸에 패기와 열정이 차넘치는 미더운 동무들이었다.

이윽고 직장장동무가 돌격대원명단을 다 불렀을 때 좌석에는 최아바이를 비롯한 몇명의 나이많은 축들과 리분녀아주머니와 애기어머니를 그리고 심숙동무와 애어린 처녀들, 그밖의 한두명의 청년들만 성쌍고 남은 돌처럼 남게 되었다.

《저의 이름은 왜 없습니까?》

《우린 무슨 일을 하라는거요?》

《우린 굴뚝쌓기돌격대원의 자격이 없다는거냐요?》

그들은 직장장에게 앞을 다투어 소나기 질문을 퍼부어댔다. 중구난방으로 불부은 소리를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직장장은 자못 엄숙한 얼굴로 대답하였다.

《동무들, 달리 생각마오. 동무들도 알다싶이 굴뚝공사는 다른 일과 달리 앞으로 백수십메터의 고도에서 작업하게 되는것만큼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담이 큰 동무들로 뽑았소. 이런 조건에서 섭섭할테지만 년세많은 아바이들과 부녀자들 그리고 혈압이 높거나 고도작업에 정신적으로든가 육체적으로 부담을 느낄 동무들은 일체 제외한거요.》

그 말에 사람들은 벌집끓듯 웅성거렸다. 자기들도 능히 극복할 용기가 있을뿐아니라 굴뚝우는 물론 구름장우에까지 올라갈 자신이 있다는것이였다.

《정 소원이라면 진료소에 가서 의사선생의 확인서를 받아오시오!》

직장장이 이렇게 엄포를 놓자 그들은 진료소는 왜 끓어들어느냐고 웅성거렸다.

이때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무슨 이유로 제외시켰습니까?》

사람들의 눈길은 부채살모이듯 그쪽으로 쏠렸다. 녀의사도 눈길을 돌렸다.

눈이 억식하고 몸매가 다부진 철웅동무였다.

《전 보다싶이 질병도 없고 고뿔 한번 앓아보지 못한 건강체란말입니다.》

철웅동무는 커다란 주먹을 흔들며 보이며 불부은 소리를 했다.

그러자 직장장은 너부죽한 얼굴에 느슨한 웃음발을 지으며 기억을 령겨주듯 말했다.

《동무야 멀미를 잘 타지 않소. 생각날테지…》

그 말에 사람들은 짜그르 웃음보를 터뜨렸으나 철

웅동무는 말문이 막힌듯 붉어진- 얼굴을 떨구었다.

직장장의 말은 거짓이 아니였다.

언젠가 직장장에서 이동작업을 갈 때 철웅동무는 차멀미로 하여 온종일 입에 음식도 대지 못한채 신고한적이 있으며 또 한번은 부채나르기에서 남다른 혁신을 창조한 기증기운전공처녀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기 위해 아찔한 기증기 운전칸에 올라갔다가 도리어 꽃다발대신 심한 멀미로 하여 깨끗치 못한것을 쏟아놓고 망신만 당했던것이였다.

이런 일은 상기시키는 직장장의 말에 철웅은 입안에 소리로 웅얼거렸다.

《제길 빌어먹을 멀미때문에 밑에서 애기어머니들과 부채나 만들란말이요?》

그의 얼굴은 수수떡처럼 붉어졌다.

이때 직장장이 굴뚝 쌓기에 망라된 동무들은 기초공사장으로 나가자고 하자 모두 문밖으로 쏠어 나갔다.

철웅이며 최아바이를 비롯한 《락오자》들은 그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시무룩이 앉아있었다.

《마침 저기 의사선생이 오셨는데 썸을 하자요.》

리분녀아주머니가 녀의사를 발견하고 입을 열자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몰려왔다.

혈압을 재보라고 소매를 걷어붙이는 구레나루가 거뒀한 최아바이, 녀성들이라고 고도작업을 못한다는 의학적인규정이 있느냐고 따지는 분녀와 심숙이를 비롯한 나어린 처녀들…

벌집끓듯 물방으로 들이대는 그들의 질문에 녀의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철웅이가 사람들의 어깨성을 비집고 녀의사의 앞으로 다가서며 통명스럽게 묻는것이였다.

《선생님, 멀미를 방지하는 약은 없습니까?》

녀의사는 터지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대답하였다.

《그런 약은 특별히 없지만 멀미엔 사과나 인단같은게 효과가 좀 있어요.》

철웅은 그런건 이미 먹어 보았으나 그닥 효과가 없더라면서 다른 약을 요구하였다.

의사는 도리를 흔들며 난처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럴적에 최아바이가 술많은 장미를 쫓긋거리며 능청스럽게 귀뽀하는것이였다.

《여보게 내 한가지 특효법을 대줄가?》

뜻하지 않은 호의에 귀가 솔깃해진 철웅은 바싹 그한테 다가섰다.

《거, 배꼽에다 반찬고를 붙이면 비행길 타두 끄떡없다네.》

그 말에 처녀들이 배를 그리쥐고 깔깔 웃어댔다.

《모를말입니다.》

철웅이의 시답지 않은 대꾸에 최아바이는 한술 더떴다.

《글쎄 해보라니까. 이젠 우리 로친네한테 실험해서 확증한거네. 멀미를 해서 기차도 못하던 로친네가 그걸 붙이구 유희장의 회전그네며 관성차를 타구 두 끄떡없었다니까...》

최아바이의 그럴듯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진실감있게 들렸다.

하기에 철웅이는 의사한테 떡심줄게 반찬고를 요구했다.

《의학서적에서 그런것은 본 일이 없어요.》

녀의사는 단마디로 거절했다.

《한번 실험삼아 해봅시다!》

철웅이가 다시 고집스럽게 청하는바람에 녀의사는 하는 수없이 위생가방을 열고 반찬고를 내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냥히 타일렸다.

《꼭 굴뚝쌓기를 해야만 되나요?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하세요. 이젠 다 동무들의 건강을 위해서 취한 조치예요.》

이렇게 설복하고 돌아서 나왔으나 녀의사의 마음한구석은 개운치 못했다.

굴뚝쌓기에 기어이 참가하겠노라고 떼거리를 쓰는 그들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밝히는것이였다.

정말 불같은 사람들이였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불타는 소원을 풀어줄지 안타까웠다. 그러나 어버이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자기를 것처럼 귀중한 건설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맡기시여 이곳으로 파견해주시였다고 생각할 때 의사의 기본임무를 지켜야 하리라고 마음을 다잡았던것이다.

그로부터 며칠후였다.

의사는 철웅동무를 비롯한 최아바이며 심숙이, 분녀 등 모든 동무들이 자기의 하루일을 끝마치면 남몰래 왕청같은 연공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높은 천정우에 올라가서 트라스조립을 돕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의사는 그들이 아마 굴뚝쌓기돌격대에 못들어간 봉창으로 그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었다. 했으나 의사는 얼마후 뜻밖의 사실에 접하게 되었다.

그들이 진료소로 다시 몰려와서 하는 말인즉 며칠째나 연공들과 함께 고도작업을 했는데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굴뚝공사에 넉넉히 참가할 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들의 열화같은 제기에 접한 순간 의사의 눈부리는 찌르르해 졌고 가슴이 몽클했다.

《철웅동문 그 <반찬고>덕을 보았는가요?》

의사는 애써 마음의 파동을 누착히며 배포류해 서있는 철웅에게 룡담조로 물었다.

《글쎄요. 하여간 멀미는 달아났으니까요. 하 하...》

철웅이는 보란듯이 그자리에서 무용가처럼 빙그르 몸을 돌리였다.

그통에 웃음보가 짜그로 터져올랐다.

최아바이도 팔을 내대며 혈압을 재보라고 했다.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읽게 된 녀의사는 애써 내색을 감추며 직장장의 승인을 받아 보라고 발뺌을 했다.

그날저녁 녀의사는 현장치료를 나갔던 길에 굴뚝공사지휘부에 들렀다. 지휘부는 굴뚝공사장요, 립시로 지은 볼로그건물에 자리잡고있었다. 뽕경게 달아오른 난로에서 장작불이 이글거렸다.

녀의사가 방에 들어서자 기사장과 직장장이 어서 앉으라고 반색을 하며 의자를 권했다.

《의사선생, 마침 잘 왔소. 이거 철웅동무랑 최아바이랑 떼를 쓰는 성화에 못견디겠소. 의사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오?》

직장장이 녀의사에게 넌지시 물었다.

《글쎄... 행정일군들이 참가시킬 의향이 제신다면...》

녀의사가 더듬거리자 기사장이 끼여들었다.

《나도 방금 그 동무들을 만났댔소. 참 불같은 사람들이요. 참가시키지요. 그러나 의사선생이 그들을 각별히 돌봐줘야겠소.》

손톱여물을 썰며 서있던 녀의사가 나직이 대답하였다.

《먼저 굴뚝높이가 50미터쯤 올라갈 때까지 참가시켜보지요. 그 이상은 좀 지나보면서...》

《웁소. 그렇게 합시다.》

기사장과 직장장도 그 말에 제격 호응해나섰다.

이렇게 되어 최아바이와 철웅이를 비롯한 나머지 동무들도 뒤늦게나마 굴뚝쌓기에 정식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

녀의사도 매일처럼 오미자단물을 끓여 가지고 굴뚝공사장을 찾아가군하였다.

그런데 어떤 동무들은 단물을 조금씩밖에 마시지 않는것이였다.

《단물은 얼마든지 있으니 많이들 마시세요.》

했으나 전투원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일만 했다. 녀의사가 안성덕반장에게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는것이였다.

《우리 동무들은 그걸 많이 마시면 한초가 새로운 때 일손을 놓고 자주 드나들기가 싫어서이지요.》 하고 씨물씨물 웃는것이였다.

순간 녀의사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몽클해졌다. 그 시간마저 아까와하는 건설자들의 뜨거운 마음!

그렇수록 녀의사는 그들에게 더욱 힘껏 정성을 다하고싶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진료소에 찾아오는 동무들은 한명도 없었다. 그래서 녀의사는 공사장으로 찾아가 않는 동무들이 없느냐고 일일이 따져물었으나 한 사람같이 도리질이였다.

그럴 때 익살꾼 박동무는 노래조로 받아넘겼다.

...위생가방 달랑 메고 초소로 나갔더니

중대에는 환자가 한명도 없다면서
치료대신 내를 보고 노래를 하래요

그바람에 너의사는 건설자들의 청에 못이겨 노래
까지 부른적이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건설자들의
충천한 기세에 휘말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건설자들의 뜨거운 마음의 깊이를 다는 알수가 없었
다. 굴뚝이 높이 솟아오르는데 따라 전투원들의 충
성의 열도도 더욱 높아지는듯싶었다. 공사장앞에 세
운 굴뚝쌓기실적도표의 붉은 선은 전투원들의 충성
심의 높이를 표시하듯 힘있게 뻗어 올라갔다.

어느날 도표판앞에 지나던 그는 의외의 광경에 걸
음을 멈추었다. 뜻밖에도 속보원이 굴뚝쌓기의 하루
실적을 올렸던 붉은 선을 다시 지우고있었기때 문이
었다.

혹시 잘못 올려서 지우고 다시 그리는가 했으나
그렇지도 않았다.

속보원은 흰색으로 흔적없이 지우고있었다.

(무슨 일때문에 하루 옹근실적을 무효로 하는가?)

의심이 더럭 난 너의사는 속보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속보원은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휘틀을 떼었을 때 굴뚝이 음층이 약간 턱진것을
발견했다. 전투원들의 수많은 눈길의 각광속에 초점
을 이룬 그 부위는 착잡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직장장이 손더듬하듯 총진 부분을 조심히 어루 만
지다가 엉거주춤 서있는 시공지도원에게 넌지시 물
었다.

《동무의 생각엔 어떻소?》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시공지도원은 얼굴에 애
써 밝은 빛을 저으며 말했다.

《보기엔 약간 흉하지만 연기를 빨아쏘리는데 별반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더우기 보이지 않는 안쪽면인데 뭐랍니까...》

침묵이 흘렀다. 참기가 피로운 침묵이었다. 직장
장은 담배풀 붙여물었다.

이때 안성덕반장이 침묵을 깨트렸다.

《제 생각엔 깨버리구 다시 쌓자는 겁니다.》

놀라운 눈길들이 그에게 쏘였으나 그 눈빛들은 어
느덧 동감의 빛으로 변했다.

《이 굴뚝은 우리가 만년대계로 물려줄 우리 시대
의 기념비와 같은것이며 우리 건설자들의 티없이 깨
끗한 충성심의 창조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작은 흠집이라도 남길수 있단말입니까!》

가슴을 두드리는 열변에 전투원들은 한결같이 호
응해나섰다.

직장장도, 시공지도원도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막
을길 없었다.

이윽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쌓았던 한돌기를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기 시작한것이였다...

속보원의 이야기를 듣고난 너의사는 이름할수 없
는 감정에 휩싸인채 굴뚝위로 올라갔다. 속보원의
말은 옳았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채 몰탈을 다시 쏟아붓고 억
세게 다져가는 전투원들의 미더운 모습을 대하자 너
의사의 눈앞은 뻔한 불안개로 흐려졌다.

굴뚝우에는 전투원뿐만아니라 3대혁명소조원들
도, 매일처럼 건설장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한 박풍실,
전분옥을 비롯한 지원자들이 지성어린 장갑이며 푸
짐한 음식을 안고 찾아와 일손을 돕고 있었다.

날개를 활짝 펼친듯 굴뚝돌레로 안전그물이 쳐 있
었다.

멀미를 탄다던 철웅이는 마치 락하산선수라도 된
듯이 바줄에 매달려 그네처럼 굴뚝주위를 훨훨 날아
예며 일하는것이였다. 그리고 용접불꽃을 세차게 날
리는 리덕, 다짐봉을 힘있게 내리치는 안성덕, 최아
바이, 몰탈을 섬겨가는 심숙이며 분녀, 리영수...

그 누구를 둘러보나 하나같이 미더운 모습이였다.
분초를 다투며 우줄우줄 하늘높이 키돋움하는 굴뚝
의 높이와 함께 건설자들은 또 얼마나 높이 성장의
키돋움을 하고있는것인가!

너의사가 정찬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고있는데 기
사장과 직장장이 다가왔다.

《의사선생, 저 동무들을 그냥 시킬가요?》

직장장이 바줄에 매달려 날아예는 철웅이며 최아
바이를 슬쩍 눈짓하며 묻는것이였다. 기사장도 의미
있는 웃음을 눈가에 짓고 너의사를 쳐다보았다.

《아직 50메터까지 올라오지 못한걸요...》

너의사는 귀밑을 붉히며 대답했다.

(정말 저 동무들을 그 높이까지 오를것을 승인한
처사가 옳은것일까?)

너의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은 그의 머리에 삼겹불처
럼 달라붙어 돌아갔다.

어느날 이상기후현상에 인한 늦추위가 들이닥쳤
다. 살을 어이는 바다바람이 기승스럽게 불어대며
진눈까비를 몰아왔다.

했으나 전투원들은 더운 땀을 뿌리며 몰탈을 억척
스럽게 다져갔다. 너의사는 그들이 감기에라도 걸릴
세라 또다시 소금물과 오미자단물을 끓여가지고 굴
뚝위로 찾아갔다. 그러나 전투원들은 자기들 몸이
문제가 아니라 몰탈이 얼가보아 걱정되노라고 했다.

그날밤이였다. 합숙앞을 지나던 너의사는 무춤 군
어졌다. 얼굴에 성애가 하얗게 불린 안성덕반장과
최아바이, 철웅이, 리덕이가 저마다 추위를 예견하
고 미리 준비한 풍막들을 걸어안고 달려가는것이였
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너의사는 눈이 동그래서 소리쳤다.

《타입한 세멘이 얼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대답했다.

뿌얀 진논까비속을 누비며 뛰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뜨겁게 지켜보던 그는 그 어떤 타성에 떠밀리우듯 그들을 따라섰다. 사나운 칼바람에 소용돌이치는 논까비로 하여 눈을 뜰수가 없었다.

리분녀, 심숙이를 비롯한 녀성들도 달려가는것이 보였다.

녀의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렸다. 족장목우에 매단 야의등들이 광풍에 태질을 하고있었다. 뿌연 전등불빛에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못 박힌듯 그자리에 굳어졌다. 한것은 안성덕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이 저마다 보온재로 콩크리트를 감싸고있기때문이 었다.

이윽고 그들은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기들의 체온으로 그것을 녹일수 있기라도 할듯 그자리에 서 떠나지 않았다.

회오리치는 광풍에 성에 불린 머리칼을 날리며 몸으로 콩크리트를 감싸안은채 불타는 심장의 열도를 깡그리 뺏어주는듯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승엄한 조각상처럼 보였다.

그들의 억센 모습에 의사의 눈시울은 축축히 젖어 들었다.

불사조와 같은 그들의 기상을 말해주듯 공사장에 나붙은 힘있는 구호의 글발이 불빛을 받아 시야에 안겨왔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자!》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의 손길따라 거연히 일떠서는 충성의 탑을 사나운 눈보라와 격랑속에서도 온몸으로 억세게 지켜가는 저 건설자들의 담벽같은 가슴들이야말로 우리 당을 끝까지 드림없이 받들어 가는 성새와 방패가 아닌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 어떤 혹한과 비바람이 불어 쳐도 충성으로 불타는 심장들의 뜨거운 열도에 덥혀지고 초석으로 다져진 굴뚝기초를 얼굴수도 허물수도 없었던것이였다.

한데 이런 일이 있자 최아바이와 심숙이를 비롯한 일부 동무들이 감기에 걸린듯 입술이 까슬까슬 마를 지경으로 신열이 심했으나 절대로 내색하지 않으며 굴뚝우에서 한발자국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직장장과 녀의사는 진료소에 내려가 치료를 받으라고 등을 밀었다.

했으나 나 어린 심숙이는 오돌차게 쏘아붙이는것이였다.

《두번다시 락오자가 되고싶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구 심장으로 맹세했나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엔 물러설 권

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감기때문에 물러서겠어요..》

처녀의 힘찬 대답에 가슴이 몽쿨하여 만류할 용기를 잃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도 그들앞에 맥을 추지 못했다. 의사가 최아바이의 체온을 재보았을 때 입을 딱 벌렸다.

의사는 최아바이에게 체온기를 보이며 안정치료를 엄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아바이는 호탕하게 웃으며 룡담조로 대꾸했다.

《의사선생, 섭섭하웨다. 당을 위해 더욱 불타번져야 할 내 심장의 열도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된단말이웨까. 그렇다면 더 달켜야 하겠구려.》 하더니 다짐봉을 세판게 틀어쥐고 휘틀속의 몰탈을 힘있게 내리치는것이 아닌가!

의사는 그의 말이 한갓 룡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웅심깊을 심장속에는 그 얼마나 뜨거운것이 용솟음치고있는것인가!

비록 그들의 체온은 재일수 있을지 몰라도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뜨거운 충성의 열도만은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헤아릴수 없을것 같았다.

이것은 녀의사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기사장도 직장장도 불보다 뜨거운 심장을 지닌 건설자들의 불타는 지향을 막을수는 없었다. 바로 이처럼 뜨거운 심장들에 떠받들려 굴뚝은 마지막 종착점을 향하여 솟아올랐다. 하기에 처음엔 하루 겨우 4~5미터 쌓던것이 7~8미터로, 나중에는 9.5미터까지 쌓았다.

이 성과속에는 기술자들과 건설자들의 끝없는 충성의 열정과 함께 그들이 지혜를 모아 창안한 능률 높은 새형의 미끄럼식유압자끼휘틀이 큰 몫을 차지했던것이다.

어느덧 굴뚝의 높이가 50여미터를 넘어서고있었다.

녀의사가 기사장, 직장장과 합의했던 《한계점》에 이른것이였다.

그러나 세사람중에서 누구도 먼저 그 일을 상기시키지 않았다. 굴뚝과 함께 더 높이 날아오르려는 그들의 마음의 나래를 붙잡기가 수월치 않다는것을 느꼈기때문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굴뚝은 백수십미터까지 솟아올랐다.

마지막 10미터를 마무리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가 시작되였다.

녀의사가 밑에서 굴뚝꼭대기를 쳐다보아도 굴뚝이 좌우로 기우뚱거리는것 같았고 건설자들의 모습은 성냥가치만하게 보였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내려오는 사람이 없었다. 녀의사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돌보아주자고 굴뚝꼭대기로 용약오르려고 하였으나 도리어 최아바이와 철웅이편에서 막아나서는 것이였다.

그들은 위험하다면서 종시 인차바가지를 내려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의사는 몰탈바가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편지를 올려보냈다.

《넘려 마세요. 저는 멀미를 안해요. 정 필요하다면 동무들이 멀미를 이기는데 효력을 본 그 <반찬고>의 신세라도 지면서 올라갈테니까요.》

《의사선생님, 그 <반찬고>는 엉터리였습니다. 올라오지 마십시오. 와도 선생이 할 일은 없습니다. 혹시 그때처럼 노래를 불러주자면 몰라도 ...굴뚝꼭대기는 무섭게 류동합니다...》 쪽지편지를 읽어보는 너의사의 눈길은 가늘게 떨렸다.

이제 와서는 자기와 그들과의 위치가 바뀌어진 격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 지금은 그들이 오히려 의사인 자기의 건강과 안전을 넘려하는 것이었다.

너의사의 가슴속으로 느닷없이 뜨거운 것이 밀물처럼 차오르는 것이었다.

너의사는 그들이 것처럼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들이기에 더욱 찾아오르고 싶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너의사의 위생가방속에는 높은 곳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주려고 며칠밤을 지새우며 정성껏 제조한 귀중한 보약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의사를 굴뚝꼭대기에 올려놓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가슴은 바질바질 타들어가는 듯싶었다.

이때 직장장과 리분녀, 심숙이가 지게차에 무엇인가 잔뜩 싣고 왔다.

알고보니 그것은 지원물자와 이제 굴뚝이 완공 되면 안겨줄 꽃다발, 꽃보라였다. 직장장은 무선전화기로 지원물자를 싣고 올라가겠으니 곧 인차바가지를 내려보내라고 말했다.

그럴적에 너의사가 직장장앞으로 갔다.
《직장장동지, 제가 먼저 올라가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저길 어떻게?!》
직장장이 눈이 둥그래서 바라보았다.

《의사선생님, 못올라가요!》
하고 리분녀와 심숙이가 소매를 잡았다. 순간 너의사는 눈물이 글썽해서 간청했다.

《아니 난 꼭 올라가야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인차바가지가 내려왔다.

《동무들, 전 당에서 이곳 건설자들의 건강을 위해 파견한 의사가 아니예요!》

그는 이렇게 웨치며 인차바가지에 뛰어올랐다.

너의사를 태운 인차바가지는 마치 승강기처럼 굴뚝꼭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너의사는 눈을 꼭 감았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렸다. 했으나 그

의 가슴속에는 이 순간 어버이수령님께서 것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건설자들결으로 오른다는 끝없는 기쁨의 파도가 뒤채이고 있었다.

안성덕반장을 비롯한 최아바이, 철웅이가 너의사를 열차게 부르며 굴뚝위로 님금 안아올렸다.

그들은 방금 마지막 굴뚝돌기쌓기를 끝내고 승리의 기발대인양 피뢰침을 꽂고있었던 것이다.

너의사는 해별과 해풍에 그슬려 더 건강해진 듯 싶은 미더운 동무들의 모습을 이슬에 젖은 눈길로 둘러보았다.

《모두 건강들 했어요?》

이렇게 묻는 그의 목소리는 갈렸다.

《보시다싶이 ...하하하...》

그들은 적동색 무쇠팔뚝을 흔들어 보이며 호탕하게 웃었다.

X

이날 그들은 굴뚝쌓기를 시작한지 단 19일만에 백수십미터의 굴뚝쌓기를 완공했다. 이것은 굴뚝건설력사에서 전례없는 기적이었다.

은 건설장의 뜨거운 눈길들이 백수십미터의 거대한 창조물위에 거연히 서서 환성을 터뜨리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깊이에서 솟구치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또다시 이곳에 모시었으면...)

불같은 이 소원은 시간이 흐르고 달이 갈수록 건설자들의 마음속에 더욱 불타올랐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건설자들이 것처럼 뵈고 싶어하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단천체련소 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창조물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현지에 모신 끝없는 영광과 감격에 접한 건설자들은 뜨거운 눈물로 불을 적시며 심장으로 웨쳤다.

《어버이수령님! 우리는 1단계공사에서 발휘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2단계, 3단계 공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150만톤 유색금속고지점령에 이바지 하렵니다!》

또다시 2단계공사장으로 옮겨간 건설자들을 찾아가는 너의사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조업식의 꽃테프를 끊게 될 그날을 눈앞에 그리며 마음속으로 속삭이였다.

(의사인 나로서는 도저히 헤아릴수 없었던 것처럼 불타는 심장들의 불도가니속에 제련될 수십만톤의 유색금속이 폭포처럼 쏟아져 부강한 우리 조국을 철갑으로 더욱 튼튼히 감싸고 역세계 받들것이라!)

상봉지점

림길명

사람들은 서로 만났다가는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한다. 또 헤어졌다가 영영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더욱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 상봉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상봉과 리별을 통하여 사람들은 서로 더 잘 알게 되며 잠깐 사귄 못정도 잊지 못해 헤어질 때면 《다시 만납시다.》 하고 인사처럼 웃으며 약속하곤 한다. 물론 그들을 어디서 만나리라는 것은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다.

얼마전에 나는 취재의 길에서 두 제대군인의 상봉을 목격한 일이 있었다.

내가 함흥지구전선에서 발취하고있는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취재하기 위해 단천제련소건설장을 찾아간것은 정오무렵이였었다.

(이번에는 어떤 주인공을 만나게 될것인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제련소건설장에 온것만큼 취재성공에 대한 나의 기대는 자못 컸었다.

마침 건설사업소 지배인이 제련소 1 단계공사를 기한전에 끝내느냐 못끝내느냐 하는데서 결정적으로 되고있는 아연잔사처리장 수증기초공크리트치기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습지대인 송평벌의 모래땅에 수백개에 달하는 기초 구멍이를 파고 콩크리트를 친다는것은 사실상 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기초구멍이를 파기 바쁘게 물이 차오르고 모래가 무너져내려 콩크리트를 칠수가 없었던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수증기초공크리트치기를 맡기는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립식장의 한 제대군인청년작업반장이 자진하여 나섰다것이였다.

《그 작업반장동무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는 성급히 취재수첩을 펼쳐들었다.

《위광철이라구.》

《위광철이요?》

《혹시 아십니까?》

《그저 ...제가 알고있는 동무의 이름이...》

문득 나의 머리에는 검덕광산제 3 선광장건설장에서 취재한적이 있는 위광철이라고 부르는 제대군인이 생각났다. 그때 광철동무는 제대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던길에 검덕광산제 3 선광장건설이 한창인 은룡덕으로 찾아와 명단에도 없는 전투원이 되어 일하고있었다.

《바로 그 제대군인동무가 옳습니다.》

《그래요?!》

나는 놀랐다. 3 선광장건설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 가리라던 동무가 또다시 제련소건설장으로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지배인이 광철동무에 대한 자랑을 한바탕 늘어 놓았다.

《그 동문 우리 사업소의 보배입니다. 이번에도 수증기초공크리트치기를 위한 새형의 철관휘틀을 창안하여 지금 마지막시험을 하고있습니다. 시험이 성공되면 술한 목재를 절약할뿐아니라 제련소 1 단계공사를 훨씬 앞당겨 끝내게 됩니다.》

나는 광철동무를 만나보고싶은 마음의 충동을 금치 못했다.

《그럼 시험현장에 나가봅시다.》

나는 지배인의 뒤를 따라 건설장으로 향했다. 루산탑들이 숲처럼 일떠선 제련소구내길을 걸으면서 나는 줄곧 광철동무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내가 그를 처음 알게 된것은 3 선광장 저광장벽체쌓기공사때였다. 그때 나는 공사현장을 나갔다가 저광장벽체를 쌓던 제대군인과 벽돌을 섬겨주던 휴가군인이 뜻밖에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같은 고향친구도 아니고 또 같은 구분대에 있는것도 아니였다. 병사시절 어느해 여름 훈련때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하였다. 전술훈련을 하던 날 광철이네 공병분대는 역수로 쏟아붓는 비발속에서 떼다리를 놓느라고 어려운 전투를 하게 되였었다. 그때 사품치는 물속에 뛰어들어 물살에 밀리는 떼다리를 어깨로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감시소까지 전화선을 늘어가던 가선수 리철수였던것이다. 그도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만큼 광철동무는 만류했다. 그러나 철수는 끝끝내 공병들을 도와주고나서 인사도 변변히 나누지 못한 채 가버리고말았었다.

《참 사람두 주소나 알리고 갈것이지... 부대에서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네.》

《제가 뭘 한게 있대구.》

광철의 말에 철수는 오히려 얼굴을 붉히었다.

나는 부대의 도하를 도와주고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내에 목적지까지 전화선을 늘어가기 위해 지름길을 타느라고 벼랑을 타고넘고 강을 헤엄쳐갔을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가슴이 뭉클해났다. 참으로 미더운 사람들이었다.

그때 나는 그들과 헤어지는것이 섭섭했다. 그런데 이렇게 함흥지구전선에서 광철동무를 다시 만나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은 모든 일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고 군중이 어려워하는 일에는 먼저 뛰어들어가 실천하며 일에서나 학습에서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언제나 앞장서는 미더운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우리가 아연잔사처리장 수증기초공크리트치기시험현장에 도착했을 때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있었다. 나는 그들속에서 광철작업반장동무를 대뜸 알아보았다. 그러나 시험중에 있는 그를 당장 만날 수가 없었다. 지금 허리에 안전바를 맨 광철동무가 기초구덩이속에 갈아앉히고있는 깊이가 5미터되는 철판휘틀함속으로 들어가고있었던것이다. 콘크리트를 치고 철판휘틀을 빼낼 때 밑바닥에 단 점철이 순조롭게 벗겨지겠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것이였다.

물웅덩이주위에 모여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철판휘틀함속에 서있는 광철이를 주시하고있었다. 나도 은근히 가슴을 조였다. 어떻게 될것인가?

이윽고 시험시작을 알리는 광철의 신호호각소리가 울렸다. 기중기가 천천히 철판휘틀함을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중기에 과부하가 걸리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철판휘틀에로 쏠렸다. 한쪽면 휘틀의 련결고리가 벗겨지지 않았다.

《물이 찬다!》

《또 실패다!》

《광철이 위험하다. 빨리 철수하라!》

우에서 사람들이 웨쳐댔다. 그런데 이때 철판휘틀함속으로 뛰어들어가 물기둥을 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

《안심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안간힘을 쓰며 웨치는 청년이 고맙기 그지없었다. 광철은 물속에서 손더듬해가며 점철고리상태를 검열했다. 그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물은 청년의 잔등으로 숨새여들여와 휘틀함속에 점점 차오르고있었다. 긴장된 순간이 한초한초 흘렀다. 마침내 《찾았다!》 하는 광철의 기쁨에 넘친 웨침소리가 울려나왔다.

가슴을 조이던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성공이다!》 하고 환성을 올렸다.

나는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 못하며 철판휘틀함과 함께 땅우로 올라온 광철이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웬일인가?

땅우에 올라온 두사람이 몰참봉이 된채 얼싸 안고 돌아가는것이였다.

나는 다시금 놀라고말았다. 그 젊은 청년이 바로 은룡덕에서 만났던 휴가군인이었던것이다.

《광철동무! 철수동무!》

나는 저도 모르게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작가동지!》

이리하여 나는 그들과 두번째로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철수동무는 제대하여 제련소건설장에서 일한지 벌써 두달째 된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 모르고있다가 이런 철판휘틀함속에 서 만나다니...》

젖은 옷을 꺾꾹 눌러 짜던 광철동무가 나를 쳐다보며 꺽꺽 웃었다.

《아무데서건 뭐랍니다?》

철수도 뒤더수기에 손을 가져가며 병긋이 웃는다.

나는 다시금 뜨겁게 포옹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뭉클해짐을 느꼈다.

만약 그 어떤 푸짐한 식탁에서나 꽃이 화려한 공원에서나 어느 유보도의 가로등밑에서 문득 만났더라면 그들의 상봉이 저렇듯 뜨겁고 열렬하지 못했으리라.

한것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고비에서만 사람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가 나타나는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생활에는 뜻밖의 상봉이 많다. 어디선가 낯을 익힌 사람도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되는 우연한 상봉도 있고 자기 목적을 위해 만나는 의식적인 상봉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고비에서만 만나군하는 이들의 상봉이야말로 얼마나 값높은것이라.

그렇다! 거창한 생활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상봉은 가는곳마다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것이다.

《다시 만납시다!》

이것은 상봉끝에 헤어지면서 그들과 웃으며 한 약속이였다. 물론 어디서 만나게 되리라는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허지만 나는 우리 당이 부르는 새로운 전선에서 그들과 다시 상봉하게 되리라는것을 의심치 않는다. 당이 부르는곳-사회주의건설의 제일 어렵고 힘든 전선은 우리 시대 참된 주인공들이 언제나 만나는 상봉지점이기때문이다.

아들이 커갈때

송학송

이 글을 쓰자니 전쟁때 얻은 치명상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버지는 기술학교를 졸업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애야, 사람이란 큰데서 크게 치워야 구실을 하나라.》

아버지를 그렇듯 매혹시켰던 그 《큰것》이란 무엇이었던가? 로동이었다. 로동은 그에게 있어 기쁨이었고 거창한 삶의 전부였다. 그가 다시 이 복판은 세상에 태어난다면 두말할것 없이 로동속에 뛰어들었을것이다. 그리고 아래의 주인공들처럼 아들인 나를 역시 그렇게 살도록 했을것이다.

X

기름방울이 둥그렇게 번진 모자를 정중히 벗으며 화학직장장이 방안에 들어왔다. 그는 반들반들 닳은 가방에서 청년돌격대명단을 꺼내어 지배인앞에 내놓으며 혈색좋은 얼굴에 저으기 흡족한 미소를 띄웠다. 지배인은 심중한 표정으로 명단을 훑어본 다음 맨아래 자리에 굵직굵직한 글씨로 한사람 더 적이넣었다. 그런후 수표를 하고 명단을 내주었다.

《아니 동석동무를 돌격대에 넣겠단말입니까?》

명단을 받아든 직장장은 어떤 방조자라도 찾으려 는듯 단둘뿐인 방안을 휘둘러보더니 지배인에게 가까이 허리를 굽혔다.

《저-직장에서 이미 토론들이 있었습시다만 이번 저열화청년돌격대에 동석동무를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그만큼 단련시켰으면 인제야 소원대로 공부를 시켜 야금학전문가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곡식도 철을 놓치면 쭈정이 되지요.》

지배인은 이미 다른 일감을 잡으며 쌀쌀히 말했다.

《나도 <쭈정리아들>을 두고싶진 않소. 어서 그대로 나가 조직하시오.》

직장장은 흰종이를 손에 든채 한참이나 안절부절 못하고 서있다가 나갔다.

지배인은 무드기 쌓인 문건과 서류들을 다 처리해놓고 흐릿한 창밖에 피로어린 눈길을 던졌다. 그는 자기 아들이며 화학직장 열처리공인 동석이를 두고 복잡한 상념에 잠겼다.

이윽고 그는 우산을 찾아들고 밖으로 나섰다. 우중충한 하늘에서는 종시 큰 소나기가 쏟아져내렸다. 우산을 썼는데도 장단지까지 걸은 바지가랭이가 후줄근히 젖은 지배인은 흰한 이마를 자주 훔치며 구내의 여기저기를 주의깊게 살피며 걸었다.

탁아소앞에 이르러 그는 끌리는듯 울타리안을 들여다보았다. 락수물이 얼른거리는 창문으로 높은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앞날의 기둥감이지요

어서 커서... 영웅 될래요...

창밀으로 길게 누운 꽃밭에서 비웃 입은 소장이 비줄기속에서도 꽃모를 내고있었다.

잠 설친 지배인의 수척한 얼굴에는 웃음이 퍼뜩 지나갔다.

어느덧 그는 까마득한 굴뚝이 비구름속에 머리를 찌르고 서있는 화학직장으로 향했다.

싸아-비바람은 단쇠에 물을 친듯 끓는 구내길이며 현장지붕들에서 뿌연 물바래를 피워올린다.

지배인의 아들 동석은 열처리로앞에서 제품같이 를 하고있었다. 번뜩이는 눈이며 용을 쓰느라 연신 실룩거리는 뺨에 발린듯이 어린 등황색 불빛, 동석의 모습은 흡사 불사람 같았다.

그는 별경다 못해 자주빛이 되어 내뿜기는 불길과 싸움을 걸어대듯 쇠장대를 들고 넘실거리는 열처리 용액속에서 쥔 감자같이 하얗게 단 제품바가지를 꺼내었다.

올여름만으로 주간대학에 가리라던 자기의 뜻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가슴속은 열처리로 못지 않게 부글거리고있었다.

(흥 벌써 3년째나 아들을 이 로앞에 세워놓구 소 닭보듯 하고있군. 그저 아는건 생산 생산... 계다가 저열화전투까지 벌려놓고 내가 거기에 어깨를 들여 밀기를 바라고 ... 그러면 지배인의 체면이 서구... 하긴 오리나 되는 구내를 가진 공장의 지배인이 아들의 희망쯤은 대수가 아니란말이지.)

동석에게는 워낙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것과 지난날 썰매 하나 제때에 만들어주지 않던 일까지 곁따라 생각났다. 그때는 갓 공장이 건설된 때여서 아버지는 출창 공장에서 살았다. 동석은 자기 썰매가 없어 다른 애들의 썰매를 얻어타곤했었다. 한번은 도끼머리장난군애가 그를 이렇게 비웃었다.

《너의 아버지진 지배인인데 썰매 하나 안만들어주던? 야 나같은문사 오토바이두 만들어 달라줬다.》

동석은 울었다.

참 그는 그때 앞집 돌이나 언덕집의 철이 아버지처럼 목수나 제관공아버지를 두지 못한 자기를 얼마나 원망했던가?

《여, 바가지가 걸렸어, 바가지를 바로잡으라구.》

제품하조장쪽에서 낡은 제품바가지들을 가져다놓고 용접준비를 하고있던 교대조장 대범이가 달려오며 소리쳐서야 동석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락하산병출신의 장대한 사나이 대범은 량미간의 뚜렷한 상처자리를 찡긋하고 허리에 손을 찌른채 동석의 뿔돈은 모양을 지켜보며 서있었다. 그는 이번에 돌격대장이 되었는데 벌써부터 동석에게 명령조로 말하기가 일쑤였다.

《이젠 돌격대원이란걸 명심해.》

《어서 낡은 바가지나 때랴요.》

《허, 제쪽에서 명령하는군. 허허.》

대범은 통하지 않는다는듯 손을 저으며 하조장으로 갔다.

제품갈이가 끝날무렵에야 동석은 자기 오른쪽가 사이에 웬 흰옷차림의 사람이 와있는것을 알아차렸다. 동석은 여느때처럼 이 신기하고 장쾌한 로를 구경하러 온 출장원이나 신입공청년이 러니생각했다. 하마트면 《좀 비켜서서 구경하오.》 하고 쏘아붙일 뻔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배인이었다.

동석은 정작 아버지를 보니 일순 죄지는 사람처럼 두려운 감이 들었다. 뒤이어 지금까지 남몰래 가슴에 차맏혔던 원망과 야속함이 북받쳐올랐다.

동석은 못본체하고 바가지를 일부러 느리게 끌어들었다.

불빛이 아롱대는 동석의 실룩이는 뺨과 깊숙이 박아쓴 모자채양은 그의 비등된 심중을 너무도 똑똑히 말해주고있었다.

아버지는 묵직히 뒤짐을 지고 선채 줄곧 로숙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일터에 들리는 일은 극상해야 한 달에 한두번 있었는데 이때마다 아버지는 매양아들의 일모습을 잠깐씩 지켜보다가 《작업복단추를 제대로 채워라.》 하거나 《신발끈을 꼭 매여라》 하는 말을 남기고 가군했다.

그런데 오늘은 오래동안 자리를 뜰줄 몰랐다.

드르릉.

동석은 하는 수없이 로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공연히 어성버성해하며 작업복단추와 신발끈을 손질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휴식용 장의자에 다가갔다. 아버지는 아래일군들에게 《앉소. 앉소》 하던 습관대로 손짓을 해보였다. 동석은 마지못한 동작으로 의자한 끝에 앉았다. 그제서야 동석은 아버지의 비에 젖은 옷이 불길에 쏘여 김이 나고있으며 우산끝에서는 아직 물방울들이 떨어지고있음을 알아 보았다. 온몸의 땀기운이 샅시에 서늘하게 찾아들었다.

한 의자에 앉은 지배인과 아들은 얼핏 보아 서로 낯은데가 없는듯했다. 다만 굳게 닫긴 입과 벌름한

귀바퀴모양만이 신동히 같았다. 두사람의 눈은 똑같이 귀중한 그 무엇을 시야에서 놓쳐버린 때와 같은 침울한 빛이었다. 부자간의 귀전에는 석싯한 배풍기소리와 대범의 용접아크소리, 창문너머 철드럭거리는 락수물소리가 어우러져 땀돌았다.

침묵끝에 아버지가 락자우에 놓인 탄산수를 고뿌에 따라 내밀었다.

《마시렴.》

동석은 마다할수가 없어서 받아들긴 했으나 도로 락자우에 놓고 정말 한고뿌 마신듯 입술을 문질렀다.

아버지는 더 권하지 않고 열어놓은 문짚으로 용접에 여념이 없는 대범의 넓은 잔등을 부러운듯 바라보았다. 금시 시퍼런 조명등이 엇갈리고 폭탄이 튀는 적구에 뛰어내린듯한 락하산병을 아버지는 늘 대견해했었다. 동석은 입귀를 실룩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애야.》

아버지는 동석에게 상체를 기웃하고 마치 부지배인에게나 하듯 사업적인 신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껏 너는 이 로앞에서 땀을 흘렸구 사람들은 너를 혁신자라고 부르고있다. 허지만 너는 내심으로는 아버지가 어떤 <좋은데>로 돌려주기를 바라고있지. 나는 그런 사람이 보다 빛나고 영예론 자리에 설수 없다는것을 생활을 통해 알고있다. 지난날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도 땀을 아끼지 않는데 작업복 한벌두 해지기전에 <좋은데>로 갈 생각을 하다니. 좀 생각해 바라.》

동석은 반발심이 꿈틀거려 자리를 고쳐앉았다.

(아버지, 나한테도 독자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난 지금 이 저열화가 아니라 과학세계에 날아올라 <무열화> 열처리법을 발명하겠다만입니다. 그래 독자적인 희망을 성취하는 길을 열어달라는것이 잘못이란말입니까?)

동석은 이렇게 웨치고싶었다. 그러나 꿀꺽 참았다. 아버지가 자기의 말에 찬성해주지 않을것은 명백했던것이다.

이윽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자를 바로 쓰고 일해라.》

아버지의 음성과 함께 싸하는 비소리가 쏟아져 들어오더니 텅 문소리가 났다.

동석은 억울했다. 자리를 차고 일어선 그는 심한 갈증을 느끼고 락자의 탄산수고뿌를 단숨에 기울였다. 그리고 로앞에서 창가에서 창가에서 로앞으로 오락가락했다.

X

교대시간후 현장을 돌아보고 난 직장장은 대범과 동석을 사무실로 불렀다.

직장장은 책상서랍에서 공장대학입학문건을 꺼내

여 펼치며 동석이더러 가까이 와앉으라고 했다.

《어찌겠나? 지배인동지의 의견이니... 공장대학을 나와서두 발명권두 받구 뭐나 다 할수 있소. 락심하지 말구 잘 배우라구.》

직장장은 딱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너그러운 어조로 설복했다. 그는 공장대학 추천서를 두번이나 동석에게 주었었다. 그때마다 동석은 책상유리밑에 끼워놓곤 손덜념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예 제손으로 문건을 쓸 잡도리인듯 직장장은 만년필을 뽑아들었다.

뜻밖의 일에 당황한것은 동석보다 대범이 였다.

《저 이번엔 꼭 쓸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동석이 대신 대범이가 이렇게 말하자 직장장은 어이없는듯 웃으며 다시는 담배말지를 해선 안된다고 그루를 бак고나서 문건을 내주었다.

구내길로 나선 동석의 마음은 어찌선지 쓸쓸하 기만했다.

뒤따라온 대범은 동석의 심중에는 아랑곳없이 제만에 흡족해져서 전애없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이었다.

《지배인동진 훌륭한 사람이야.》

《왜요?》

《두구 보라구.》

《흥》

동석은 고까운 눈총을 쏘았다. 그는 우람스런 체구와 그췌한 경력을 가진 대범이가 그울음투성의 열처리로에 일터를 청한것부터가 리해되지 않았다. 보다 빛갈있는 자리에서 큰 보람을 지닐수 있으면만 로공이 되어 낱은 바가지나 때는것으로 만족해하는 그의 사람됨이 은근히 속되어보였다. 값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일생을 로앞에 바칠것이고 미구에는 《로공아바이》가 될것이다.

《대범동문 그러니까 겨우 이 열처리로에 <착륙>했지요.》

《왜, 난 제자리에 <착륙>했는걸.》

대범은 여전히 만족한 기분으로 시뻘동해진 동석의 팔을 잡고 휘적거리며 걸렸다.

《동석이, 처음 락하산을 타다가 소나무에 걸려서 지휘관한테 된 추궁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나두 동석이와 같은 심정이였어. 두구 보라구. 이제 단련되느라면 동석이두 지배인동지의 마음을 리해하게 될게야.》

대범은 량미간의 상처자리를 찡긋하고 동석의 어깨를 쳐주었다.

《단련이라구요? 3년씩이나 불속에서 단련했는데 무엇을 못할라구요. 자! 보라요.》

동석은 문득 멈춰서서 두주먹을 불끈 쳐들어보였다.

대범이는 무얼 생각하는지 대답이 없었다. 동석은

대범이가 철저한 아버지권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새삼스레 마음이 허전하여 입을 다물어버렸다.

화학직장은 열처리현장의 저열화실현을 위한 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직장앞뜰에 높직이 방수포를 띄운 저열로 조립장에서 대범을 비롯한 청년돌격대원들이 통이 큰 일판을 벌리고 씩없이 공닥거리며 법석대었다.

그러나 이 들끓는 직장도 동석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하였다.

동석은 방수포천정에 거의 닿을듯한 로체우에서로의 옷설미를 용접하고있었다. 학교때 용접실습에서 이미 4급공의 기능을 소유한 동석은 저열로의 조립작업에서 언제나 능란한 솜씨를 발휘했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생각은 인젠 한낱 깨어진 꿈으로 되고만 주간대학으로 내려쳐갔다.

공업대학, 얼마나 갈망해왔던가? 거기에 가면 완전히 몇몇한 지식인으로 될것이니 이 <가열로>나 <저열로>가 아니라 버젓한 연구실로 가게 될것이다. 다음엔 준박사, 또 박사... 야, 그의 마음은 마치 로우의 푸른 하늘로 동동 떠오르는듯싶었다.

로체꼭대기에 올라앉아 파란 연기속에 싸여 불꽃을 일궈대는 동석의 모습은 누구의 눈에나 띄었다.

《허 <작은 지배인>이 수고를 하누만, 공장대학에 입학한다면서.》

이런 목소리에 동석이의 답알날가리는 풍지박산이 되고말았다.

벌겋게 열이 오른 얼굴을 뺨 흠치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기사장이 화학직장장과 같이 걸어오며 꺾꺾 웃고있었다. 방금 무엇인가 메어나른듯 쇠죽먼지가 어깨에 부영게 앉은 직장장은 기름방울 번진 모자를 벗어들고 활활 부채질을 하며 지나가는 말처럼 응대했다.

《한몫 단단히 하지요. 시험공부를 하면서두 저렇게... 보통이 아니요.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말거나 동석은 용접면을 쑥 내려쓰고 용접기를 틀어잡았다.

사방으로 섬광이 뻗어나가며 퍼덕거렸다.

현장고성기에서 경쾌한 음악이 울렸다.

기사장과 직장장의 말에 어지간히 마음이 풀린 동석은 어느사이 흐뭇한 생각에 잠혀들었다.

(에이, 할수 없군.이렇게 된바에야, 정말 직장장동지의 말대로 공장대학에서라도 공부를 직심스레 해야지. 공장대학을 나온후 제격 경이적인 론문을 두어제목 완성해놓고 중앙급 연구소로 가야겠어, 대학에 가기보다 늦어져도 서른살쯤 되었을 때는 야금학계에서 꼽히는 권위자로 될것이고 ... 큰 의의가 있는 <무열화>야금술을 연구하게 되고... 그럼 몇명의 연구사들이 방조자로 될것이다. 연구사들과 못사람들은 존경과 신뢰속에 나에게 성공에 대한 축복을

보낼테지. 점잖게 무게있게 머리숙여 그들의 축복을 받을것이다. 아니 겸손해야지. 그건 좀 거만해... 이따금 아버지를 보러 집에 오게 될게야. 그땐 아버지의 머리에 서리가 내리겠지. 아버지는 제구실 못하리라던 아들이 크게 발전해 가는것을 보고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지난날 이 아들을 이 열처리로에서 일시키면서도 지청구를 하던 일을 후회하실게다. 참 집에 올 땐 아버지가 좋아 하지는 <체비>담배를 사다 드리리라.)

황홀한 앞날에 대한 갈망과 때이른 환희로 하여 가슴 벅차올랐다. 거침없이 움직여주는 용접봉도 마치 가슴속의 뜨거운 열도로 하여 양초처럼 줄줄 녹아붙는듯싶었다.

X

이튿날 동석은 집에서 시험준비를 하고있었다. 직장장이 직장일군들과 토론하여 박두한 입학시험을 손색없이 치르도록 시간을 주었던것이다.

학교때는 학과실력에 괜찮아 교원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오래동안 손에서 책을 놓아 그런지 공부가 잘되지 않는다. 그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주의를 집중해 가며 수학공식들과 영어단어들을 머리에 집어넣으려 애썼다.

어느사이 점심녁이 되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밖에서 구두소리가 두박두박 울렸다. 여느 때와 류달리 빠른 아버지의 발소리에 동석은 마음이 불안해졌다. 책속의 글자들이 마구 뛰어달아나고 온통 범벅이 되었다. 드르릉, 옷방 미닫이가 열렸다. 이어 아버지의 석식한 목소리가 험상궂게 울렸다.

《아니 현장에선 모두 부글부글 끓고있는데 너는 집에 박혀있느냐?》

《모레가 시험날이니깐요. 시간을 받았는걸요.》

동석은 태연하려 애쓰며 책장을 번졌다.

《공부를 한다는 녀석이... 어서 책을 거두어라. 네가 용접한 로체 옷설미가 오작이 났어.》

랑미닫이를 켜 벌려잡은 아버지의 노기찬 눈이 아들을 노려보았다.

동석은 그만 두눈을 홑떴다.

(오작이라니... 내가 땐 옷설미가?)

그는 머리수건을 스르르 풀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아버지를 훑쳐보다가 폭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의 성긴 머리카락은 거칠게 일어서고 잔주름이 킁킁 목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얼굴은 창백했다. 반달음쳐 온듯싶었다. 동석은 뻗뻗이 굳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집의 향수로 느껴온 담배내배인 아버지의 체취를 억지로 들이켰다. 일이 꼬여만 가는 자기가 가련했다. 아들을 기어이 공장에 눌러앉힌 아버지가 무정했다. 한편으로는 저열화시험준비를 위해 충혈된 눈을 비벼 가며 뛰어다니는 대법원과 돌격대원들이 떠올랐다. 그들앞에 죄를 지었다

는 생각이 가슴을 막막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고충은 아버지때문인것 같았다. 이제 피차 좋게 될것이 무엇이라.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만 들볶는다.

《어디 봐라. 귀뿔이 박히게 말해도 듣지 않더니... 너같은 청년이 있기에 아버지의 머리가 센단 말이야.》

드르릉 미닫이가 닫졌다. 동석은 책상에 머리를 피이고 앉아 주먹으로 영어책을 탁 쳤다.

《애, 밥이나 먹으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뒤이어 점심상을 받는 아버지의 헛기침소리가 들렸다. 이때 후방과에서 구명탄을 실은 차가 요란스레 마당가에 와 멎었다. 급히 수저를 놓는 소리가 나더니 밖에서 아버지의 말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엔 탄이 아직 있소. 저 후방가족인 최인실 아주머니네 탄이 거의 떨어졌더구만. 그리로 가져가오.》

(아니, 아침까지 구명탄을 다 때고 창고엔 다 부서진 석탄가루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아까도 구명탄이 없다고 걱정했지...?! 하긴 지배인이니까.)

동석은 쓴입을 삐죽하고나서 영어로 《지배인》《구명탄》하고 외워보았다.

《거 삼을 인주오.》

얼마후 상을 물린 아버지가 월념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구명탄을 빚으려고 서두르는 소리가 들렸다. 동석은 종시 책을 덮어버렸다.

(저렇게 교장교장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속을 맞춘담?)

시무룩한 기색으로 마당으로 나간 동석은 어머니에게서 삼을 뺏아들었다. 피뻘한 아버지때문에 탄까지 빚어야 하는 어머니가 측은했다.

《놔둬라. 탄걱정 하라더냐?》

아버지가 엄하게 쾜쳤다.

순간 너무나 속이 좁은 아버지께 대한 야속함이 울룩 가슴에 치밀어 동석은 저도 모르게 대답했다.

《아버진 너무 자신의 체면만 생각해요. 뭐 지배인이 탄을 빚는걸 보구 사람들이 감동될 때는 지났어요. 사람들은 발전했단말예요.》

《뭣이?》

아버지의 손에서 탄들이 툴렁 떨어졌다.

《못난 자식!》

동석은 어렸을 때 모양으로 흠칠 뒤걸음쳤다. 유순한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대문밖을 살피며 안타깝게 중얼거렸다.

《아니 왜들...여보...애야, 원참, 왜들 이러는지.》

아버지는 준절한 음성으로 꾸짖었다.

《우리가 어떻게 로동생활을 시작했는지 네가 보지 못한게 유감이다. 발전이라구? 발전된 사람이란 더 근면하구 소박하구 성실한 사람들이야.》

좁체로 분을 삭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끄당기며 어머니가 눈짓 손짓으로 부자간을 말렸다. 아버지는 더욱 도그했다.

《나는 체면을 생각한적이 없다. 네가 편안한데를 찾구 서훈짜리 명예를 바라면 바랐지. 그래 너를 뺨대놀음부터 시키자고 지배인을 하는줄 아냐? 덕을 입히자구? 응? 네가 그렇게 살라구 우리 작업반 스물네명이 모여앉아 동석이란 이름을 달아준줄 아냐? 썩 물러가, 이 배은망덕한 자식.》

아버지가 자기 무릎을 치는 소리가 두번이나 울렸다. 동석은 그만 눈굽을 뺨뺨 훔치고 대문을 나섰다.

그는 어떻게 현장에까지 왔는지 알지 못했다. 저열로 조립장은 점심참이여서 조용했다. 로체에 펼쳐놓은 사다리를 부리나게 오르던 동석은 주춤 굳어졌다. 자기가 용접한 옷설미의 ㄷ형강가름대에 무겁게 걸터앉은 대범이가 눈에 띄었다. 대범은 전에없이 담배를 붙여물고 괴로운 생각에 잠긴듯싶었다.

《저- 큰 오작입니까?》

대범에게 다가간 동석은 마음을 조이며 물었다. 대범은 그가 나타날줄 알고있은 모양 돌아보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딴 대답을 하였다.

《철판우에 널린 담배꽂초를 봐. 이게 다 지배인 동지가 태운거야!》

《...》

발밑의 철판우에 한웅큼이나 될 담배꽂초를 둘러본 동석은 마치 아버지앞에 서있거나 한듯 두려운 표정으로 대범을 눈주어보았다. 그리고는 대범이 옆에 놓인 철자를 집어 들고 용접부분을 채보았다.

(응? 심미리나?)

동석은 그만 울상이 되어 고개를 푹 떨구었다. 심미리런차는 작은것이지만 그에 따라 설치될 복잡한 전기회로와 열복사체가 몇배로 기울어지게 되는것이다. 쓰디쓴 수치감이 자존심을 받들고있던 마음의 기둥을 줄지에 무너뜨린듯했다.

《좀 앉으라구.》

담배를 비벼끈 대범이 그를 당겨앉혔다.

《이봐, 동석이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채 락하산병이 되었다면 틀림없이 소나무에 걸렸을거야. 응 좀 생각해보란 말이야.》

마치 자기 실책인듯 분기어린 대범의 목소리는 동석의 폐부를 바늘처럼 찔렀다. 그렇듯 소중한 자기 희망에 대한 어떤 가혹한 선고를 받은것만 같았다.

(오작까지 내구 무슨 낮으로 공장대학시험을 치겠다고 하겠는가? 더우기 꼬장꼬장한 아버지를 범같이 노엽혔으니 이젠 희망도 꿈도 더는 바랄수 없게 됐구나.)마지막 희망까지 여지없이 깨어진 동석의 마음은 어린애처럼 서글펐다.

《그러나 일없어. 다시 날아오르면 되는거야.》

대범은 동석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아니예요. 전 이젠 다예요. 모든것이... 이렇게 남부끄럽게 ...》

《정말 나약하군, 야금학자가 되겠다는 주제에...》

대범은 어느덧 옆에 놓였던 쇠톱을 와락 집어 들고 용접부분에 갖다대었다. 흠이 안가게 따내고 다시 용접하기 위해서였다.

《와두세요. 내가 할 몫이예요.》

동석은 굳이 쇠톱을 앗아들었다. 대범은 못건디는 채 물러났다. 동석의 뺨에 두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굴러내렸다. 이어 이마와 뚝 부릅뜬 눈썹에, 고동색 목덜미에 빨래판듯한 무수한 땀방울이 맺히었다. 그를 측은히 바라보던 대범은 슬며시 고개를 돌리고 흠집 잡힌 이마를 정긋거렸다.

동석은 아버지가 온줄도 몰랐다. 색깔은 작업복을 단정히 입은 지배인은 어느사이 로체우에 올라와 동석의 일모양을 보며 서있었다. 동석은 용접준비를 서둘렀다.

《가만 있어라.》

지배인이 전원을 련결하고 아스선을 대어놓은후 용접봉뭉음을 안고 다시 올라왔다. 다음 유리솜통구리우에 앉아 아들이 움직이는 용접기를 눈을 찡그리고 살폈다. 봉봉 용접봉은 헛불질 없이 쇠물방울을 제비등지 짓듯 녹여붙인다.

지배인은 전자계산기를 꺼내들었다. 뭔가 계산하고 적고 했다. 이따금 아들을 얼핏 스쳐보곤 한다.

《얘기나 할겸 좀 쉬렴.》

한쪽부분을 때고난 아들에게 그는 말했다. 동석은 불깃불깃 일독이 오른 얼굴로 주위를 둘러본 후 궁둥방아를 찢고 앉았다.

《애아, 너는 그래 아버지와 함께 이 일터에서 일하는게 싫으냐?》

《?》

동석은 얼떨름하여 눈을 둥그렇게 떴다. 아버지는 명상에 잠겨있었다.

《우린 한피줄인데 마음은 두마음이로구나.》

아버지의 말은 동석의 가슴 한구석에 알수 없는 파문을 일으켜놓는다.

《생각해 봐라.》

하고 아버지는 참대마디같은 손가락을 꼭 마주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어찌 사사로운 개인의 욕망만 먼저 생각하겠느냐? ... 일제때 나는 무척 학교에 가글어두 돈이 없어 갈수가 없었다. 너의 할아버지는 나를 공부시켜보겠다고 낮에는 공사판에서 등가죽이 갈라지게 질통을 지구 밤에는 강건너 면장네 집 물방아를 찼었다. 큰 장마철이었다. 아버지는 학비가 거의 되여간다면서 그날도 강을 헤여 건너갔다 오시다가 목

숨을 잃었다. 장마뒤에 30리강아래턱에서 시체를 건졌지. 형체는 여지없이 뒀어두… 몇푼의 돈은… 손에… 쪽… 쥐고있었다. 나를 공부시켜 보겠다가… 늙어 사시며 피타게… 애를 쓰시더니…》

동석은 눈굽을 훔치는 아버지를 차마 볼수 없어 무릎우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던 내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5리나 되는 구내를 가진 공장지배인이 되구 아이들 넷을 단돈 한푼 안들이고 공부시켰다. 그런데 네가 그 은덕을 잊고 배은망덕했다고 생각해봐라.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섭섭해하시겠니?! …

얼마나?… 주간대학이면 어떻구 공장대학이면 어떻게 단말이나?

…너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그 어디에 가도 훌륭한 기술일군으로 될수 없다. 지배인 아들이란게 그만한 생각밖에 못해서 끝세… 어찌겠느냐말이다.》

음성은 더 높지 않았다. 그러나 걱정과 안타까움, 흐느낌에 젖은 목소리였다.

동석은 어깨를 들먹이었다.

잠시후 아버지는 대범이와 함께 쇠메질을 하고있었고 동석은 산발하는 불보라를 타고앉아 불칼같은 용접판을 씹없이 일궈대고있었다. 동석의 옆, 유리솜통구리우에는 아버지가 잊고간 수첩만한 전자계산기가 동석의 나이와 똑같은 21이라는 수자를 드러내며 놓여있었다.

메질을 하고있는 지배인에게 직장장이 급히 다가왔다.

《지배인동지, 한가지…》

《말하오.》

《예, 기사장동무랑 토론을 한끝에… 동석동무를… 기술파로 돌려놓기루… 저 여러모루 봐서.》

지배인은 걸차게 맥임소리를 치며 대답했다.

《기술파로? 허이, 허이, 상어를… 민물예? …허어 허이…안되오. 허이.》

X

입학시험을 치른 동석은 저열화전투장에 줄곧 몸을 잠그고 지냈다.

방금 재정비된 로체의 투입구를 조립하고있던 동석은 저만치 도면을 놓은 지휘부의 탁차를 둘러싸고선 아버지와 기사장, 화학직장장들을 보았다. 무겁고도 신중한 기색들이었다. 담배연기가 자욱히 떠돌고 누구나 먼저 입을 열지 못있다. 그동안 저열로 시험은 일곱차례나 실패했었다. 기술자들의 말에 의하면 적지 않은 기술적애로들이 제기된다고들 했고 지어 오늘 기술참모회의에서는 시험도중 포화가스에 의하여 로가 폭발될 위험까지 있다는 말들이 나왔었다.

이윽고 기사장이 도면에 연필을 찍으며 설명하는 것 같다. 동석은 귀를 강구였다.

《마지막 방법이라 할가, 어제 남은것은 가스폭발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시험하는것입니다.》

기사장의 말은 폭발방지장치를 굴뚝우에 설치하여 유해성물질까지 포함한 포화가스를 올려 뽑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사장은 이렇게 부언했다. 모두 지배인을 무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동석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이며 아버지를 살폈다.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있더니 주먹을 뺏 들었다 내리는것이 었다.

《폭발이 무섭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국놈과 싸웠겠소? 어디 계산상으로 타산해봅시다.》

아버지는 버릇대로 우주머니에 손을 가져갔다. 전자계산기를 찾는듯했다. 동석은 얼굴이 화끈해 갔다. 전자계산기는 지금 자기의 호주머니에 있었다. 그가 사고를 낸날 아버지가 로체우에 그냥 놓고간것을 지금까지 돌려드리지 못했었다.

《허-계산기가 어데 갔나? 거참.》

동석은 황황히 투입구 뒤로 몸을 움츠렸다. 뺨을 치고싶게 자신이 미워다. 그리고 아버지가 측은했다. 얼마나 속이 탔으면 애용물인 전자계산기 생각을 잊었으랴.

동석은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네모난것을 꼭 가슴에 눌렀다.

그리고는 입술을 깨물고 중얼거렸다.

《한피줄, 한피줄… 두마음 두마음…》

얼마후 아버지는 차를 타고 급히 어데로 떠나갔다. 기사장과 직장장, 기술자들이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가 탄 승용차를 바라우고 서있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선전실로 모였!》

대범의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동석은 편뜯 정신을 차렸다.

선전실에서는 청년들의 격식없는 회의가 벌어졌다. 여기서는 가스폭발방지장치의 설치를 위하여 높은곳에 올라가 연공들과 함께 작업할 돌격대원을 선발해야 했다. 이것은 지배인이 대범에게 준 지시였다.

《그래 누가 연공경험이 있소? 누구를 올려보내면 좋겠소?》

대범은 화학직장의 굴뚝처럼 청년들앞에 우뚝 서서 청년들을 훑어보았다.

맨 뒤자리에 앉을 동석은 대범이가 여느때없이 흥분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청년들은 높은곳으로 올라갈 사람은 연공경험이 있고 어지럼을 타지 않는 사람이여야 한다는 대범의 말해 선뜻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동석은 방금 기사장과 마주섰을 때 흰한 이마밑으로 굳은 결심을 담고 예리하게 번뜩이던 아버지의 두눈이 떠올랐으며 기사장을 비롯한 신심을 잃은 사

람들의 얼굴들이 언뜻언뜻 지나갔다.

(아무래두 아버지의 주장이 옳은것 같아. 폭발이 무서워 중도반단할것이면 애당초 저열화를 시작은 왜 했단말인가?)

불현듯 동석은 큰 주먹으로 흉벽을 치는듯한 맥동을 느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는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대장동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동석은 정말 높은 곳에 오른듯 눈앞이 흔들대고 획 회오리바람이 돌미를 스치는듯했다.

청년들은 대단하다는듯 입들을 벌리고 턱을 젓는다. 일부는 못미덥다는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대범이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동석은 태연히 청년들과 대범을 쭉 돌아본후 결정적으로 말했다.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야 합니다.》

대범의 눈이 황황히 빛을 뿜었다. 숨죽인듯한 침묵이 선전실에 깃들었다. 몇순간이 지나자 너도 나도 다투어 일어섰다. 저마끔 자기가 올라가겠다는것이다. 대범은 다들 앉으라고 소리쳤다.

《그만합시다. 좀더 생각들 해봅시다.》

대범이가 밖으로 나가자 선전실은 소란해졌다. 동석은 대범이가 졸렬하다고 내심 투덜거렸다.

(제길 락하산병이라구 탕탕 호통을 치더니 이런때 갈팡질팡하다니? 흥 아마 내가 못미더운게지.)

그는 더 앉아있을수 없어 밖으로 나갔다. 향방없이 터벅터벅 걷는 발길은 어느사이 저열로가 있는곳으로 향했다.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듯 허리에 손을 찌른 대범이가 로체밀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뜻밖이었다.

X

어딘가 먼길을 다녀온 지배인은 화학직장굴뚝밑에 갓 만들어다 놓은 폭발방지장치를 보러 갔다. 기사장과 기술과성원들이 기술검토를 끝내고있었다. 폭발방지장치를 살펴보고 능력을 확인한 지배인은 그만하면 맘에 든다고 생각했다.

《중소. 래일 마지막시험을 합시다. 그런데 이름이 틀렸소. 폭발방지장치라.》

기사장이 엇그제보다 명랑해진 지배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무엇인가 망설이면서 지배인을 조용한데로 불렀다.

《저 지배인동무가 간 사이 좀 시험해보았는데 폭발은 안된다 하더라도 폭발방지장치로 화염이 나갈것입니다.》

《화염이 나간다? 거참.》

지배인은 외려 좋은 발건을 한듯 활기를 띠었다.

《옳지 폭발방지장치가 아니라 <봉화대>라고 합시다. 3대혁명의 불길을 높이 추켜든다는 의미로 말요. 어떻소?》

기사장은 어정쩡하여 지배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자기도 우스운 모양 허거픈 웃음을 웃었다.

지배인은 돌격대장을 불렀다.

《그래 높은곳에 올라갈 사람을 선발했소?》

《네. 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전 락하산병이였구 돌격대장이 아닙니까?》

지배인은 부지중 대범의 상기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마치 다른 그 무슨 말을 기다리길라도 하듯 ...

《저 기실은 동석동무가 제일 먼저 탄원해나섰었지만...》 대범은 지배인이 기대하는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으나 껍껍거리며 말을 잊지 못했다. 지배인의 피로가 어린 눈은 알릴듯말듯 경련하는것 같더니 황황히 빛났다. 다음 그는 자기에게 쏠린 서로 다른 표정의 눈길들을 감촉하자 어찌선지 우선우선해하였다. 그는 천천히 굴뚝 밑을 거닐었다.

그는 사뭇 흥분한듯싶었다. 직장장, 기사장들은 원망어린 눈길로 대범이를 흘깃 보고나서 긴장과 불안을 안고 화석같이 굳어져 지배인의 거동을 살폈다.

《대범동무, 어쨌든 준비를... 잘... 하시오. 래일 마저 토론합시다.》

《네- 예.》

그제사 굳어졌던 어깨들이 스르르 풀렸다.

...

밤이었다. 동석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거렸다. 아까 자기를 이끌고 굴뚝사다리로 오르던 대범이의 땀발선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자기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것보다 더 기뻐하며 굴뚝꼭대기에 걸터앉아 어깨를 짖 그러안아주던 대범이... 그들과는 반대로 동무가 꽤 그 일을 해내겠느냐고 불안스레 묻던 직장장...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청년들의 얼굴... 그의 가슴엔 흥분과 감동, 자신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위구심마저 파도처럼 밀려들며 숨가빠 흉벽을 두드렸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동석은 모로 돌아누워 눈을 감았다.

《애가 저녁을 먹었소?》

《예, 그런데 몇술 뜨다 말았수. 입맛이 없는지.》

《허-원 당신두. 아침엔 두부탕이라두 좀 마련하우.》

아버지 어머니가 주고받는 말이 들리더니 방문이 열렸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다시 석침하고 조용한 음성이 귀부리 가까이 들렸다.

《애가... 어떤 일을 하려는지 아우? 어떤 일을 하려는지.》

일순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챙기는 모양이다. 문득 결결하고 뜨거운 손이 동석의 뺨과 귀바퀴를 쓰다듬는다. 자꾸, 자꾸.

《너석 뽀쭈귀같이니...》

동석은 확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려 안간힘을 썼다. 이윽고 아버지는 부드러운 모포를 포근히 덮어 주었다. 동석은 찻잔의 눈물을 입으로 감쌀며 소리 없이 흐느꼈다.

아래방에게 어머니의 지청구가 들린다.

《아니 저녁상은 받아놓구. 사진첩은 왜 들여다 보슈.》

《음- 이게 탁아소때 찍은 저 애 사진이지? 이견 유치원때구... 참 우리 작업반 망년회때 내가 안구 찍은게군. 이젠 벌써 저렇게 컸단말이야...》

《오늘은 참 별나워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런거리는 소리는 오래도록 들렸다. 동석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태 모르고 고집만 부린것이 안타까웠다.

(아 나는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시는것만큼 도와드리지 못했지. 울리사랑은 없다더니...) 밤은 눈물 속에 깊이만 갔다.

...아침노을이 공장지구를 붉게 물들었다. 태양을 지평선에서 한껏 미소를 펼치고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출근길에 올랐다.

《그래 네가 자진해나섰단말이지?》

《네.》

아버지는 구내운반차들이 창유리를 번쩍이며 미끄러지는 구내길을 저이기 흥분된 기색으로 스택스적 걸었다.

구내공원의 거무죽죽한 황철나무옹이에서 딱다구리가 벌레를 쫓다 말고 두사람을 자우뚱하고 굽어보았다. 광석은 초조한 기색으로 아버지를 따라 걸었다. 류다른 출근길이었다.

《여계 좀 들렀다 가자꾸나.》

지배인은 탁아소의 꽃벽돌담옆에 이르러 아들에게 말했다.

동석은 의아한 눈빛으로 아버지의 뒤모습을 여겨보면서 미끄럼대며 놀이판이 서있는 마당가로 들어섰다.

꽃바구니같이 여러 색깔의 란간을 빙 둘러댄 놀이장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보육원처녀가 지배인을 보자 뽀르르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포단빨래버치를 옆에 낀 나이 지숙한 소장이 나타났다.

《아이구나 지배인동지군요. 예구, 동석이까지 호호.》

지배인은 소장녀인보다 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동석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자기의 아래우를 장한듯 훑어보는 소장과 아이들처럼 절반만 얼굴을 돌리고 서서 호기심과 수집음어린 눈길을 던지는 보육원처녀를 보자 몸둘바를 모르고 달아오르는 뺨을 문질렀다.

지배인은 소장과 같이 놀이터에 다가섰다.

《어디, 공장<예비부대>가 잘들 크나 볼가?》

아이들이 지배인의 옷자락을 란간안으로 쥐여당기며 야단을 피웠다. 《아빠아빠》 하는 소리가 마당우로 터져올랐다.

한 총각애가 달떡모양으로 입을 방그레하며 오-오 하고 동석에게 고사리손을 내저었다.

아이의 눈동자에 동석의 얼굴이 또렷이 어린다. 영 지워지지 않을것 같은 그 맑아진 눈속의 자기를 들여다보는 동석은 자기가 화분의 꽃들이 살랑거리는 창가너머로 저 화학직장의 굴뚝연기를 잡으려고 손을 내흔들었다던 어머니의 말이 꿈결처럼 되새겨졌다.

《호 참, 지배인동지, 전 동석일 볼 때면 옛일이 생각납니다. 보채지는 않았지만 장난은 세웠지요. 그리구 한번 맘 틀리면 얼려내기 어려웠답니다. 그때제가 요람에 눕히구 <영웅되거라> 하고 노래를 부르면 이내 울음을 그쳤답니다. 그 앤 그 노래를 무척 줄졌거든요. <이담에 뭐가 되려니> 하고 물으면 <영웅, 영웅> 했답니다. 전 생각했지요. 이담에 단단히 한몫 할게라구.>

소장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것 같았다.

동석의 눈앞에는 자기를 요람에서 재우며 자장가를 부르던 젊은 녀인의 모습이 어려왔다.

《어서 커서 영웅되거라...》

애무하듯 부드러운 자장가가 귀전을 아늑히 쓰다듬는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쉼쉼 단잠을 잔다...

《그래 네가 자진해나섰단말이지?》

구내길로 나서자 아버지는 다시 물었다.

《네, 동의하시지요?》

아버지는 피로가 다 풀린듯 팔을 훨훨 저으며 《제비》 담배를 맛나게 들이키었다.

《동석아, 아버지에게 의견이 많지?》

아버지는 정깊게 아들을 돌아보았다. 동석은 기다리는 대답은 없고 그런 말부터 하는 아버지가 야속했다.

《동석아!》

하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의 아들을 부르듯 다정하게 부르며 스택스적 걸었다.

《방금 소장동무 말따나 넌 어렸을 때부터 <영웅될래요>라는 노래를 부르며 컸지. 당과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구말이다.

그런 사람이 꼭 될걸 바래서 내가 실은 소리두 하구 앓을자리 설자리를 가르치며 보살피는것이다. 왜냐면 난 지배인이구 또 아버지이다.》

저벽저벽 아침의 고요를 깨뜨리는 두사람의 발소리는 한사람의것처럼 울렸다. 동석은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의 입김이 가슴으로 뜨겁게 흘러드는 듯했다.

화확직장으로 가는 갈림길에 이르러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었다.

《동석아, 내 옛그제 연구소에랑 다녀왔는데 이번 저열화시험이 어려운것이라고 다들 고개를 젓더라. 하지만 내 생각엔 너와 대범이랑 발벗구 나서니 기어이 될것 같다. 어디 말을 낸이상 큰 맘먹구 잘해봐라.》

《네! 정말입니까?》

동석은 기쁜 나머지 펄쩍 뛰었다.

《아무렴, 적화구를 막으러 나가는 아들을 막아설 내가 아니다!》

동석은 아버지의 확신과 담력, 근엄한 빛이 번뜩이는 서늘한 눈을 바라보며 갑자기 송엄한 마음의 절정에 오른듯 어깨가 높아짐을 느꼈다.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아버지.》

그는 심장으로 기운차게 대답했다.

현장쪽으로 뛰어가던 동석이 어째선지 도로 달려왔다. 전자계산기가 생각나서였다.

《아니 이게 어데 있더냐?》

수지유리로 정교하게 만든 새팍안에서 계산기를 꺼내보며 아버지는 놀라는것이였다. 그리고 팍뚜껑에 《한마음》이라고 금박을 박은것을 흐뭇이 들여다본다.

《한마음이라! 녀석두...》

동석은 말없이 빙긋 웃고 달려갔다.

굴뚝우에서는 어느덧 《봉화대》의 설치가 끝났다. 붉은 기발과 대공전화기를 손에 든 대범이, 손채양을 한체 까딱않고선 직장장과 기사장, 로동안전원들을 보는 지배인은 한결 젊어지는것 같았고 갑자기 담력과 일욕심이 온몸을 휘감는것 같았다.

《자 시작합시다!》

지배인은 오른손을 버쩍 쳐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곧 신호수가 빨간 기발을 높이 쳐들었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 태양이 하늘을 들어올리며 한껏 미소하고있었다. 고공 40미터를 향해 철바구니에 올라선 청년들이 분출기를 번혀잡고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지배인은 조용히 걸바람에 옷자락을 나뭇기며 고개를 치어들었다. 그의 눈은 범발같은 통장갑들을 쇠바구니에 걸치고 서있는 청년들속에서 아들을 찾았다. 어느 청년들과 다름없이 검누릿해진 방열복어깨에 안전띠를 두르고 대공 전화기를 맨 동석의 모습은 해별에 고등색으로 번쩍이며 눈시굴게 파란 하늘로 그냥 올라만간다.

지배인의 눈앞에는 어렸을 때의 아들의 모양이

언뜻 떠올랐다. 배게통을 피이고 아버지의 잔등으로 기어오르던 동석이, 꺼칠한 턱으로 뺨을 부벼주며 눈을 지르감고 깔깔거리던 아들, 뒤통수에 뽕죽한 제비꼬리와 물고사리같은 손의 보드라운 촉감,

...그리고 아버지앞에서 꼬부리고 앉아 종다리가 저러오는것도 참으며 수학문제를 풀던 모습, 썰매를 만들어달라고 칭칭 조르던 일, 지배인은 지금까지 아들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도 적은것만 같아 애짹짹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정녕 자식에 대한 사랑이란 고통이기도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쁨이기도 한것 같았다. 이제 그 기쁨이 현실로 나타날 순간이 온것이다.

《분출기설치가 다 났습니다.》

기사장이 대공전화기에서 입을 떼며 말했다.

《저열로를 가동하시오, 분출기의 전원을 련결하시오. 분출기의 계기를 잘 살피라고 하시오.》

지배인의 말이 대공전화기를 통해 전달되였다. 굴뚝을 쳐다보는 모두의 얼굴이 긴장해지는것이 알려졌다. 결정적시각이 다가오고있었다.

동석은 굴뚝의 쇠란간을 짹 틀어쥐고 될수록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난생 처음 이런 높은곳에 올라보는 그였다.

굴뚝우의 바람은 더 세차게 불어쳤다. 아차하는 순간이면 날려갈듯 극성스레 옷자락을 나꾸챈다. 바둑판 같은 구내가 휘 돌아가는것 같고 굴뚝이 광풍소리를 내며 넘어지는것 같았다. 학교 때 회전사다리를 탔다는 연공 명삼은 담이 큰체를 하면서도 동석에게 바짝 다가붙었다.

《일없어.》

동석은 자기의 나약성과 용감성이 격렬한 싸움을 벌리고있는 내적충동을 위안해보려고 명삼의 《안전모》를 툭툭 털어주고 바로잡아주었다.

대공전화기가 듣기중계 뽕뽕거린다.

《분출기, 분출기 침착하라. 계기를 잘 살피라.》

동석이들은 분출기조작에 착수하였다.

드디어 지배인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되었다구 전하시오. 계기에 가스부압이 걸리는가를 알아보시오.》

기사장은 대공전화기를 으스러뜨릴듯 짹 틀어잡고 안타까이 웨쳤다.

《분출기, 분출기, 계기에 부압이 걸리는가? 걸리는가?》

대공전화기에서는 뜻밖에도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저열로 저열로, 계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부압이 전혀 없다. 저열로!》

《응? 부압이 없다구?》

지배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기사장, 직장장, 다음은 로동안전원들의 눈이 커지며 지배인을 보았다.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부압이 없대요.》

《시간이 다 되였다.》

지배인의 눈에 불길한것이 번뜩하였다. 시계의 초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가 범벅이 되었다. 굴뚝밑의 청년들은 어깨성을 쌓은채 물려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옷자락들이 찢길듯 펄럭거린다.

《용기를 내라고 하시오. 용기를!》

거의 자신에게 부르짖듯 지배인은 웅쳤다. 다음 순간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할지 미처 용단이 서지 않았다. 그는 두눈을 똑 부릅뜨고 악골을 불끈거려였다.

(가스가 분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것인가? 아니면 로를 끝짓인가? 굴뚝밑에 포화된 가스는… 끝… 분출기를 폭발시킬수 있다.)

불현듯 귀중한 청년들 대를 이을 후대들이 있다는 생각이 못견디게 그의 흥벽을 두드렸다. 다시금 눈앞에는 베개통을 피이고 잔등에 기여오르는 아들, 짹짹대는 웃음소리, 어렸을 때의 동석이가 눈굽을 지지며 얼른거렸다.

(로를 꺼야 한다. 아니 그러면 이번 시험도 실패가 아닌가?…)

《저열로를 끄시다. 지배인동지》 다급한 속삭임이 귀전을 때린다.

그러나 이 순간 갑자기 사나와진 목소리가 대공전화기를 드릉드릉 울렸다.

《저열로! 끄지 마시오! 끄지 마시오! 저열로!》 동석의 목소리였다.

지배인에게는 가느다란 굴뚝끝이 둘로 보였다. 파란 하늘이 붉어졌다 꺼매지였다. 그는 두눈을 비비고 더 크게 눈을 사려땀다. 거기에서 청년들이 서로 어깨를 떠밀며 싱갱이를 하고있었다. 대공전화기의 각이한 웨침소리.

《안되오. 동석동무, 내가 남겠소!》

《내가 남아야 하오!》

《내가!》

《내가!》

이어 동석의 갈린듯한 웨침이 울렸다.

《어서들 내려가시오! 여기는 내가 지키겠소!》

너무나도 강경히 울리는 그 소리에 재빨리 하나 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것이 보였다. 분출기에는 동석이만이 남았다. 그는 조절장치우에 가슴을 덮으며 잔뜩 몸을 타고있었다.

지배인은 얼어붙었던 불안이 활 풀려내리는듯

하였다. 그는 아들을 믿고싶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대공전화기를 당겨쥐었다. 이때 뇌리에 무엇인가 번개처럼 스치는것을 느꼈다.

《분출기, 분출기! 조절장치를 최대에서 최소로 급속히 다시 틀라!》

동석의 안간힘을 쓰는 소리가 동안 뜨게 뒤따랐다.

《알구… 있어요… 최대 하나… 최소 둘… 셋… 넷…》

현훈증을 일으킬듯한 팽팽한 몇초가 굴뚝밑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타고 지나갔다. 이찰나 누군가 《불길이다!》 하고 웨쳤다.

《응!?!》

지배인은 뿌듯 이를 갈았다. 굴뚝우에 황하고 불몽치가 솟구쳤다. 동석은 보이지 않았다. 불길은 곧 짙은 연기로 바뀌어 하늘을 질렀다. 모두 얼굴을 싸쥐었다. 그러나 지배인은 눈길을 떼지 않았다.

《동석아… 용기를…내-라!》

목이 꺾 막혔다. 겨불냄새가 났다. 마음은 지금 아들과 한몸이 되어 연기속에서 싸우고있었다.

연기가 설피어졌다. 사다리로 내리던 청년들이 어느사이 분출기로 뛰어올라 동석을 부축해 일으켰다. 동석은 지친 팔을 늘어뜨리고 천천히 아래를 굽어보며 속삭였다.

《지배인 동지, 제품이…잘…나오는가…보라요.》

《그래. 동석동무 잘 나옵니다.》

지배인은 저열로에서 달려나온 기록원처녀의 손에서 잉크가 마르지 않은 수치를 보면서 힘주어 대답했다.

왁작 떠들던 사람들이 잠잠해졌다. 동석이가 내려오고있었다. 자기절로 천천히 무겁고 지친 몸을 지그시 가누며 사다리를 내렸다. 경탄, 믿음, 사랑이 젖어흐르는 눈길들이 동석을 따뜻이 감싸고 쓰다듬으며 안아내리고있었다. 지배인은 그제사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름모자를 벗어두고 한발 두발 앞으로 나가는 직장장, 두팔을 벌려들고 눈귀추름을 실룩이는 목형공령감 그리고 또 물기가 어린 탁아소 소장의 얼굴도 보인다. 소장은 지배인과 눈길이 마주치자 흑 느끼며 눈을 싸쥐었다. 지배인은 다시 머리를 들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연기에 그슬은 검붉은 아들의 얼굴이 한눈에 안겨온다.

《장하다! 이제 너는 한낱 <지배인 아들>이 아니라 공장의 아들, 로동자들의 아들이다!》

동석은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조여드는듯했다. 삽시에 갈증이 났다. 힘껏 번디던 다리가 부르르 떨렸다. 굴뚝이 휘청거리는것 같은 빈혈, 흐리마리해지는 정신.

(왜 이럴까... 왜)

동석은 땀뻘해오는 손으로 꼭 쇠다리를
거머잡으며 아래를 굽어보았다. 허리에 한팔을 짚은
아버지와 손채양을 한 직장장이 까딱않고 자기를
올려다보고있었다. 그 주위로는 누가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하얗게 모여있었다. 그들은 발을 구르고
손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동석이, 우리 동석을
부르고있다.

《아, 나의 동무들, 나의 아버지, 나의 공장...》

주르르 감격의 눈물이 불을 타고 흘렀다. 저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자기를 이 높은곳으로 쏙
떠올린듯하였다. 한없는 행복의 절정에 오른듯
가슴은 환희에 휩싸고 청춘의 심장은 흐뭇이
뛰놀았다.

《아버지...아버지는 바로 이런 자리에 나를 세워
주시려구 것처럼 애쓰셨구나.》

동석은 조용히 속삭이였다. 이 순간 몸이 그대로
아버지의 가슴에, 아니 바다속같은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던져지고싶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의
숨결속에서 이 새로운 위훈의 탑,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얼굴과 함께 익혀왔고 걸쭉한 땀을 흘려온
이 아름답리 굴뚝을 대를 이어 영원히
지켜가고싶었다. 그리고 만약 조국이 부른다면
적화구라도 서슴없이 맞받아나가고 싶었다.

태양은 동석의 머리에 그물거렸다. 까치 한쌍이
산호발같은 굴뚝연기를 감돌며 즐거이
날아예고있었다. 아마도 어제아침 백양나무에서
우짖던 까치들일것이었다.

가사

인민의 강 대동강이여

림호권

천리물길 정다운 어머니강아
세월의 눈비를 어이 겪었나
사람들도 너의 기슭 떠나갔나니
숨막히던 그 세월 눈물이더라

아 대동강 대동강
언제나 잊지 못할 인민의 강이여

유서깊은 만경봉에 꽃구름 피던
뜻깊은 그 아침을 어이 잊으랴
만백성의 축원신고 설레었으니
그날부터 너의 흐름 희망이더라

아 대동강 대동강
한없이 소중한 인민의 강이여

눈보라 만리길에 속영의 밤에
수령님 들려주신 너의 이야기
오늘은 불멸의 해불로 비껴
영광 넘긴 너의 강반 락원이더라

아 대동강 대동강 사시절
아름다운 인민의 강이여

나의 꽃

배현숙

한시절에 피었다
지고마는 꽃이라면
이 마음 그리도 못잊어
설레이지 않으리

설레이지 않으리
아니 보면 잊고말 꽃이라며는
때없는 그리움에
모대 기지 않으리

아, 가슴속 깊은곳에
언제나 함께 사는
그대, 서정애동지여
마음속 향기높은 나의 꽃이여

화려한 꽃밭속에
그대 피지 않았더라
준엄한 그 시절에
태양의 빛발 안고 피어나
품은 뜻 변함없이
피어린 길도
웃으며 걸어간 그대

조용히 귀기울이면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에도 울려와라
노을비낀 송화강가
그대 부르던 신념의 노래
한별의 노래

한별을 부르며 그리며
마지막 숨결을 모으던
그 열렬한 흙모의 정
순결하고 그윽한 마음의 그 향기
오늘도 이 가슴에 목메여와라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변함없이
그대의 눈빛은 환희로 빛나고
그날처럼 그날처럼
귀밑머리 날리며
그대 끝나지 않은
투쟁의 길을
우리 앞장서 가고있나니

아, 혁명의 려명기
우리 수령님 받들어
아름답게 피어난 붉은 꽃송이
영원한 조선의 꽃이여

나도 피리
그대처럼 뜨거웁게
그대처럼 순결하게
향도성 우러러
한떨기 향기 진한 꽃송이 되리라
나의 꽃, 나의 향기
서정애동지여

(검덕광업종합기업소 1공무직장 노동자)

사랑의 하늘 외 1 편

리준

노을이 곱게 피는 새벽이다
옥이야, 어서 창을 열렴
이 아침도 맑은 하늘이
너와 나 우리의 머리위에 비졌구나

이 아버지 목을 끌어안고
그저 좋아라 웃는 딸아
새벽 창가에서 버릇처럼
저 하늘을 쳐다보는 이 마음
언런 네야 어찌 알수 있으랴!

밤이 가고 아침이 밝아와
푸르게 열린 하늘이 아니란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와
꽃향기처럼 흘러드는 공기가 아니란다

저 하늘이 한줄기 불연기로 흐렸던 그날
우리네 화학도시에 오신 수령님
그것이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달리던 차도 멈추시고
바라보시고 또 보시던 하늘이다

그 하늘이 흐린줄 우리 알지도 못했건만
그 하늘이 흐렸다고 탓한적도 없건만
카바이드 불길앞에 선 전로공들이기에
새들이 날아드는 맑은 하늘을 펼쳐주자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신 수령님

하루일 끝마친 저녁이면

기다려 불밝은 정양소도 마련해주시고
이 땅의 사랑은 모두 주시였건만
하늘가의 그 한줄기 연기가
그리도 마음속에 깊이 안겨있었던가

아, 오로지 로동계급 위하신
사랑의 뜨거운 손길로
떠도는 그 연기를
밀폐로속에 찾아들게 하셨구나!

보아라
이 아침 높푸른 저 하늘아래서
공장구내 푸른 숲은 해빛안고 설레고
온갖 새들 날아들며 정답게 우짖는구나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누나

옥이야, 전로공 이 아버지
더 많은 돌물을 뽑고뽑아
너희들의 그 비날론 나비옷과 꽃신
너희들의 그 꽃이불과 솜외투들
저 하늘에 층층 닿게 하기전에야
가슴펴고 몇몇이 볼수 없는 하늘이다

어서 창을 활짝 열렴!
수령님 사랑의 손길에
거울처럼 닦고 또 닦아
너와 나 우리의 머리위에 펼쳐준
맑고 푸른 화학도시의 하늘이다

돌과 속삭이노라

그 언제 생긴 말미던가
그 누가 먼저 일러왔던가
차디찬 돌이라고
말없는 돌이라고

저녁노을 피어나는 산정에서
내 잠시 착암기를 놓고
소중히 두손에 쓸어안은
희디흰 한덩이 석회석
불수룩 유정한 이 돌

너는 이 순간에도

내 손에서 चु추며 흘러내려
끝없이 쌓이는듯하구나
눈부신 비날론숨으로
폭신한 모비론숨으로

너는 속삭이누나, 안겨주누나
꽃담요속에 잠든 귀여운 내 딸의 숨결을
찬장에 차곡차곡 꽃그릇 없는
나의 안해, 이웃 너인들의 즐거운 미소를
만풍년의 전야에 이랑이랑 물결치는
금나락의 끝없는 설레임소리를...

그 언제 생긴 말이던가
그 누가 먼저 일러왔던가
차디찬 돌이라고
말없는 돌이라고

네가 모두 간직했구나
사시절 봄날같은 따스함
네가 다 들려주누나

이 땅에 넘치는 웃음과 노래

아, 정녕 그래서 캐고캐어도
나의 힘 진할줄 모르는
기쁨의 돌, 행복의 돌!
수령님 사랑속에 꽃피나는
천만가지 행복의 무게가 다 담긴
내 나라의 소중한 돌이어!

너의 만풍년은, 설레일 만풍년은

김휘조

별아, 잠결에도 못잊는 별아
이 아침도 서둘러 들길을 걷는 이 마음
관개수 푸른 물도 비껴담고 흐르느냐

배낭메고 내가 온 들길 저끝까지
하얀 벼꽃을 어서 피우고싶어라
수령님 환히 웃으시며 바라보실
금나락 물결을 어서 펼치고싶어라

해살물고 움트는 새싹을 보아도
눈같은 비료를 쥐여볼 때도
마음속엔 그 한생각

찬이슬에, 흙물에 옷자락 젖으며
이른새벽 들길에
새 농기계를 굴러갈 때도
마음속엔 그 한생각

따뜻한 손길인양 비닐박막 하얀
저 랭상모판엔 예 마음 씨앗과 함께 묻었네
소조원 값높은 이름 나에게 준
당의 뜻 푸른 벌로 펼쳐가나니

봄날에 피어나는 그 모든 소원
가을날 기쁨으로 무르익혀주며

농장원들과 함께 들길을 걸을 때에도
마음속엔 그 한생각-
지하수 물줄기 더 많이 끌어내어
우리 가꾼 이 벌에서 기쁨을 드리자고

별아, 아지랑이 굵실이는 저끝까지
이 마음 벼포기마다 흘러흘러
날알의 향기로 들을 덮으리니

저 하늘이 찬서리와 열풍을 몰아와도
이삭꽃이 이슬물고 활짝 필 때에
이 마음 꽃으로 피어난줄 알아라
알찬 이삭 넘칠듯 설레일 때에
이 마음 영글어 설레는줄 알아라

어제도 오늘도
간절한 생각 불타는 우리 마음속엔
따뜻한 햇빛도
땅의 자양도 다 있어

별아, 너에게 가을은 세월따라 오지만
너의 만풍년은, 설레일 만풍년은
수령님께 기쁨드릴 한생각
언제나 불타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따라 오리라

기다리는 집

오재신

풍어의 노래를 싣고
기쁨을 싣고
만선기 날리며 돌아올 때면
나를 반겨 아, 나를 반겨
마주오는 집

다심한 어머니런가
정든 포구에
활짝 문 열고
나를 불러 아, 나를 불러
맞아주는 집

이 밤도
잠들줄 모르는
기다리는
당위원회, 바다가의 집이어

먼 바다어장
별무리 내리는 밤에도
언제나 함께
배길을 달리며
추어전의 통쾌한 순간으로
나의 성장을 받들어주지 않았더나

물결소리 정다운 기슭에
어로공주택지구-
그 창들엔 어둠이 깃들고
소리없이 정적은 깊어만 가도
잠들줄 몰라라
파도를 넘어온 이 가슴을
뜨거운 격정으로 들떠워주고...

아, 우리 어로공 한사람 한사람
그 한품에
귀중히 안아주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언제나 우리곁에 있었더라

파도머리만 좀 높아져도
조심들하라고
바람꽃만 좀 피어도
어서 돌아오라고
전파를 날리던 뜨거운 마음
등대불이 미치지 못하는곳에 닿아있어라

바다에서 돌아온 이 저녁
사나운 파도에도
드놀지 않던 사나이 이 가슴
고마움에 젖어
정다움에 젖어 뒤설레이고...

대양 한끝
그 어디를 가도 어디에 있어도
그 마음에 받들려
수령님 품에 안겨있기에
힘과 용맹이 온몸에 약동하여라

아, 바다가의 집
나를 반겨 나를 반겨
이 밤도
잠들지 않고
기다리는 집이어

금강문의 소나무 외 1편

리광근

보이느니 푸른 바다
맑은 물위에 기암괴석
물결 저 멀리 해금강의 관문이런가
파도속에 서있는 바위문
그우에 한그루 소나무 나를 불러라

늪실거리는 물결위에 솟아난 바위
열려진 대문같은 모습 기이하건만

그우에 한그루 소나무 푸르러
사람들 마음을 이끄나니
해금강 절경에 또 절경이여라

언제 어느때부터인지 뉘 알라
아마도 금강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이 나라 인민의 한마음이
바다우에 바위문으로 솟아나 금강문

그우의 소나무는 그 초병이런가

바위는 바다밑에 뿌리를 박아
천년세월 파도에도 끄떡이 없고
소나무는 그 바위에 뿌리를 박아
천년세월 마름을 모르는 해금강 맑은 물로
푸르청청 해풍에 설레이나니

소나무, 소나무
금강문 바위우의 푸른 소나무

해금강의 절경을 더해줘서만
네앞에서 내 발길을 멈춰섰더냐
내 마음 네 가까이 다가서더냐

어제날 금강산을 지켜 한목숨 바친
젊은 병사들의 넋을 지냈기에
네 모습 금강문에 푸르려 내 마음 이끄나니
그날의 젊은 병사들과 다름없으리라
이 한몸 금수강산을 지켜 너처럼 푸르려

다시 찾아본 구룡폭포

하도 높아 머리 젖히고 올라다보니
눈부시게 절벽으로 내리쏟는 폭포수
아득히 치솟은 바위끝에
하늘 한쪽이 걸려
땅밑으로 무너져내리는가
폭포소리 그래서 지동치는듯

까마득한 절벽
내려쫓는 폭포수
맑은 물 구룡연에 취해
처음 오는듯 다가서는 발걸음은
내 언제인가 찾아왔던 그자리

너를 찾아 10년전에 서있던곳에서
다시 찾아 너를 보니
그 절벽에 그 폭포수
굽어보니 구룡연 맑은 물도
그날의 푸른 정기로 나를 맞는구나

오랜 세월에 산천이 변한다지만
당의 해빛 파사로이 비치여
금강의 구룡폭포 네 모습
오늘에 더 아름다와진것이나
어제날 너를 찾은 그날의 젊음으로
네앞에 서있는 이 마음 설레여

폭포소리에 화답하듯 한소리 치니
그때보다 폭포소리 더 세차진듯
얼굴 비치는 런못도 더 맑아진듯
보이는것 들리는것 예나 다름없건만
10년의 나날에 내 마음도 다름없었던가

세월은 흘러흘러도
파사로운 당의 손길에 변함없는 그 모습
구룡연, 너를 찾아 10년, 또 10년후에 와도
너의 절벽을, 장쾌한 폭포소리를
아, 너의 푸른 물을 안고오리라

평양의 하늘아래서

-통일혁명당의 한 대표가 부른 노래-

변흥영

창가에 드리운 버드나무 잎새들에
청신한 아침이슬이
내 기쁨처럼 반짝이는구나
온밤 잠못이룬 흥분이
이 가슴에 벅찬 숨결로 뛰는구나

파도세찬 남해의 섬기슭에서
내 마음 언제나 달려오던 평양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뵈오며
대회장의 연단을 눈물로 적시던
그 감격속에 상기도 서있는듯

자애넘치신 안팎으로
친히 마주나오시여
이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던 수령님
위대한 그 품에 얼굴 묻은채
흐느껴울던 그 행복이
이 아침도 나의 온몸을 휩싸는구나

아, 어버이수령님을 한번 뵈오면
평생에 한이 없겠다던
남녘겨레들의 그 소원이
가슴속에 눈물로 차올라서

수령님을 만나뵈옵거든
축원의 인사를 올려달라고
간절히 당부하던 전우들의 모습이
삼삼히 눈엔 밝혀와서
아뢰고싶던 이야기조차 못올렸던가

어버이 품에 안겨
자주 들먹이는 나의 어깨를
조용히 어루만져주시던 그 손길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만나니 기쁘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하시던 그 말씀

-나는 동무들이 항상 보고싶소
동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소

아, 깊은 밤에도 동트는 새벽에도

먼 남쪽하늘을 바라보시며
간고한 길을 걷는
남녘투사들을 그려보시는 수령님

파쑸의 총칼아래
인간의 모든것이 짓밟힌 남녘땅
그 모든것을 되찾아야 하는 준엄한 싸움길에
사랑하는 전사들을 두고계시는
아버이 그 심중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피어린 그 길에서
남녘투사들이 바라는건
오직 하나 수령님의 안녕뿐
전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은
오직 수령님 바라시는
통일혁명의 승리 위해 있건만

오, 미제와 파쑸무리들을 쓸어버리지 못하고
어버이를 만나뵈온 이 가슴
피가 끓는다
끓음이어, 너는 무엇때문에
내 심장속에 뛰는것이냐
위대한 수령님께
통일혁명의 승리를 안고오지 못할진대
나의 생명 나의 청춘이 무슨 소용이라

나는 가리라
남녘이어, 전우들이여
이 아침
평양의 푸른 하늘밑에서
피끓는 심장속에 다지는 맹세
내 떠나온 남해의 섬기슭에
반미자주화의 화불로 들고가리라

아아 통일의 단상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뵈옵고
온 민족의 환호로
전사의 보고를 올릴 날은 오리랴
이 아침처럼
밝고 눈부신 해빛에 싸여
내 가는 앞길에 그날은 일어서리라!

판화수업

김금녀

《호! 내 생각이 짧았어...》

리홍련선생은 두손으로 뺨을 고이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책상우에는 도화시간에 그린 학생들의 그림이 무드기 놓여있다. 그림들은 거의가 락서나 되는대로 칠한 장난같았다.

(이 아이들에겐 표현의욕이란것이 전혀 없는 가봐...)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 학교에 온지 눈깜짝한 사이에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그동안에 단 한번도 자기의 뜻대로 도화수업이 진행돼본바가 없는듯싶다.

어릴적부터 그림그리기를 무척 좋아해서 조선대학교의 사범교육학부 미술과를 졸업한 그는 큰 포부와 희망을 안고 초급부 교원으로 나섰다.

그림을 통한 정서교양에 힘을 들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더 잘 교양해가자고 은근히 결의 다졌던 그였다.

(학생들에게 그림그리기를 가르쳐주자. 그래서 일요일에는 함께 스케치도 하러 가고 학생들의 표현의욕을 돋구어주자.) -제편에는 무척 흐뭇하고 꿈많은 포부를 품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공상이였다고 그에게는 생각되었다.

학생들은 《그림그리기》에 너무도 관심이 적었다. 관심이 적을뿐더러 도화시간을 무슨 놀음시간으로나 아는지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 시간이 다 되면 되는등마는등 다 그리지 못한 그림을 제출하기가 일쑤였다.

(현실이란 다 이렇가?... 아니야, 다른 학교에 갔으면... 이러지 않을지도 몰라... 여긴 조건이 너무 나빠...)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한 리홍련선생은 훌끔 고개를 들어 창가를 바라보았다.

일요일이라 운동장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는 운동장 담장 저너머에서 오늘은 한층 더 흥성거릴 조선인상점거리의 변화한 광경이 그려 졌다.

《선생님, 리선생님, 자 합시다!》

힐끔 돌아보니 교무주임선생이 체육복을 입고 문가에 서있었다.

리선생은 영문을 몰라 두눈을 슴벅거리며 물었다.

《한다니요? 무얼말이에요요?》

《아이구, 선생님도 참!》

교무주임은 어이가 없다는듯이 뒤말을 이었다.

《머칠전에 얘기했지요. 이번 일직날에 함께 벽의 락서들을 다 지워버리자구요.》

리선생은 그제사 머칠전 교무주임선생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아이, 내가 깜박 잊었네요. 미안해요. 내 곧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리선생은 급히 교원실로 달려갔다.

복도벽에는 학생들의 락서가 꽤 많았다. 뭔가 날카로운것으로 벽을 파낸 흔적까지 있다.

선생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꾸지람을 해도 학생들은 듣지 않았다.

락서는 해면이나 솜에 약물을 발라닦으면 곧 지워졌으나 칼끝으로 파낸 흔적들은 메우기가 꼭 힘들었다.

리선생과 교무주임선생은 조심조심 뽕끼칠을 하며 홀을 메꿔나갔다.

어느덧 교무주임선생의 옷은 땀에 흠뻑 젖고 리선생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돌아났다.

《학생들은 어찌면 이렇게 못된짓을 자주 할가요?... 닥고 칠해도 어느새 또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말 막무가내지요.》

땀이 난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리선생은 중얼거렸다.

(일요일에는 함께 스케치? 호- 스케치가 뭐람... 장난치는 학생들의 뒤를 따라다니기도 바쁜데...)

자기의 리상과 너무도 거리가 먼 이 《일요일의 작업》이 리선생에겐 더없이 민망스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교무주임선생은 무엇이 그러도 유쾌한지 코노래까지 부르며 작업에 여념이 없다.

《아-야! 이거 또 대담하게 해놓았군!》

교무주임선생의 코노래가 갑자기 멎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다.

리선생이 그쪽을 보니 교무주임선생은 감심한듯이 벽의 한곳을 지켜보고있다.

《또 뿔이 있나요?》

어리둥절해서 교무주임결으로 다가간 리선생 역시 놀라서 두눈을 슴벅이였다.

벽에는 큼직하게 《나무》가 새겨져있었다. 어찌나 대담하게 흠을 파고 새겼는지 굵직한 나무줄기며 사방으로 뻗은 가지며 잎에 이르기까지 특징이 잘 나타났다.

《아이, 불만한데요.》

리선생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새어나왔다.

장난질치고는 《불만한》 그 나무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니 《나무》 아래에 《박성지》라는 이름이 새겨져있다.

(아니, 성지가…)

리선생의 눈앞에는 자기의 담임학생인 박성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뜻밖이었다.

성미가 거칠며 무엇이든 끝까지 해낼 근기를 못가지고있는 박성지였다.

이전에도 책상이나 벽에 칼로 장난질을 하여 몇번 꾸지람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불만한》 걸 새길줄은 몰랐었다.

(박성지, 그 학생에게 이런 세밀한 관찰력과 근기가 있었던가?…)

리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참이나 그 《나무》를 지켜보았다.

사실 박성지는 학급에서도 제일 골치를 아프게 하는 학생이었다.

거칠고 침착하지 못한 그는 공부는 물론이고 운동에도 음악에도 흥미를 붙이지 못했다. 동무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항상 혼자 지냈다. 학교에 재미를 붙이지 못했고 따라서 학교에도 자주 나오지 않곤 하였다.

학교에 나오더라도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수업시간에도 혼자 장난질을 하거나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기가 일쑤였다. 얼려도 꾸지람을 해도 좀처럼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 응당 실력도 학급에서 제일 뒤떨어졌다.

(호! 정말 골치거리야…)

박성지생각을 하니 리선생은 절로 기분이 우울해졌다.

리선생의 머리속에는 두주일전 박성지를 찾아 그의 집으로 가정방문을 갔던 일들이 되살아났다.

아버지를 몇년전에 여의고 어머니가 작은 술집을 차려놓고 근근히 먹고 사는 박성지네 집안은 몹시 어수선했다. 밤늦도록 정방일을 보고 새벽에야 잠을 자는 성지 어머니는 성지며 성지누이동생에게 밥을 해먹이기가 고작이고 《가정교양》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다.

어느모로 보나 《교육적인》 환경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성지의 학과성적이 왜 그리도 나쁜가고 그 원인을 리선생에게만 따져묻는 것이었다.

《왜 그 앤 학교에 그렇게도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것 일가요?》

어머니가 리선생에게 던진 이 말은 도리어 리선생이 어머니에게 묻고싶었던 말이었다. 그러나 홀어머니의 몸으로 아이들의 성장만을 믿고 억척같이 일하며 살아가는 그 어머니로 보면 어쩔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타이른 리선생이었다.

어떻게 하면 성지가 학교에 재미를 붙이겠는가?

《그러한 학생일수록 칭찬을 해주고 자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전번에 있었던 교원모임에서 누군가가 리선생에게 한 말이다.

(할만한것이 있어야 칭찬도 하지 않겠는가. 설마 벽에 새겨놓은 이걸 가지고 잘한다고 칭찬할수야 없지 않는가…)

성지가 파낸 자리에 뿔끼를 칠하면서 리선생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지가 새긴 그 《나무》를 지워버리기가 어쩐지 아깝게 여겨졌다.

(사실 잘 새겼어…)

그 순간 리선생의 머리속에는 묘한 생각이 떠올랐다.

(새긴다! 새긴다! 그렇게 새기는걸 좋아하니 판화를 시켜보면 어떨까?)

《판화! 그래, 판화가 좋아!》

뿔끼 묻은 솔을 들며 갑자기 큰소리로 중얼거리는 리선생을 교무주임선생이 의아쩍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X

《판화》-흑판에 큼직하게 이렇게 쓴 리선생은 몇가지 판화작품을 내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판화는 하얀데와 검은데의 차이로 사물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판화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판화칼, 판, 비비개 등 판화용구를 하나하나 보이며 설명해갔다.

학생들도 오늘은 류달리 열심히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 판화칼을 쓸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을 강조하고는 판화도구를 나누어주었다.

《야!》

학생들은 환성을 지르며 처음 보는 판화칼을 가만 가만 만져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했다.

(음… 꽤 마음들에 든것 같구나. 이 관심과 흥미를 지속시킬수만 있다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선생은 종이를 나누어주고 먼저 판화의 밑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학생들은 빨리 파고싶어 못견디겠다는듯 밑그림을 대강대강 그려놓고는 판을 달라고 졸라댄다. 리선생은 판화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귀중히 여겨 잔말없이 판을 나누어주었다.

학생들은 모두 열심히 판을 땀다. 그림그리기를 싫어하는 철남이도 영호도 꽤 열중하고있다. 성지는 어찌나 열심히 파는지 몸을 오그린채 얼굴을 들지도 않는다.

리선생은 흐뭇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켜보는데 어느덧 종이 올랐다.

《자, 그만하세요.》

학생들은 아쉬운듯이 고개를 들었다.

파다 남은것을 숙제로 제기한 리선생은 흡족한 마음으로 교실을 나섰다.

다음 도화시간은 토요일이었다.

《오늘은 동무들이 새긴 판화를 찍어봅시다.》

리선생은 이미 준비해두었던 잉크판이며 잉크, 로라, 비비개, 종이 등을 교실한가운데 있는 책상우에다 놓고 학생들을 그 주위에 모여앉혔다.

《판을 찍는다》는것이 아직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르는 학생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두눈을 반짝인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한장 찍어볼테니 잘 보아요.》

로라에 잉크를 묻혀 판우를 조용히 민다. 균등하게 잉크가 칠해지면 종이를 덮고 비비개로 라선형을 그려가며 조심조심 비빈다.

학생들은 궁금한 눈길로 숨을 죽이며 리선생의 손을 지켜본다. 무엇에든지 무관심하던 박성지도 모두의 틈에 끼여 목을 길게 빼들고 열심히 선생의 손을 지켜보고있다.

리선생은 초롱초롱 빛나는 학생들의 눈빛을 자못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지요.》

리선생은 크게 한숨을 쉬고는 종이의 귀를 잡아 천천히 판에서 떼어냈다.

《야!》

학생들의 입에서 환성이 터졌다. 리선생은 흥분에 싸여 말했다.

《자, 이제 방금 선생님이 하던식으로 모두들 판을 찍어봐요.》

《와-!》

학생들은 조별로 모여 판을 찍기 시작하였다.

《영호, 소매... 소매에 잉크가 묻어있어.》

옷에 잉크가 묻건, 얼굴에 칠해지건 상관없다. 그들은 오직 판을 찍는데만 열심이다.

리선생은 이름할수 없는 그 어떤 궁지가 가슴에 차넘치는것을 느꼈다.

그날밤 리선생은 밤이 깊도록 학생들의 작품을 보았다.

처음으로 해본 일이긴 하지만 수준은 꽤 낮았다.

소요력이 모자란탓인지 무얼 새겼는지조차 모를것까지 더러 있었다. 그렇지만 판을 보면 모든 학생들이 끝까지 검질기게 파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더우기 성지는 누구보다도 간간히 판을 파냈다. 전번에 벽에 새겨 놓은것과 류사한 《나무》를 성지는 새겼다. 칼쓰는 법은 유치하고 미숙하지만 굵은 나무줄기며 우거진 잎들이 섬세하고 힘있게 새겨져

있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작품과 맞씨름한 일은 처음이야. 그러니 이제 조금씩 수준을 올려 가면 되겠지 ...)

리선생은 밤가는줄 모르고 다음 도화시간의 교수안을 짰다.

판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는 일시적인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작품을 새겨가면 갈수록 수업시간이외에도 자꾸만 판을 달라고 졸라댔다.

그것은 판화가 그림이나 공작과는 달리 판을 새기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간다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때문이며 그 특성이 학생들의 연령심리와 기호에 꼭 들어맞았기때문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판화의욕이 높아짐에 따라 뜻밖에도 학부형들속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수업시간에 칼질은 왜 하는가? 아이들에겐 위험한게 아닌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몇몇 학부형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리선생으로서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리선생은 교원의 침착성을 견지하고 판화가 가지는 교육적인 의의에 대하여, 판화지도를 통한 자기의 교양적의도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가진 학부형들은 하여간 될수록 그런 작업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것이었다.

그럴 때면 리선생은 가슴이 몹시 답답해졌다.

오늘도 아침에 한 학부형한테서 판화를 시키게 말아달라는 전화가 왔다.

그러나 리선생은 예정대로 판화를 지도할 마음으로 교원실을 나섰다.

자기 키보다 훨씬 크고 너비가 한발도 더 되는 나무판을 가지고 복도를 걸고있노라니 성지와 철호가 마주 달려왔다.

《선생님, 내가 가지고가겠습니다.》

주눅이 좋고 순진한 철호가 이렇게 말하며 나무판의 한쪽을 들었다. 성지는 말없이 또 다른쪽을 들었다.

《그러세요. 성지랑 철호랑 선생님을 도와주는구만요.》

리선생의 칭찬해두 학생은 병실 웃었다.

나무판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 성지가 문득 입을 열었다.

《선생님, 판화하는건 나쁜 일입니까?》

성지의 질문에 리선생은 《왜 나쁘겠나요. 판화를 하는건 좋은 일이야요. 성진 판화가 싫은가요?》 하고 상냥하게 되물었다.

《그런데도 울어머닌 판화를 하면 날 꾸지람합니다. 공부안하고 장난질만 한다고...》

성지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볼부은 소리로 어머니를 원망하였다. 이번에는 철호가 자기의 아버지를 원망하였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꾸지람하셔요. 나무밥이 나와서 방이 어지럽게 된다고...》

리선생은 대답을 못했다. 그의 심정은 말할수 없이 복잡해졌다.

판화수업을 좀처럼 이해해주지 않는 학부형들이 서운하고 안타까웠다. 그는 자기의 복잡한 심정을 감추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타일렀다.

《성지랑 철호랑 판화를 마친 뒤에 청소를 잘 안하니깐 그러겠지요. 판화를 마친 뒤엔 꼭 청소를 잘하세요.》

리선생은 교실에 들어섰다.

학생들에게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는 교실 뒤쪽에서 판을 자르기 시작했다.

판우에 얹드려 네발걸음으로 판을 자르는 일은 애젊은 처녀교원인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등이며 이마에 송골송골 돌아난 땀을 닦으며 호-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다섯장밖에 자르지 못했는데 어느새 오른손이 나른해왔다.

전화에서 들리던 학부형들의 말이 귀전에 울려 왔다. 볼부은 얼굴로 중얼거리던 성지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다.

(내가 틀렸을까? 판화를 통해서 그 애들을 교양해가자는건 허황한 내 욕망에 지나지 않은것일까? 학부형들의 말대로 다 집어치우는것이 옳은가...)

《호-!》

리선생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선생님! 선생님!》

학생들의 소리에 리선생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성지며 철호, 순희들이 그림을 들고 자기를 지켜보고있다.

《오, 밑그림이 다 되었구만요. 어디 보지요.》

철호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채를 그렸고 영실이는 산을 그렸다. 성지는 마루우에 얹드려 뭔가 하고있는 사람을 그렸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뭘 하고있는지도 분간할수 없다. 그러나 구도가 대담하고 움직임이 잘 나와있다. 뭘 보고 그렸는지 알수 없다.

《이건 뭘 하고있는 사람인가요?》

하고 물으니 성지는 어쭙은듯이 고개를 숙이며 《이것》 하고 리선생이 자르고있던 판을 가리킨다.

순간 리선생의 가슴엔 놀라움과 흐뭇함이 함께 차올랐다.

(판을 자르고있는 날 그렸구나...)

계면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괜찮아요. 판에 옮겨봐요.》

리선생은 애써 대범하게 말하고는 판을 주었다. 자리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보는 리선생은 가슴이 뜨

거웠다.

자기만족인지도 모른다. 그는 무엇이든 진지하게 관찰하고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 마음에 들었다. 판을 자르는 자기 모습까지 그렸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졌다. 더구나 자기를 그린 성지로 보면 담임선생인 자기가 말을 걸어도 듣는지 마는지 멍하니 얼굴만 쳐다보던 애가 아니었던가.

리선생은 새삼스레 흥분과 긍지에 도취되어 다시금 판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자, 나머지 스무장!》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부지런히 칼질을 했다. 칼을 진 손이 전에없이 가볍게 느껴졌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초여름의 시원한 바람이 흘러들어 리선생의 두볼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학생들이 기다리는 여름방학이 멀지 않았다.

X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방학전에 나누어받은 판화편에 제가끔 손때를 묻히며 방학간의 생활을 새겨왔다.

2학기 첫 도화시간에는 그걸 찍고 합평을 하기로 했다.

줄넘기를 하는 약동적인 작품이 있는가 하면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것이 있다. 높은 산을 판것이 있고 바다에 뜬 배를 판것이 있다.

다양한 화폭들속에서 성지의 작품은 류달리 눈을 끌었다.

《자, 모두들 이걸 봐요. 이건 박성지동무의 작품입니다.》

뜻밖에도 선생님의 입에서 《박성지》란 이름이 나오자 학생들은 놀라며 선생님의 손에 들려있는 작품이 아니라 제일 오른쪽줄 가운데에 앉은 성지를 바라봤다.

《자, 여길 보세요. 성지동무의 이 판화는 무얼 새긴것일까요?》

《수영장에서 헤엄치고있는것!》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다.

《맞았습니다.》

리선생은 흡족한듯 말하고는 빙그레 웃었다.

《그런데 이 판화엔 수영장의 물은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모두들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궁금해서 선생님의 얼굴을 뚫히 지켜본다.

《그런데 어떻게 헤엄치고있다는걸 알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말없이 판화작품만을 지켜보고있다.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작품을 지켜보는 아이도 있다.

《자,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헤엄을 치고있다는것

을...》

리선생은 또 한번 넋지시 질문을 던졌다.

《알았습니다! 다리, 다리!》

문득 철호가 큰소리로 말했다.

《예, 철호동무가 잘 보았어요.》

리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성지학생은 해염칠 때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았습니다. 물을 차는 순간의 오무리진 다리를 잘 보고 특징을 잡아 힘있는 선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관화작품을 보고있으면 침병침병 물보라를 날리며 해염치는 소리까지도 들려오는것 같지 않습니까.》

한순간 대답이 없었다. 모두들 가만히 무엇인가 생각하는것 같다.

한참 학생들의 얼굴을 둘러보던 리선생은 다시 말을 이었다.

《성지동무는 다리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새겨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니 다리의 움직임이 더 잘 표현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박성지학생의 이 작품이 매우 잘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지학생이 정말 잘 봤어요.》

리선생은 미더운듯이 성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 성지, 굉장한데...》

성지의 바로 뒤에 앉은 철호가 성지에게 하는 말이었다. 성지옆에 앉은 현숙이는 팔꿈치로 살짝 성지를 떠밀었다.

그때로부터 학생들이 성지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못하는 동무》였던 박성지가 이제는 《관화를 제일 잘하는 동무》로 되었다.

한편으로는 성지에게 지지 않겠다고 모두들 계속 관화에 열성을 내었다. 새롭게 파는 법을 생각 해내자, 아직 누구도 파보지 못한것을 파자- 하고 모두들 머리를 썼다.

날을 따라 작품의 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져갔다. 학생들은 등근칼뿐아니라 평칼, 빗칼, 세모칼 등 다양한것을 가려쓸수 있게 되었다.

도화시간뿐아니라 공부가 끝난 오후시간에도 학생들의 관화작업은 계속되었다. 개별적으로 파기도 하고 토요일 오후를 리용하여 함께 파고 찍기도 했다.

한편 모임도 자주 열어 학생들이 만들어놓은 작품을 제때에 평가해주었다.

검은색과 흰색의 대조로 표현되는 관화는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뚜렷이 나타났다.

합평모임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은 《이담엔 더 좋은걸 파겠다》고 다시 새로운 나무판을 달라고 요구해나섰다.

관화를 꾸준히 하게 됨에 따라 안착되지 못했던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엇이든 거칠게 대강

대강 해넘기던 아이들도 하나의 사물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돌리고 진지하게 보고 생각하게 된것 같았다.

그중에서도 성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학교를 쉬는 날이 줄어 들었으며 학급동무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다. 학과학습에선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으나 그전처럼 수업시간에 장난질하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확실히 성지는 달라졌어... 다른 선생님들도 퇴근에 5학년 1반이 달라졌다고들 하잖아...)

리선생은 혼자서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 공지가 차올랐다.

리선생은 관화작업을 통하여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학생들이 기특하고 사랑스럽게만 보였다.

X

어느날,

리선생이 모임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데 박성지가 따라나왔다.

《성지, 어떻게 됐어요?》

리선생이 묻자 성지는 말없이 그림을 내놓았다.

그것은 관화의 밑그림이었다. 귀여운 여자애의 얼굴을 정면에서 크게 그렸다. 아마 초급부 2학년인 그의 동생 성화인모양이다.

비교적 특징을 잘 잡았다.

(음, 이걸 다음에 파자는거로구나. 그런데 사람 얼굴을 정면에서 파자면 그 립체감을 나타내는것이 여간만 어렵잖은데...)

이런 생각이 든 리선생은 잠시 망설였다.

(성지가 이걸 꽤 파낼수 있을까? 아름찬걸 하다가 실패해서 자신을 잃지나 않을까?...)

《성지, 이걸 참 잘되었지만...》

다른걸 파면 어떤가고 말하려다가 리선생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말았다. 성지의 얼굴에서 어려워하는 빛이 띠끌만치도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혹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성지 생각대로 시키는것이 좋지 않은가. 물론 실패할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가 하겠다는건... 실패해도 좋은 교훈을 얻을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리선생은 결심한듯 말하였다.

《그래,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할수 있어요. 해보지요.》

허리를 굽혀 성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리선생은 성지를 고무했다. 성지는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이 있은뒤 성지가 새겨온 작품을 본 리선생은 여간만 놀라지 않았다.

작품이 예상외로 잘된것이었다. 두볼의 립체감을 내기 위해서 여러모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판 흔적이 력력히 보였다.

《성지! 참... 잘되었어요.》

너무도 놀랍고 기특해서 리선생은 저도 모르게 성

지의 어깨를 꼭 잡았다. 성지는 말이 없으나 얼굴엔 자랑스런 빛이 넘쳐있는듯했다.

《성지, 선생님은 어서 성지의 솜씨를 보고싶군요. 자, 찍어보지요.》

리선생은 방과후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에서 성지와 함께 그것을 찍었다.

찍어보니 생각대로 작품은 매우 잘되어있었다. 통통한 볼이며 귀여운 눈매가 생동하게 잘 나타났다.

찍힌것을 보고 성지는 수줍은듯 병글썩 웃었다. 리선생은 그러한 성지를 꼭 껴안아주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리선생은 찍힌것과 판을 대조하면서 파다 남은 곳, 좀더 선명히 파야 할곳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는 작품이 잘되었으니 꼭 완성시켜 이번 미술전람회에 내자고 성지를 부추겼다.

그날밤 리선생은 잠들지 못했다.

(난 정말 멍꽂이야! 학생들이 그렇듯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있는데도 복잡한 생활의 《어려움》만을 필요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표현의욕》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단정했었지. 미술을 할수 있을만한 정서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었지...)

생각할수록 리선생은 자기가 부끄러웠다.

(가난하게만 보인 생활, 복잡하게 뒤엉킨 생활속에서도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깊숙이 품고 있다. 그 가능성을 끌어내줄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교원인 나자신에게 달려있는것이였다...)

교육사업이 자기가 품은 이상대로만 안된다고 생각했던 리선생은 비로소 오늘, 자기의 진심과 성의와 노력을 바칠 때 얼마나 담차고 보람있는 사업인가를 새삼스레 느끼는것이였다.

(학생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학생들을 교육 교양한다는건 얼마나 어려우며 그것은 또한 얼마나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인가.

이제 난 새 출발을 해야겠어... 도화교원으로도 그렇고 그 애들의 담임교원으로도...)

자책감과 새로운것을 발견한 가슴벅찬 긍지로 하여 리선생은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아니 잠들수 없는 밤이였다. 그는 생각에 잠겨 이 밤을 보내고싶었던것이다.

X

일요일이였다.

아침식사를 끝낸 리선생은 오래간만에 책을 펼쳐들었다. 그런데 책을 읽다가도 문득 학생들의 생각이 나서 글줄이 눈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손에서 책을 놓고 이것저것 학급사업예정안을 짜기 시작하였다.

그의 가슴은 새 결의와 의욕으로 충만되어있었다.

《홍련아- 홍련아-》

밑에서 자기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

다.

《홍련아, 전화가 걸려왔다.》

《네-》

전화는 뜻밖에도 성지 어머니한테서 온것이였다.

《여보십시오. 전화 바꾸었습니다.》

《성지 담임선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엔 웬일인지 노기가 어려있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왜 장난질만 자꾸 하라고 부추기는가요?》

《??》

너무도 뜻밖의 말에 리선생은 어안이병병해 졌다.

《성지, 그 앤 오늘도 칼 가지고 장난질하다가 왼쪽 손을 베였어요.》

《손을요?》

리선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 제가 이제 곧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자세한걸 듣고싶습니다...》

리선생은 수화기를 놓고 서둘러 차비를 하였다.

성지네 집까지 가는데는 학교에서 10분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복잡한 뒤골목에다 《미와》라는 간판을 건 술집이였다. 술집이라고 해도 작은 카운터에 걸상이 대여섯개 나란히 놓인 비좁은 주막집이였다.

《안녕하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대낮이라 점방은 텅 비였다. 리선생은 왼편에 있는 계단에서 이층을 향해 《계십니까?》 하고 또한번 크게 소리쳤다.

《네-!》 하는 소리와 함께 성지 어머니가 요란하게 나무계단을 내려왔다.

《저... 성지학생 상처는 어떻습니까?》

인사를 하고나서 리선생은 물었다.

두번째 만나는데도 성지 어머니는 리선생을 한참이나 눈여겨본 뒤에야 《올라오세요.》 하였다.

작은 방 두칸에 사이문을 낸, 실지로는 길다란 방이 한칸이였다. 그 한쪽 구석에서 성지와 동생 성화가 텔레비존을 보고있었다.

자기 집에 나타난 리선생을 보자 성지는 놀람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성지학생, 손을 다쳤나요?》

성지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어떻게 하다가 손을 다쳤나요?》

또한번 물었을 때에야 성지는 책상우에 놓인 판화칼을 눈짓으로 힐끔 가리켰다.

그때 성지 어머니가 안방에서 《선생님, 이쪽에 와서 차를 드십시오.》 하고 리선생을 찾았다.

어머니와 마주앉은 리선생은 바늘방석에라도 앉은듯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선생님.》 하고 어머니는 리선생을 지켜보았다.
《선생님은 왜 아이들에게 공부는 시키잖고 그렇게 위험한 장난질만 시키는가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다.

《아, 아닙니다. 그건...》

《왜 아이들에게 공부는 시키지 않고 칼질을 시키는가말입니다. 그 애가 공부를 잘못한다고 그렇게 하는가요?》

연방 쏘아져나오는 어머니의 말마디마다엔 바늘로 찌르는듯한 예리한것이 풍겼다.

《아이, 어머니, 구런게 아닙니다. 그건...》

리선생은 당황하여 더듬거렸다.

《무엇이 그런게 아닌가요? 애비 없는 술집아이라고 공부는 필요없다는거겠지요!》

리선생은 말문이 막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자기의 마음을 리해해주지 못하는 성지 어머니가 야속하다는 한한지 생각이 리선생을 사로잡고있었다.

《어머니,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지학생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머니는 리해하셔야 합니다...》

성지가 실력이 떨어져 있다고 그저 공부만 시켜서 되는것이 아니다. 지금의 성지에게 공부, 공부하면서 그것만 요구하다간 오히려 더 마음을 퍼지 못하게 할수 있다. 성지에겐 공부에 자신심을 가지게 하고 학교에 흥미를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관화는 성지의 기호에 맞으며 그것으로써 학교와 공부에 마음을 이끌리게 할수 있다. 따라서 관화는 정서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리선생은 열심히 설명하였다.

《정서교양이요 뭐요 하는 그런 어려운 말을 난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말로 날 넘길 생각은 마시오.》

성지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리선생의 말허리를 가로챘다.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던 리선생의 두손이 무릎 위에서 후들후들 떨렸다.

리선생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성지 어머니를 리해시키지 못한채 인사를 하고 그의 집을 나왔다.

집으로 향하는 리선생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귀가에는 아직도 성지 어머니의 말이 고집스럽게 울리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성지 어머니가 야속하고 민망하게만 생각되는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다 성지, 자기 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심정에서 온것이라고 생각하니 도리어 어머니가 고맙게 느껴졌다.

(성지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으면 저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것이겠는가... 더구나 이국땅 이 일본사회에서 홀어머니 몸으로 아이들의 성장만을 믿고 살아가는 어머니이고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리선생이 걷는 비좁은 골목길은 일요일이라 하지만 번함없이 어수선했다. 쫓가게의 고무내가 코를 찌르는가 하면 고소한 불고기내, 김치내가 향수를 안고 풍긴다.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거리에까지 들려온다.

리선생은 새삼스레 한숨을 쉬었다.

(교원생활이란 정말 간단치 않구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더니 사람들의 생각이란 단순치 않구나, 어떻게 하면 성지 어머니를 납득시킬수 있을까?)

X

또다시 토요일이 왔다.

이날 리선생은 성지에게 관화작업을 중지시켰다. 몹시 아쉬워하는 성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프기도 하였으나 왼손에 아직 하얀 붓대를 감고있는 그에게 차마 관화작업을 시킬수가 없었다. 이날은 웬 일인지 흥이 나지 않아서 다른 학생들도 일찌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토요일이어서 선생들도 가정방문과 기타 다른 일로 일찌기 교원실을 떠나갔다. 리선생과 몇선생만이 교원실에 남아 교수안을 짰다.

교수안을 자다가도 리선생은 성지며 그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면 호-하고 한숨을 쉬곤 했다. 맞은편에 앉은 교무주임선생이 그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선생님, 오늘은 그, 그걸 안하는가요?》

교무주임선생은 오른손으로 관화칼을 쥐는 동작을 해보였다.

《예... 오늘은 좀 일찌기 돌려보냈습니다.》

리선생은 그 말을 하고 자기의 얼굴이 빨개지는것을 느꼈다.

교무주임선생은 리선생의 그런 표정에는 아랑곳없이 길쭉한 얼굴에 주눅 좋은 미소를 띄우며 말하는 것이었다.

《설 때도 있어야지요. 정말 리선생님이 이 기간 관화를 통해서 적잖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말이지, 그 박성지가 그렇게 관화를 잘한다는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던 그 애가말이지요. 성지뿐이 아니지요. 그 아이들이 선생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관화를 하거든요. 난 그 학생들에게 그런 <예술적재능>이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 데요...》

교무주임선생은 이렇게 말하고는 하하하- 호탕하게 웃었다. 리선생은 교무주임선생이 몹시도 고마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책감으로 가슴이 아팠다. 게면쩍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마음을 숨기고 애써 웃어보인 리선생은 그자리에 있기가 거북해서 교실을 돌아보고 오겠노라고 말하고 교원실을 나섰다.

한주일이 지났건만 아직도 성지 어머니를 리해시

킬 아무런 실마리를 쥐지 못한 리선생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계단을 올라 2층복도를 걸을 때 뜻밖에도 자기 학급 교실에서 인기적이 됐다.

《하하하… 호호호…》

모두들 돌아간줄 알았는데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용히 다가간 리선생은 창너머로 교실안을 들여다보았다. 몇명의 학생들이 교실가운데서 잉크판이며 로라를 대고 판을 찍고있었다.

철호, 순희, 영남이, 현숙이- 힘을 합쳐 판을 찍는데 그들속에서 유표한것은 성지의 얼굴이다. 그 얼굴은 몹시도 밝았다. 말수가 적고 그닥 웃지도 않으며 동무들과도 어울리지 않던 성지가 명랑하게 웃으며 동무들과 의중계 판을 찍고있다. 똬지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그들먹이 차올라왔다. 리선생은 마침내 문을 열고 교실안으로 들어섰다.

《선생님!》

철호가 소리를 지르자 학생들이 일제히 리선생을 돌아보았다.

웃이며 손, 얼굴에까지 잉크를 묻힌 학생들은 기뻐서 어쩔줄 모르며 리선생에게로 달려왔다.

《선생님!》

《선생님!》

아이들은 저저마다 자기가 찍은걸 보아달라고 야단이였다. 리선생은 목구멍안에 가득차있는 뜨거운것을 가까스로 씹어삼키며 하나하나 보아주었다.

《철호학생은 여기를 잘했어요. 영남인 집을 새겼군요요… 성지는…》

성지의 작품은 리선생의 가슴을 더욱 무덤게 했다. 성지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새겼던것이다.

점방에서 일하는 어머니모습이 판우에 생동하게 나타나있었다. 구도도 좋고 배경의 색대조도 잘 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동적인것은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는 그것이었다.

《…성지학생! 잘 새겼어요. 모두들 정말 잘했어요.》 리선생은 코마루가 찡했다.

X

그날 두번째 참관수업은 《도화》였다.

교실뒤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켜보는지라 학생들은 여느때없이 수업태도가 좋았다.

리선생이 몇번이나 전화며 가정방문을 하여 창조한 보람이 있어 거의 모든 학부형들이 다 왔다. 박성지 어머니도 그들속에 끼여있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온 판화 작품들의 총화를 하게 됩니다.》

리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5학년 1반 판화집》이라고 붓으로 큼직하게 쓴 종이묶음같은걸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뒤에 선 학부형들에게도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교실은 갑자기 소란해졌다. 학부형들도 서로 뭔가 수군거리면서 판화집을 번지기 시작했다.

《자, 모두들 보세요.》

학생들뿐만아니라 학부형들도 고개를 들어 리선생을 지켜보았다.

《이 판화집은 그간 학생들이 새긴 판화작품속에서 잘된것을 골라 묶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학생들의 작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판화는 하나의 판에서 몇장이라도 찍어낼수 있습니다. 그림과 달리 같은걸 몇장씩이나 찍고 나누어가질수 있다는것- 이것이 판화가 가지고있는 좋은점의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판화는 나누어가지는 기쁨이 있다는것입니다.》

리선생은 이 판화집을 만들기 위하여 꼬박 밤을 밝히며 보낸 지난 한주일동안이 일을 회상하며 힘있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는 판화를 한장씩 번지면서 설명을 해나갔다.

《자, 첫번째것은 김철호학생의 작품입니다.》

뒤에 선 철호의 아버지가 놀란듯 자기 아들을 여겨보고는 작품으로 눈을 돌렸다.

어디가 잘되었는가? 왜 잘되었는가? 어떤곳을 좀더 세밀하게 새겼더라면 좋았겠는가?- 리선생은 설명을 해나갔다.

학생들도 학부형들도 리선생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학부형들은 흠, 흠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리선생에게 공감을 표시했다.

제일 마지막은 박성지의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제일 잘된것입니다.》 하고 리선생이 말하자 학생들은 일제히 성지쪽을 보았다. 성지의 얼굴에는 자랑스런 빛이 어려있었다.

《보면 아다싶이 이건 성지학생이 점방에서 일하는 자기 어머니를 새긴것입니다… 배경과 사람의 색의 변화도 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는 성지학생의 기록하고 가룩한 마음을 엿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리선생은 목이 꼭 메였다.

다음순간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성지에게 보내는 찬양의 박수였다.

리선생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체면쩍음을 숨기지 못하는 성지의 얼굴과 손수건으로 슬그머니 눈물을 닦는 성지의 어머니가 비껴왔다.

리선생의 두눈에도 눈물이 핑 어리었다. 그 눈물속에는 한없는 기쁨과 자랑과 긍지와 보람이 비껴있었다. 눈물을 머금고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그림을 설명해나가는 리선생의 얼굴은 창문으로 비쳐든 눈부신 해빛을 받아 전에없이 한층 더 의젓해보였다.

(총련 학우서방 직원임)

기러기떼 쉬었다 가려마

허관일

쟁반같은 달
놋소리 쟁쟁 그 여운마저 들릴 듯
번들거리는 간석지 저 멀리
서조선만의 달밤은 아름다와라
썰물이 진뉘면-
골창들에 물흐르는 소리
아득히 어디선가 소요하는 파도소리
갈대숲의 설렁거리는 소리

끼룩끼룩 구시월엔 돌아가는 기러기떼
가도가도 바다뿐이라는 듯
내렸다갔으면 쉬었다갔으면...
섬마을 하나 나저서 그 이름마저 가도
저마다 내려앉던 땅
썩아- 심술궂어라 달려드는 밀물
젖은 감탕을 털며 푸드득-
가쁜 숨 그대로 다시 오르던 새들...

그 바다가 해묵은 그 간석지에
하늘땅을 채우는 동음소리
간석지의 거창한 숨결소리...
펼쳐져가는 벌은 아득해
저 하늘도 모자라 가닿지 못하는 듯
지평선에 해쫓고 해지니
이 땅은 넓고넓어 긴긴 하루해
농사철도 길어지리라는 고장

억년을 깊이 잠자던 간석지
래일의 새땅이
조국땅의 한부분으로 넓어져간다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삼십만정보로...
서해의 파도에 와서 멎고
벼의 파도에 와서 닿는
희망의 방축길이어
남포-룡담포행 더 멀었으면싶은 바다길이어

아, 가슴부풀어 지새는 정열의 밤
그날이 보인다-
석양노을 아름다운 저녁이면
벼수확기 몰아서 며칠길
목어가야 할 넓은 들이...
가도가도 끝없는 들판으로
설레이는 벌 한가운데
이제 가도는 벼바다의 섬이 되리라

끼룩끼룩 삼시월엔 돌아오는 기러기떼
둥근 달을 껴며 지나가는 긴 행렬
나래깃으로 두드려
놋쟁반의 소리
이 땅의 전변을 아뢰이는 듯
밤길에 못찾아 하던 땅
이 좋은곳 그 어디에나
내렸다 가려다, 쉬었다 가려마...